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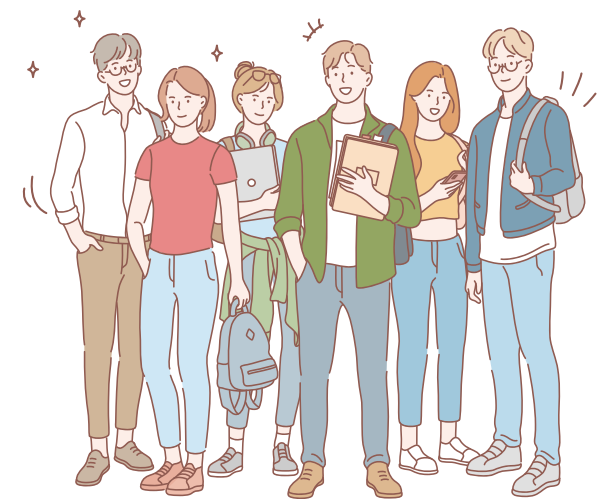
2020 청주대학교 라이프아카데미(CLAP) 2기

꿈꾸는 그대에게, CLAP!



2020 청주대학교
라이프아카데미(CLAP) 2기

꿈꾸는 그대에게,
CLAP!



꿈꾸는 그대에게, CLAP!

청주대학교 라이프아카데미(CLAP) 2기
2020년 3월 1일 ~ 2021년 2월 19일

Contents

1학기

CLAP 학생기자단 12

- 첫 대면 수업, 토론워크숍으로 만난 CLAP 2기
- 두들아트와 디자인씽킹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자
- 나를 한발 더 나아가게 하는 힘, 성장마인드셋
- 인간학의 역사 그리고 생명존중과학
- 미래를 준비하는 바람직한 태도
- 함께 웃는 우리 지역 만들기
- 2020 CLAP DAY

2학기

- 소담과 함께하는 Book적 Book적 여름 독서캠프
- 자기 이해와 자기 관리에 관하여
- 혐오가 빚발치는 세상, 극복하는 우리
- 잿빛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함께였음을, 또 사랑했음을
- 우리가 당신들의 오늘을, 내일을 사랑하겠습니다.
- 사랑은 꽃처럼 천천히 피어나는 것
- 숫자로 이해하는 세상! 회계의 신들과 함께 한 재무제표 이해의 주간
- '정의'란 무엇인가
- 윤세웅 대표님과 함께 한 라이프아카데미와 AI 이야기 + 퀴즈대회를 겸한 zoom 전시회

CLAP 학생 학습후기 132

CLAP 학생 에세이 182



청주대학교 라이프아카데미

CLAP (Cheongju university Life Academy Program)

CLAP은 (재)동원육영재단이 지원하고 청주대학교가 운영하는 독서 중심 전인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17년 자양라이프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전국 12개 대학에서 라이프아카데미가 운영 중이며,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청주대학교가 라이프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12개 대학 라이프아카데미 연표

2017

- 자양라이프아카데미
- 연세대
- 부경대
- 조선대

2018

- 인하대
- 숙명여대
- 고려대
- 서강대
- 한국외대
- 서울교대

2019

- 영남대
- 서울대
- **청주대학교**

2019. 6.

- 라이프아카데미
관계자 간담회

2020. 6.

- 라이프아카데미
관계자 간담회

청주대학교 라이프아카데미 연표



2019. 1.

- CLAP 1기
139명 지원, 50명 선발

2018

- 6월: 청주대학교 라이프아카데미 기획 착수
- 9월: 동원육영재단 실무자 미팅
- 10월: 협약서 사인
- 11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집 시작
- 11월 중순: 청주대학교 라이프아카데미
설명회 개최, 모집 마감 및 1차 서류심사
- 12월: 2차 심층 면접 진행

2019. 12.

- CLAP 2기 모집 마감 및
1차 서류심사
- 2차 심층 면접 진행
- 86명 지원, 55명 선발

2020. 2.

- CLAP 1기 수료식
47명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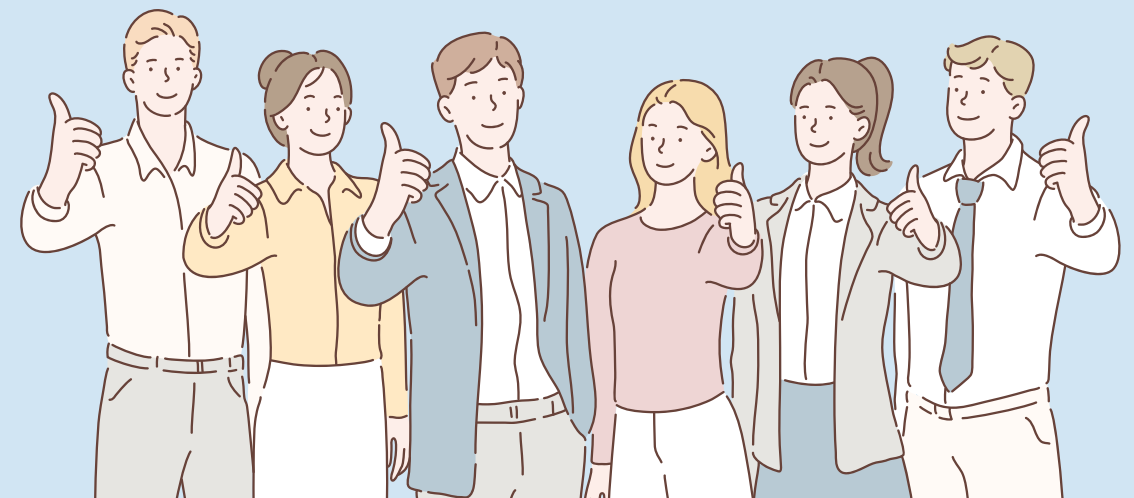
2021. 1.

- CLAP 3기 모집 마감 및
1차 서류심사
- 2차 심층 면접 진행
- 83명 지원, 56명 선발

2021. 2.

- CLAP 2기 수료식
53명 수료

CLAP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수 최건아(청주대학교 국어교육과)

처음 들어보는 낯선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1기의 겨울 캠프 일정을 대폭 수정했던 지난 2020년 1월. 이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나고 다시금 맞이하는 겨울방학입니다. 작년 이 무렵, 누군가는 이 혼돈이 수개월 내에 정돈될 것이라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1년여 이상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던 와중에 CLAP 2호선이 출범하였습니다.

팬데믹으로 사회 전반의 모양새가 아주 바뀌어버렸고, 대학들의 운영 방침 및 수업 풍경도 유례없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문구 중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취지로 기획된 많은 사업과 교육 프로그램들이 무산되는 데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문구가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디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육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에서 모셔 오려던 강연자의 일정이 바뀌고, 대면 수업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점심 식사 해결의 문제, 캠프 운영의 문제 등이 연이어 일어났지만 우리는 ‘읽고, 나누고, 생각하고, 실천한다’는 CLAP의 기본을 지켜나가기 위해 무던히 애썼습니다. 우리 운영진은 매주 새로운 수업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고,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우리 CLAP 2기 학생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서로를 돕고 희생하며 오히려 봉사를 통해 희망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다른 많은 재학생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내에서 좋은 교육 경험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로 손을 뻗었으며 청주대 바깥의 많은 젊은이들과 교류하는 등 ‘변화의 공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수상의 기쁨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준 우리 학생들 스스로의 성장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CLAP과 함께하며 교수자로서 저도 많이 성장하고 배우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의 위기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쪼록 2020년도를 함께 한 동료들과 우리 운영진을 떠올리며 이겨내실 것으로 믿습니다. 언제나 CLAP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하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LAP

1학기

학생기자단

리더의 길, 그 출발점에서 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개인과 공동체가 과거의 길을 지나 현재의 길을 거쳐 미래의 길로 나아가는 항해와 같습니다. 지식을 익히고, 익힌 지식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친구들과 협력하여 이타심을 기르는 CLAP 수강생의 모습. 그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7주차

첫 대면 수업, 토론워크숍으로 만남 CLAP 2기

오늘 5월 15일, 토론워크숍으로 CLAP 2기의 첫 대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체온 측정부터 방명록 기입하기, 종일 마스크 쓰기 등 모두가 방역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며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 했습니다. 대진표를 통해 각 조가 토론주제를 정했는데, 조선 건국의 정당성, 비만세 신설, 화폐 개혁, 난민 할당제 등 다양한 주제가 토론장에 올랐습니다. 모든 조가 열심히 몰입해서 토론을 진행한 덕분에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친구들이 거의 처음으로 대면한 날 마침 논쟁 중심의 활동이 진행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강렬한 인상을 새긴 열띤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뜨거웠던 CLAP 2기의 일곱 번째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협력의 가치에 관하여



본격적인 토론 워크숍을 시작하기 전, 교양대학 전 학장이자 운영교수이신 김영균 교수님의 말씀을 청해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호모사피엔스의 역량 중 ‘협력하는 능력’이 있음을 제시하며, 오늘날과 같은 때에 더욱 우리는 서로 혐오를 넘어서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어 교수님은 CLAP 1기 한 명의 면접 스토리를 들려주셨습니다. 해당 학생은 자신이 편입을 해서 친구가 없는데 CLAP을 통해 다양한 과의 학생들과 만날 수 있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CLAP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CLAP의 지향점은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CLAP 2기 친구들은 이 점을 명심하여,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김영균 교수님의 말씀에 이어, CLAP 2기 기자단 소개를 했습니다. 기자단은 학생들에게 미리 인터뷰 요청이나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음을 알리고, 인사 겸 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에 참여한 친구들 중 7&9조가 유닛을 형성해서 2020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사회복지협의회 주관)에 참여했는데 전국 139개 팀 중 서류 심사 후 40개 팀에 들어간 점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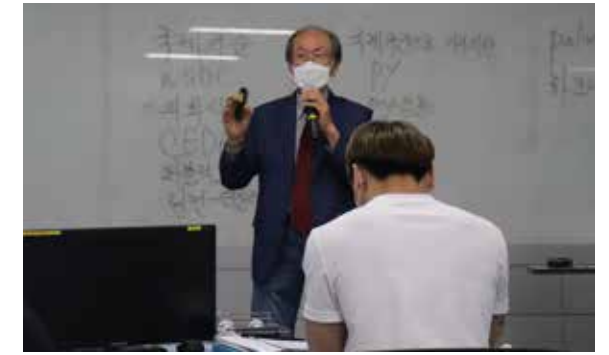
(^^) 덧! 이날 수업 이후 7&9조는 최종 30팀 안에 선발되고,

5&6&10조 역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농어촌재능나눔 대학생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모두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들 주관 기관으로부터 뽕뽕한 지원금을 받으며 정말 ‘제대로’ 봉사 실천, 창의 만발하는 한 해 보낼 예정인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을 추진 중인 다른 모든 조들도 잘 하고 있음을 격려하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즐겁게 수용하고 재미있게 진행해보자고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토론 워크숍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내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넓은 세상에서 토론의 경험을 쌓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대립토론을 시작으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교내, 교외, 전국 단위 토론대회도 많이 참가하고 뛰어난 말하기 전략도 잘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토론은 허 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함께 새겨보았습니다.

글로벌 인재, 대립토론으로 키운다. 박보영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간은 “글로벌 인재, 대립토론으로 키운다”라는 주제로 대립토론을 29년간 연구하신 박보영 선생님이 강연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후에 진행할 토론 워크숍에 앞서 선생님과 대립토론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보영 선생님은 대립토론을 연구하시면서 29년간 블로그를 운영하시고, 실제로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계속해서 공유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먼저 위대한 혁명의 공통점이라는 동영상 보여주셨습니다. 영상은 시간, 공간, 관계, 경쟁, 가치의 무게중심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교육도



기존의 방법을 탈출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급속도로 변화하는 교육의 방식을 몸소 느끼며 많은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동원 라이프아카데미 역시 그 취지가 기존의 맹목적인 장학금 수여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추구한 데 있다고 하십니다. 그 ‘새로운 길’의 또 다른 예로는 높이뛰기의 방식을 기존의 가위 높이뛰기 대신 배면 뛰기를 한 선수, 수영에서 손이 아니라 발로 튕 한 선수, 펩시와 코카콜라가 100여 년 경쟁할 때 콜라 경쟁으로 펩시가 항상 졌지만 기존의 경쟁 방식을 버리고 펩시가 종합 음료로의 경쟁으로 결국 1위를 탈환한 점 등이 있었습니다. 또 지자체의 축제 중 대표적인 함평 나비 축제는 현재 세계적인 브랜드화가 됐습니다. 과거 지역 주민들은 90퍼센트 이상이 나비 축제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농사법이 아니라 나비를 키우는 새로운 방법을 시험해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통념을 이기며 탄생한 나비 축제는 600만 명이 다녀가는 세계적인 관광 사업이 됐습니다. 선생님은 결국은 기존의 방법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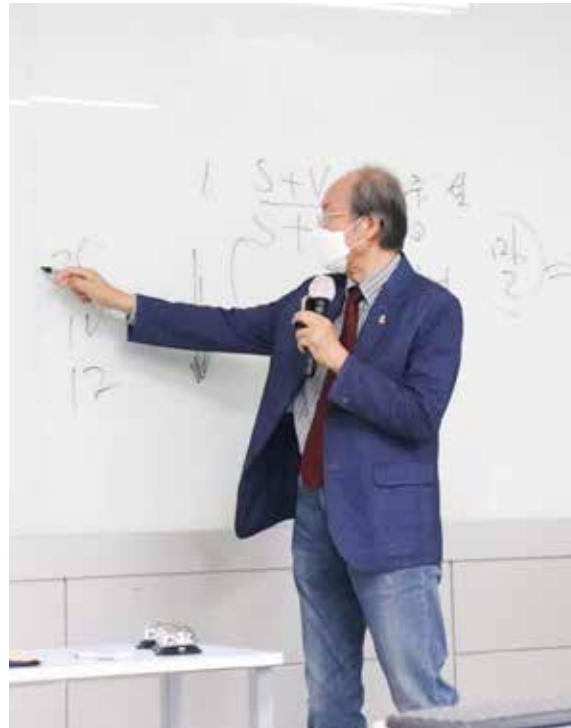


우리나라 교육의 병폐와 대립토론이 어려운 이유

선생님은 우리 교육의 3가지 병폐 현상이 '경쟁', '학생들의 성과가 선생님 책임이 되는 것', '교육의 표준화'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협력보다는 경쟁을 강조해 온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누르고 자신의 위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학생의 입시 결과가 선생님들의 책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표준화된 교육 및 대학 입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엄청난 공부 양에도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나라 교육은 감염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함께 이기는 소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한 예로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잠수종과 나비'를 탄생시킨 프랑스 작가의 스토리였습니다. 글을 잘 썼던 그녀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전신 마비가 되고 마는데, 그녀는 병상에 누워서도 간병인에게 숫자를 가지고 알파벳을 표현하는 법을 알려주어 수필집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것은 환자와 간호사 간 완전한 소통의 결과였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100년 전부터 토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론이 교실에 제대로 정착하기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 말의 S+O+V의 구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영어나 서양어는 주장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면, "I LOVE YOU"이지만, 우리나라 말은 S+O+V의 구조로 "나는 너를 좋아해"입니다. 그래서 주장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주장보다는 설명에 적합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형용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의식을 많이 나타냅니다. 또한 외국어는 우리말과 같은 높임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 문화에는 학번으로 통성명하기,



존댓말 쓰기 등 수식 구조에 발달돼 있습니다. 또한 연령대에 따라 쓰는 존댓말이 달라집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가 6.25 전쟁부터 수직적인 의식구조에 젖어 있다고 하시며, 대학교에서도 선후배의 관계에서 선배들의 주장에 반기를 들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으로 협상과 타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립토론이 더욱 필요합니다. 대립토론은 운동경기와 비슷합니다. 정식 축구 경기는 11명으로 팀끼리 대부분 경기합니다. 총 2팀으로 구성됐고 찬성 측, 반대 측,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이 있습니다. 끝나면 반드시 승패가 결정된다는 부분에서 축구와 비슷하지만, 축구와 달리 대립토론은 말로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대립토론에서는 이 두 가지가 생명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토론은 말싸움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토론을 이끄는 자가 세상을 이끈다.

대립토론의 특징은 팀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토론은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팀원 중 특정한 사람만 돋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추첨으로 찬성 측, 반대 측을 구성합니다. 또한, 한 관점이 아니라 여러 각도로 문제 해결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대립토론은 협동심과 감정도 조절 능력을 키우기에 좋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토론 상황에서는 간혹 학생들의 붉은악파처럼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힘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토론선수 출신으로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입니다. 세계적인 리더들은 모두 토론으로 키워진 인물들입니다. 그러므로 토론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토론은 주제가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심문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분 토론, 심야토론과 같은 것은 대립토론으로 볼 수 없는데, 대립토론이라면 승패를 결정해야 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정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 가지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입론은 찬성 측이 먼저 함.
2. 최종발언은 반대 측이 먼저 함.
3. 순서와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함.
4. 작전 회의, 질의응답은 5분 정도로 정해져 있음.
5. 찬성 측 반대 측이 각각 오른쪽, 왼쪽으로 앉는 기준이 정해져 있음.
6. 토론 인원수 역시 5명으로 정해지며, 이외에는 보조자임.

대립토론의 규칙을 이해한 우리는 대립토론의 중요성에 대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서재필 박사의 노력으로 대립토론의 용어가 교과서에도 수록된 이후 거의 전국적으로 고등학교에서 토론 수업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전체 기업의 60%가 토론으로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토론이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토론은 말하기 능력, 크게는 국어 능력의 기저가 되며, 국어 능력은 다른 교과 학습 능력의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국어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가지 영역 중 말하기 영역에 주목해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말하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의 끝을 우물거리고, 끝마무리를 잘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앉아서 말합니다. 세 번째는 눈 맞춤이 잘 안 됩니다. 네 번째는 확신 없는 말



을 사용합니다. “~같아요.”를 많이 씁니다. 한 인터뷰에 선수가 나와서 기록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기록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그것이 현재 불신 사회가 된 이유인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공감했습니다. 국어의 4가지 특징 중 말하기 능력은 대립 토론을 통해 향상된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잘못된 말하기 특징이 사라지고, 명확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토론이 학습 능력과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집중해서 듣습니다. 서로 반박을 하므로 제대로 주장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직접 주장하는 글을 쓰고, 근거자료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 글이 논술입니다. 쓰기 능력은 고등학교 입시로 대치동 논술학원에 다니면서 배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논술학원에서 습득한 쓰기 능력은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대립토론에 열중한 학생들은 쓰기 능력도 다르다고 합니다. 창의적으로 자기주장을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읽기 능력도 키워집니다. 일반적으로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대립토론에 강합니다. 그 이유는 대립토론의 생명이 근거자료를 내면서, 자기주장을 하고, 계속 인쇄 매체를 읽기 때문입니다. 관련 서적을 읽고 나면 읽기 능력이 놀라게 키워

집니다. 근거자료를 찾기 위해 설문지를 만들어 돌려서 통계 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다시 국어를 넘어 다양한 교과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과 맞닿아 있습니다. 토론의 달인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할 때 게임형 토론이 지닌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선 모든 대립토론은 팀 게임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립토론은 찬성이 먼저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 측이 불리하므로 모든 끝마무리의 주장은 반대 측이 합니다. 대립토론은 어떤 주제가 있어야 합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두 팀은 일정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심문 과정을 가지며 승패를 결정합니다.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상대는 태클을 걸며 이의 제기합니다. 만약 찬성 측에서 주장하면, 반대 측에서 태클을 겁니다. 그러나 15초 이내로 이의제기를 끝내고 1~2번은 답변을 해야 합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심판이 팀의 점수를 깎습니다. 타임을 끊고 왼손을 머리에 얹는 이유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회 회의에서는 가발을 쓰는데, 자리에서 일어나면 가발이 벗겨지게 돼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난 데서 유래하였다는 흥미로운 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주의할 점을 언급해주셨습니다. 질문자는 상대방이 쓰지 않은 자료를 물어보면 안 됩니다. 최종발언자는 입론에 관한 내용의 재방송은 금지해서 입론 자가 주장한 것을 그대로 주장하면 안 됩니다. 최종 발언은 입론 자가 말한 4가지 중 1개 정도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주장들을 정리해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샌드위치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별로 대화를 나누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 준비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긴장을 풀고 즐겁게 시간을 보낸 후, 본격적인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각 조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대립토론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판으로서 바라본 토론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대면 수업에서 처음 만난 조원들과도 십년지기처럼 긴밀하게 논의하는 성실한 모습들은 정말 빛났습니다.

토너먼트에서 만난 열혈 토론 조들



위에 사진 자료와 같이 첫 토론은 ‘이성계의 조선 건국은 타당한가?’ 주제로 토론을 6&7조와 8&10조가 진행했습니다. 찬성 측은 6&7조가 연합으로, 반대 측은 8&10조가 연합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모두 긴장하고, 첫 만남이라 잘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지만, 모두 너무 열심히 열띤 토론을 진행해서 재미있게 토론을 볼 수 있었고, 심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며 토론대회를 보는 맛도 상당했습니다.

8&10조가 승리한 후 다음 토론으로, 8&10조가 찬성 측으로, 2&9&11조가 반대 측으로 같이 경쟁하게 됩니다. 주제는 ‘우리나라 화폐 개혁은 필요한가?’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제가 속한 3조가 1&3조 찬성 측, 4&5조는 반대 측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비만세 신설에 찬성/반대한다’였습니다. 우선 비만세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찬성 측부터 토론의 입론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4&5조의 승리로 토론이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서 승리한 4&5조는 부전승으로 바로 결승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결승 토론의 주제는 ‘유럽 연합의 난민 할당제 추진은 합당한가?’로, 8&10조가 찬성 측으로, 부전승으로 올라온 4&5조는 반대 측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초 시간을 재고 30초 전에 예비종을 울리며, 토론 참여자와 평가자 모두 열띤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론의 승패에 따라 패한 조와 토론에 함께하지 않는 조들은 심판이 되어 계속 토론 진행 과정에 참여하니, 모두가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토론 자료를 어떤 매체에서 찾아야 할지 유의하며 토론했습니다. 토론에서 쓸 자료는 TV, 라디오, 잡지, 뉴스에서 찾아야 하며, 네이버와 구글 검색창, 백과사전을 부적절하게 활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연구소의 연구원이 이런 조사를 했다’ 같은 정확한 근

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냥 자료를 복사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재구성하고 재가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신의 자료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불이 어느 시기에 많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산림청이 경찰서보다 중요합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가장 잘못하는 것이라는 점, USB에 담은 것은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점이 특히 중요했는데, 이는 상대가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원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역할에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심판은 점수 부여의 내용을 체크하고 점수화하는데, 이때 팜 카드(MC들이 들고 있는 대본 카드)를 활용합니다. 팜 카드가 있으면, 토론에서 자연스럽게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고 상대와 눈 맞춤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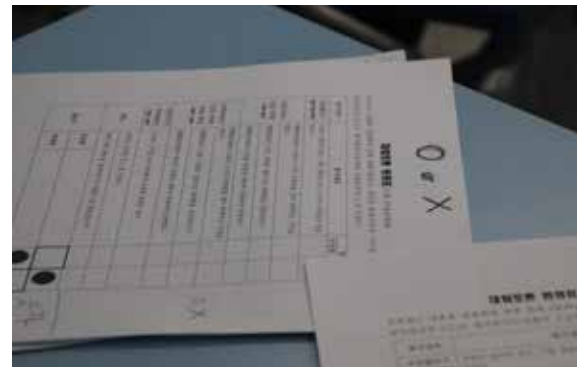
마지막 토론



마지막 토론은 유럽 연합의 난민 할당제 추진은 합당한가?의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1조의 우지수, 권민정 학생이 사회자로 애써주었습니다. 이번에는 3 토론의 승자인 8&10조가 찬성 측, 2 토론의 승자인 4&5조가 반대 측으로 진행했습니다. 유럽 난민 할당제 찬성 측 입론으로 조배성 학생이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소수의 난민들에게는 도움

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당제 반대 측의 신진철 학생도 난민 할당제 입론을 진행했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첫 번째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각국의 국민이 아니라 난민을 채용할 가능성 높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위생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국가적 질병 관리에 안 좋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국경관리 기관의 자료로 실제 시리아 난민은 5명 중 1명이지만 자신이 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99%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는 난민에게 많은 재정을 지원하지만, 난민들은 더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지원금 정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난민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난민 할당제는 난민수용을 원하는 나라와 원하지 않는 국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라는 내용으로 입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각 조가 상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반론중 '모든 난민 중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난민이 있을까?' 라는 말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까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대립토론이 끝나고, 심판들은 찬반측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심판자의 역할



토론을 진행하지 않는 8&10조와 4&5조를 제외한 모든 학생은 심판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심판의 역할



을 대립토론 판정표를 통해 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대립토론을 듣고 평가하는 작업을 거쳐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립토론 판정표는 평가영역이 주장 펼치기, 1차 반론하기(질문-반박), 2차 반론하기(질문-반박) 반대에 찬성 측에게, 태도, 총평가 영역으로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하고 믿을만하다, (반박)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의 문제점을 찾아 반박하는 주장을 펼친다. (질문) 알맞은 질문, 적절한 질문으로 상대방을 심문하는가? (반박)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의 문제점을 찾아 반박하는 주장을 펼친다. (질문) 알맞은 질문, 적절한 질문으로 상대방을 심문하는가? (답변) 상대방이 제시한 반론에 대하여 적절하게 답변한다. 주장 다지기(최종발언) 주장과 근거를 다시 정리하여 주장을 분명히 한다. 태도의 부분에서는 토론의 규칙을 알고 잘 지킨다. 예의 바른 태도로 참여하는가? 팀원이 잘 협동하는가? 늘 통해 총 평가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점수를 적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토론을 진행한 후 심판들이 최종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승패에 따라 1~3번의 토론의 횟수가 정해졌습니다. 박보영 선생님께서는 대립토론은 횟수에 따라 실력이 키워진다고 하며, 토론을 많이 한 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토론자들은 안건의 주제를 씹어 먹고 소화를 시켜야 한다며 주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민 할당제 안건에 대해 정리해 주셨습니다. 유럽연합의 26개 나라에서 핵심인 나라는 유로화를 쓰는 곳이 19개국이고, 유럽 연합의 회원국 중 헝가리, 폴란드, 독일에서는 난민 수용이 힘드니 국가에 따라 난민을 할당해 수용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호주나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 유럽연합의 난민 할당을 추진하냐 마느냐가 핵심입니다. 안건 해석을 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한점을 만들거나 어휘해석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또한 질문을 할 때는 토론 조건의 6가지 중에서 심문 과정이 중요합니다. 질문과 답변으로 상대방의 주장 잘못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심문 과정에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꼭 축구 경기와 같습니다. 매번 공격하다가 마지막에 멈춰 서면, 공을 뺏기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에서, 질문 시간인 5분 동안 쓰고 주장하며 반론하면서 상대방이 답변할 시간을 안 주는 것 역시 작전입니다. 다음으로 주장을 모두 기억하긴 어렵기에 메모해야 합니다. “입론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군더더기 있는 말을 하지 않고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상대방은 상대방이므로 심판에 집중하면 됩니다. 대본을 보고 읽는 것은 아이콘택이 안 됩니다. 그것은 주장이 아니라 보고 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팜 카드가 필요합니다. 주장의 타당성을 묻는 질문은 상대를 돕는 일입니다. 타당한 이유를 또 대답하니까 이쪽이 손해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말싸움을 막는 일은 통게치 같은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 답변의 과정에서 말은 역할인 질문자와 답변자가 뒤섞이면 안 됩니다.

오늘 토론에서 자주 쓰인 말 중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요.”의 의미도 짚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제대로 말하지 않거나, 듣는 사람이 집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모두

경청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은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특히 선생님의 마지막 피드백을 통해 제 문제점을 떠올릴 수 있었고, 앞으로의 토론에 임하는 각오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3대 9로 반대파가 이겼으며, 신진철 학생이 최우수 참여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에 우승팀인 4&5조는 상품으로 마이클 샌델의 저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자 학생인 신진철 학생에게는 박보영 선생님께서 직접 상장을 보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5월 15일 아침에 전체 조원이 참여하는 대면 수업에 떨리는 목소리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 이후 바로 대립토론을 했지만 모두 열정적으로 토론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과정을 거쳐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CLAP 2기 활동이 정말 기대됩니다.

학습후기로 본 토론워크숍

저는 이번 주 학습 및 활동 내용에 토론워크숍의 전반적인 토론의 순서를 기록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및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은 토론과정이나 토론자료를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팀 토론을 진행하려다 보니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나누지 못했고, 참여도의 정도가 너무나 제각각이었



습니다. 저희 조에도 5명 중 3명만이 대면 수업에 참가할 수밖에 없어 결국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저와 조원들은 거의 밤을 새워서 토론 자료를 만들었지만, 팀워크의 부족으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 있는 토론대회에 참가하기로 하며 모두 더욱 큰 결의를 다졌습니다.

‘더 알고보고 싶은 것’ 역시 대립 토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립토론은 현란한 수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며, 자료조사와 팀워크, 순서와 규정, 입론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만 토론의 순서를 아는 것과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의 차이는 대단했습니다. 실습수업의 매력과 첫 대면 수업으로 인해 너무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학습 및 활동 계획에는 다음 주에 이어질 기자단의 모임과 교수님과의 상담, 과제, 다음 시간의 도서인 <넋지>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책을 읽고 자료를 정리를 잘하고, 말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작성해 봤는데요. 우리 CLAP 2기 친구들은 어떻게 작성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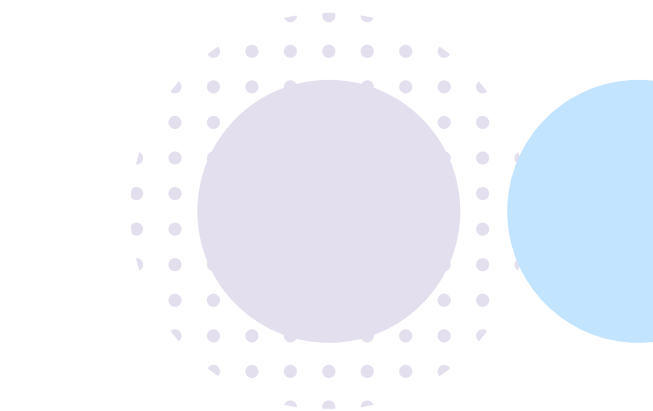
애들아, 에델바이스에서도 즐겁게 다시 만나자!

정말 숨가쁘게 알찬 하루였습니다. 아쉽게도 거취 문제, 감염 위험 등의 문제로 CLAP 대면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



운 친구들은 강연 및 토론 장면에 대한 녹화 자료를 청취하는 방법으로 CLAP에 출석하는데요. CLAP의 모든 친구들을 빼놓지 않고 챙기시는 운영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CLAP 2기의 첫 대면 수업을 토론워크숍으로 진행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진지한 면을 보게 됐고, 소통과 말하기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말하기 습관과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어려운 시국으로 대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녹화 수업을 보면서, 함께 참여하는 우리 CLAP 2기의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하루빨리 대면 수업이 시작되길 기원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청주대학교 CLAP 2기, 모두 만나서 친해지자!



|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9주차

두들아트와 디자인씽킹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자

선선한 날이 청주 라이프 아카데미(CLAP) 5월의 마지막 주차 강의를 반겨주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청주 라이프 아카데미는 대면수업과 함께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ELECTIVE 강연은 신경순 만화가님의 「두들아트를 통한 비주얼 씽킹」이라는 제목의 강연입니다. 작가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화가 그려지는 과정과 두들아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MODULE 시간은 청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이종선 교수님과 함께 「디자인적 사고를 통한 창의적 발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넋지를 통한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이후 시간에는 학생들이 팀을 이뤄 넋지를 이용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오프라인 대면수업중에 온라인 수업을 위한 녹화가 함께 되고 있다.

ELECTIVE: 신경순 만화가님의 「두들아트를 통한 비주얼 씽킹」



먼저 오전 시간은 신경순 만화가님과 함께 「두들아트를 통한 비주얼 씽킹」이라는 주제로 2시간의 ELECTIVE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비주얼씽킹이란, 시각+생각. 시각적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초월한 의사소통이지요. 여행지에 가서 하는 바디랭귀지나, 메뉴판에 있는 음식사진을 가리키며 주문하는 것도 비주얼씽킹의 일부입니다. 이런 방식을 만화로 화폭으로 옮긴 것이 두들아트인데요. 이것을 오늘 간단히 그려볼 겁니다. 누군가가 ‘간단히 만화를 그려 주세요’ 또는 ‘당신의 스토리를 들려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대다수는 당황할 것입니다. 하지만 ‘스토리’ ‘만화’라는 인식을 하지 않으면 누구나 매일매일 이야기하는 것이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두들아트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까요? 우리는 늘 스토리로 말을 하며 삽니다. “오늘 학교에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때서 재미 있었어”와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이와 같은 스토리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옮겨봅시다. 이것이 바로 콘티인데요, 우리가 그릴 그림의 뼈대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콘티 위로 자세하게 그림을 그립니다. 먼저 주제가 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사이사이를 작은 그림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림을 그려볼 때입니다. 주제는 환경이나,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 둘 중에 하나를 정하여 그려봅시다.



학생들이 그린 두들아트

MODULE1 청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이종선 교수님의 디자인적 사고를 통한 창의적 발상

오후시간에는 청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이종선 교수의 「디자인적 사고를 통한 창의적 발상」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넋지]라는 책을 읽어오고, 그에 대한 설명과 디자인적 사고가 포함된 예시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넋지란 ‘팔꿈치로 쿡쿡찌르기’라는 말입니다. 사용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변화를 유도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뤄내는 것을 말하지요. 강압적인 설득이 아니라 부드럽게 개입하여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이론은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특히 익숙한 것을 받아들이는 자동시스템과 새로운 것을 받



아들이는 숙고시스템 중 자동시스템에서 오류가 주로 발생합니다. 그중 시각적으로 생기는 외곡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기도 합니다. 착시기법 중 모양향등성이나, 착시적 윤곽을 활용하여 로고들을 만들기도 하지요. 다른 방법으로는 기본 값, 디폴트 값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상유지편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값을 쉽게 바꾸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지요. 이런 인간의 완벽하지 않은 부분에서 넛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삶의 질이 올라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MODULE2

디자인적 사고를 통해 문제 해결해보기



자 이제 앞서 배운 내용들로 직접 문제를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별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3분 이상 손 씻게 하기’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고 발표를 해봅시다.

문제의 대상, 페르소나에 대해 정하고 그가 싫어하는 행동을 좋아하는 행동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해결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상황을 살펴보고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봅시오.

그럼 이제 조별로 해결방안을 찾아볼까요?



조별로 문제를 해결하고 발표용 자료를 만드는 중

1조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세균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한다. 디지털 모래시계를 새면대에 놓아서 시간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손등에 도장을 찍어서 도장을 지워야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슬라이드를 비누타입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즐겁게 손을 씻게 만든다. 하원전에 손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수업을 한다.

3조 변기 레버를 누를 때 액체비누가 손에 묻게 만든다. 변기->세면대 발바닥 스티커 붙인다. 외출 후 손을 잘 씻으면 칭찬스티커를 붙인다. 비누안에 공룡피규어를 넣어서 손을 씻게 한다. 밥먹기전에 잘보이는 곳에 손을 씻고 먹으라는 문구를 넣는다. 화장실 가서 손을 씻으면 30초동안 음성으로 그날의 식단을 알려준다.



발표하는 학생들

2조 액체타입의 비누에 세균모양파츠나 캡슐을 넣어서 만든다. 30초이상 썼으면 파츠가 녹도록 만든다.

6조 손가락 연극으로 손을 씻도록 한다. 화장실에 수전을 캐릭터수전으로 만들고 노래를 30초 이상 나오게 한다.

5조 비누에 대한 친숙함을 주기 전에 어린이집 일과중에 개인비누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넣는다. 비누 안에 상품쪽지를 넣어 반별로 비누를 먼저 없애는 경쟁을 한다. 하원시 세균그림 도장을 찍고 다음날 도장 확인한다.

8조 손을 씻을 때 노래가 나오도록 한다. 세면대 방향으로 화살표를 부착한다. 손 씻기 전후 세균 비교사진 부착한다. 비누안에 상품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

4조 신발장 옆 세면대를 설치한다. 비누 디스펜서를 하이파이브 모양으로 만들어서 누르면 비누가 나오게 한다. 수전에 레이저를 달아서 물색을 다르게 한다. 손 씻는 것을 모션 인식하여 점수가 올라가게하고, 거울대신 디스플레이를 달아서 외계인과 함께 손을 씻는 즐거움을 주도록 한다. 자신이 손 씻는 모습을 녹화하여 보내준다.

7조 등원하면 손에 도장을 찍고 지워질 때까지 손을 씻게 한다. 손을 잘 씻으면 도장을 찍어줘서 아이들간에 경쟁심이 생기도록 한다. 화장실 환경을 재미있게 바꾼다. 수전에서 빛이 나오게 하고 주변 환경을 귀엽게 만든다.

이와 같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자체적으로 투표를 해본



다 같이 모여 경청하는 학생들

결과 1등:2조(14표), 2등:3조(11표), 3등:1, 7조(9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직접 문제를 해결해보니 분위기도 훨씬 달아오르고 뿌듯함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두들아트를 그려보고, 디자인적 사고를 이용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대상으로 하여금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문제를 발견한다면 창의적인 사고로 주변을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한 걸음 걸음을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더 나은 환경이 여러분들 옆에 있을 것입니다.



한줄 다짐
매사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자.

CLAP 청주대 라이프아카데미 2기
윤선아

|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11주차

나를 한발 더 나아가게 하는 힘, 성장마인드셋

초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인 6월, 우리는 현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 청주대 동문이자 미녀와 김치 CEO인 윤지영 대표님과 함께 하는 특강을 대면수업으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특강을 통해 창업에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 경영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과정인지 깨닫고, 대표님의 열정까지 함께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수업으로는 김영배 교수님과 함께 한 '성장 마인드셋' 강연, 토론 시간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경영'을 테마로 한 이번 주 CLAP 시간으로 안내합니다.



동문과 함께하는 창업특강

이번 시간은 청주대학교 동문이자 미녀와 김치 CEO이신 윤지영 대표님이 창업 특강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대학생인 우리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는 목표도 있지만, “나도 창업을 하고 싶다,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 입니다. 창업의 과정을 통해 취업 역량을 더욱 향상시키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운 좋게도 “미녀와 김치” 현직 CEO이신 윤지영 대표님을 통해 창업과 경영에 관한 속속들이 알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 학부 신입생 시절 항공사 또는 금융권 취업을 생각하셨는데, 어떻게 성공한 김치공장 CEO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시절 윤지영 대표는 부모님이 농사지은 채소와 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가 엄청난 인기를 끄는 것을 보고, “나는 김치 파는 사업으로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후 졸업을 하자마자 귀농을 한 후 3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짓고, 김치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각종 직거래 장터를 다니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창업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26살에 “10억원”을 지원하는 지자체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그토록 원하던 CEO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각종 농업, 식품, 창업 교육 수업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더욱 더 발전시키고, 공장 설계, 건축, 농사, 생산, 유통 등 전 과정을 직접 발로 뛰며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 후 3달간 매출은 단 0원이었다고 합니다. 적자가 계속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과 상생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국산 농산물만을 쓰겠다는 결심을 굳혔고, 꾸준히 유지한 결과 휴게소 납품, 온라인 판로 개척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여 결국 성공한 CEO의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질의응답시간에 한 학우는 “대표님께서 저희들에게 창업하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대표님께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무조건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특강을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단 “어떻게 창업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지금 당장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 먼 길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 학우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첫 번째 발걸음 성장, 마인드셋

이어서 우리는 중국경제통상학과 김영배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성장 마인드셋”에 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이란 무엇일까요? 성장 마인드셋은 노력이 재능이나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패배와 실수와 같은 것들이 무가치하고 쓸모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데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고, 더 나아가 서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봅니다. 이와 반대로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자기가 자신의 한계치를 정하고, 자신의 능력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이 경험했던 사례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교수님께서 영어 실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영국 대학원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수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수업내용을 다 녹음해서 매일매일 5시간씩 다시 듣는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교수님께서 대학원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더 나아가 영국에서 교편까지 잡으신 후 귀국 하셨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것이 정말 성장 마인드셋의 좋은 예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저 뿐만 아니라 강의를 들었던 모든 학우 분들도 이러한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친구도 없이, 언어도 통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주어진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역경을 딛고 이겨내는 모습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성장 마인드셋의 이상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고정 마인드셋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며 살아왔나 하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고정 마인드셋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제 한계치를 정해 둔 것은 아니지만, 노력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너무나도 큰 도전과제가 앞에 있었을 때에는 시도를 하지않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책과 강의를 통해서 저 뿐만 아니라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었던 학우들이라면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가까워 지는 시간, 조별활동!

강연이 끝난 후 우리는 조별 활동을 하였습니다. 마인드셋의 사례 중 인상 깊었던 것을 조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새로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조별 활동은 유태인들이 공부할 때 사용했던 1대1 하부르타 방식(1대1토론을 통한 의견 나누기)을 통하여 자신의 성장 마인드셋 사례에 대해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진 것인데, 새로운 방식이라 무척 재미 있었습니다. 활동을 통해 조원들끼리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하다보니, 예전에는 알 수 없었던 모습도 보았고, 좀 더 가까워 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회계학 전공 전소현 학생과의 인터뷰

강의를 듣고 난 후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청주대학교 동문이신 “미녀와 김치” CEO님이 자신의 꿈을 이뤄야겠다고 다짐한 순간에 엄청난 열정과 추진력을 통해 자신의 일을 쟁취해 것이 정말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꿈을 꾸고 미래를 그릴 수 있지만, 하루 아침에 변화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통해 얻은 성장마인드셋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에 대한 열정은 우리 가슴에 뿌리 깊게 남아 있을 것 입니다. 단순히 강의를 듣고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여 질 수 있는 우상이 되거나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졸업 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보기 좋게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줄 다짐 
의리 있고 정직한 사람이 되자!

CLAP 청주대 라이프아카데미 2기
이정재

|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12주차

인간학의 역사 그리고 생명존중과학

쌀쌀한 3월에 만나 어느덧 뜨거운 6월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인간학의 역사와 생명존중과학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더워진 날씨만큼 학우들의 열정도 뜨거웠는데요, 기사를 통해 그 뜨거운 열기를 만나보시죠!



인간학으로서 역사



12주차 오전에는 조승래 교수님과 ‘인간학으로서 역사’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교수님께서 역사는 것이 예전에는 세계 공통으로 학교에서 역사와 철학이 필수였던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 했지만, 그저 암기과목으로 전략해버린 듯한 오늘날의 상황을 아쉬워 하셨습니다. 그만큼 역사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적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교수님께서 평소에 우리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을 인간학의 역사에 접목시켜 생생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소 심도가 깊을 수 있는 주제임에도 학생들이 더욱 집중하며 흥미롭게 수업에 임했습니다.

강연을 통해 우리는 근대화와 그것에 관련하여 나온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대의 핵심은 인간의 이성, 즉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부처 모두 “왜 그럴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고, 그런 질문과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지식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관점에서 이성이 가장 꽃 핀 시기는 근대화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과학, 근대기술 그리고 민주적인 정치제도와 같은 것도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렇게 공부하고 생각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한 결과가 과연 타당한 것이었는가, 즉 우리가 맞닥뜨린 오늘날의 현실이 그간 인간이 추구해 온 목표에 부합하는가 하는 의문을 품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좋은 현실인가, 우리가 추구해 온 코드가 해방의 코드인가 억압의 코드인가, 우리가 이 코드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가.’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의문을 가지고 역사를 통한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완벽에 대한 반론



두 번째 시간은 김영균 교수님과 함께 하는 생명존중과 학에 관한 강연과 토론이었습니다.

CLAP학생들은 책 ‘완벽에 대한 반론’을 미리 읽어 온 뒤, 영화 ‘가타카’를 시청하였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미리 읽어 온 마이클 샌델의 저서에 나오는 한 이야기에 대해 토론해보았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커플이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다. 단,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이를 원했다. 레즈비언 커플인 샤론 듀셰스노와 캔디 매컬로는 청각장애인이었고, 그런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청각장애인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듣지 못하는 것을 치료해야 할 장애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다. 듀셰스노는 “듣지 못하는 것은 그저 삶의 방식일 뿐이다. 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스스로 온전하다고 느끼며, 청각 장애인 공동체의 훌륭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아이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 우리는 귀가 들리지 않아도 진정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청각장애 자녀를 갖기 위해, 5대째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 출신인 정자 기증자를 찾아냈고, 그들의 바람대로 청각장애를 가진 아들을 가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 커플에 대해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사례도 들어봅시다.

하버드 대학 교내신문 <하버드 크림슨>을 포함해 아이비리그 여러 대학의 교내신문에 광고 하나가 실렸다. 불임 부부가 난자 제공자를 찾는 광고였는데 특별한 조건들이 붙어 있었다.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은 키가 175센티미터쯤에 탄탄한 몸매여야 하고 가족병력은 없어야 하며 SAT점수가 1400점 이상이어야 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난자 제공자에게는 5만 달러를 주겠다고 쓰여 있었다.

이 두 사례 모두 부모가 유전자를 선택함으로써 아이를 갖기 원하는데 두 사례가 과연 다른 것인지, 그렇다면 그 윤리적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토론해보았습니다.

생명존중과학,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기준점에 대한 토론



우리 CLAP 2기 학우들도 자신만의 생각과 느낀점을 발표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다른 점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렇게 토론을 통해 본인과 타인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해하며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CLAP 학우분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멋진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과거를 통해 미래를 생각해 보아 하며, 미래 또한 어떠한 윤리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의 문제들을 다루며 CLAP 2기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로 바꿀 수 있는 인재들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한줄 다짐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자세를 갖자.

CLAP 청주대 라이프아카데미 2기
황지윤

|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13주차

미래를 준비하는 바람직한 태도

코로나19로 인해 늦게 대면 수업을 하게 된 우리 CLAP이 어느덧 1학기의 마지막 즈음에 다다랐습니다. 어색하게 대화를 하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이제는 조원들과 정해진 주제에 맞게 도서를 선정하고 그 도서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공유하는 모습들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흘러 우리는 '미래'로 이끌리지만, 스스로가 어떻게 '미래'를 받아들이고 개척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죠. 그럼 이 미래를 맞이하러 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큰 변화의 물길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이번 주 CLAP 학생들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송영일 부장님과 함께 Elective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영일 부장님께서 '지구와 함께 미래로 가는 길, 세계 물 환경 변화와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수자원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송영일 부장님은 “牛生馬死(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소와 말은 물에 빠졌을 때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소는 가만히 떠내려가서 결국 살지만, 말은 물살을 거슬러 가다가 힘이 빠져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흐름과 같은 큰 변화의 물길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국가의 흐름 뿐만 아니라 개인의 흐름도 있는데, 이 흐름에서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며 사회적 흐름에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가 우리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한산대첩과 칼레해전의 예시를 들어 주셨는데, 한산대첩(1592)에서 조선은 일본을 상대로, 그리고 칼레해전(1968)에서 영국은 스페인을 상대로 기존의 방식(칼과 화살, 조총)이 아니라, 더 많은 수의 적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함포'를 사용하여 결국 승리를 얻게 됩니다. 두 예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을 통해 배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



물이 있는 곳에서 문명이 시작하였고, 그 물길이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다목적댐을 만들어서 여름에 내린 빗물을 모아두어 시간적 불균형을 해결하기도 하며, 광역상수도를 만들어서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또 물을 경제·역사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날 수질에 대한 새로운 Paradigm Shift(패러다임 전환)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수질이 맑음의 정도로 표현되었다면,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수질의 개념은 얼마나 더 안전하고 건강한지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공재로 여겨졌던 물을 이제는 경제재로 인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에는 미량오염물질, 미세플라스틱, 조류(Algae) 독소 등이 존재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수 처리는 어떠

한 과정을 거치는 것일까요? 오존 공정을 통해 유기물을 제거하고, 화석탄, 활성탄 흡착의 과정을 지나 다시 4개의 막을 거치게 되면서 박테리아부터 유기물, 금속이온까지 걸려져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행성에서나 지적 생명체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밝혀내고 나서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송영일 부장님께서 지적 생명체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생명체라고 하시면서, CLAP 학생들이 모두 각자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강연을 통해 우리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지혜를 빌리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주제로 한 조별 독서



이번 시간에는 조별로 미리 선정한 ‘환경’ 테마의 책을 읽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전에 CLAP 학생들에게 주어진 정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조별로 ‘환경’을 테마로 한 도서를 선정해야 한다.
2. 환경에 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책이면 된다(정보책이나 문학책 등 문종은 관계 없다).
3. 도서를 미리 읽고, 각 조에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 논의할 만한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도출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오전 강연에서 다루어진 환경 이슈를 상기하며, CLAP 친구들은 각 조에서 선정한 책을 세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조는 파트를 나누어 책을 읽기도 하였고, 어떤 학생은 노트에 필기하며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독서한 뒤,



조별로 읽은 책을 요약해보고 이 책이 상기시킨 오늘날 우리의 문제에 대해 토의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무턱대고 읽기가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읽는 사람의 목표와 책의 성격에 따라 독서의 전략이 달라져야 효과적인 책 읽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담임교수이신 최건아 교수님의 강연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교수님은 ‘무엇을, 어떻게 읽고,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라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와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신뢰감을 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반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드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순간의 사람은 그간 지나온 히스토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히스토리는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어떤 식으로 대해왔는가에 관한 히스토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수님은 우리가 그 경험을 더 확장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건아 교수님께서서는 읽기의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먼저 사실적 읽기는 글에 드러난 정보들을 종합하여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읽기입니다. 쉽게 말해, 글에 드러난 내용을 왜곡없이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적 읽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글의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책 읽기를 생선 한 마리 먹는 것에 비유해 봅시다. 날 것의 생선을 주었을 때, ‘연어니까 회로 먹어야겠다.’ ‘고등어니까 구워야겠다.’와 같이 독자는 텍스트를 어떻게 다룰지 계획해야 합니다. 글에도 구조가 있듯. 생선의 머리가 필요 없다면 잘라서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책을 읽을 때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점 찍듯이 정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성들과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자르고 조리하여 먹고 싶은 부위부터 먹을 수 있듯

이, 독서를 할 때에도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무슨 목적으로 읽을 것인지 정하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추론적 읽기는 글에 나와있는 부분을 토대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예상하는 읽기입니다. 사실적 읽기를 토대로 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적 읽기는 글의 내용과 정보, 관점 등이 올바른지 따져 가면서 읽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독자는 글의 내용을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비춰 보기도 하고,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또 감상적 읽기는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고 내면화 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문학 텍스트(literary text)를 접할 때 감상적 읽기를 하게 되지만, 독자가 설정한 목적에 따라 논설문을 읽으면서도 감상적 읽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읽기는 내용에 대한 이해와 비판을 바탕으로 독자 스스로 새로운 대안을 구상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안,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글에 나타난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새로운 대안을 구상하고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방법들을 두루, 그리고 적절하기 위한 첫 단계로 우리는 책을 읽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요약했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텍스트의 성격에 맞는 읽기 전략을 택하고 표, 다이어그램, 수형도 등 다양한 시각 도식을 활용하며 동료들과 협의하는 ‘과정 중심(process-centered)’ 읽기’를 말씀하시면서, 글의 내용을 구조화하기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경험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번째 단계로 우리는 조에서 선정한 환경 책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상기시켰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책에 나타난 문제일수도 있고, 그것을 넘어선 새로운 문제를 도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어 각 조에서 다룬 책의 내용과 추가 이슈를 전지에 공동의 결과물로 표현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 다른 책을 선정하여 읽었기 때문에, 각 책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동료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 책이 우리에게 상기시킨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지 드러내는 데 주력하며 발표했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다!



4&7조는 산드라 크라우트바슐의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했다’를 읽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플라스틱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조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을 토대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4&7조는 먼저 책에 드러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의 용기를 사용하여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를 줄이는 “용기내” 프로젝트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택배 업체에서는 뽁뽁이 대신 신문지를, 테이프 대신 생분해 테이프를 사용하여 보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방안으로 “플라스틱은 깨끗하지 않다”는 공익 광고를 통해서 넋지와 디자인씽킹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하였습니다.

10조는 고급숙의 ‘우린 일회용이 아니니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 이후, 플라스틱이 왜 문제인지, 우리가 플라스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플라스틱을 기본값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남용은 빨대, 포장재에서 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미세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작가는 “재활용에 기대지 말고 사용 자체를 줄이자”고 말합니다. 10조는 문제 해결의 주체를 개인과 단체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닐 대신 장바구니를, 그리고 개인 용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체의 해결 방안으로는 줍깅(줍다+조깅)과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가 있습니다. 줍깅은 줍다와 조깅이 합쳐진 말로, 조깅을 하다가 길에 쓰레기가 보이면 줍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는 쓰레기 자체를 만들지 말자는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조는 이동학의 ‘쓰레기책’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총 7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챕터에서 “쓰레기는 어디서 오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지, 쓰레기는 누구의 문제인지, 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쓰레기를 어떻게 자원으로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하는 책이었습니다. 책에서는 명확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았지만, 9조는 새로운 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플라스틱을 녹여 난민의 집을 만들어 주기, 플라스틱에 인광물질을 발라 형광등 대신 사용하기, 수요 조사 후 수요 인원에 알맞게 생산하기라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5조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부메랑의 비유를 들어 설명했는데,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화학물질로 인해 나무와 지렁이가 오염되면, 오염된 지렁이를 먹은 새 또한 피해를 입게 되고 그렇게 자연이 오염되면 결국 사람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잠재적 위험성을 자각해야 하며,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에 자연을 통제할 수 없고, 그래서 자연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화학물질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환경 관련 사전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지역 탐방 계획을 세우다



다음 주는 조별 활동 집중 주간으로 지역 사회 탐방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별 지역 탐방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명소를 방문하여 어떻게 알릴 것인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혹은 어떻게 개발 또는 보존할 것인지 아이디어 도출하기”

우리는 조별로 어느 지역의 어느 장소를 탐방할 것인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1조는 테마별로, 역사 탐방, 미술관, 박물관 등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장소를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역사 탐방을 테마로 한다면 용인 민속촌이나 전쟁 기념관을 탐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속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왜 그러한 것인지 찾아보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5조는 운보의 집으로 탐방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내수를 대표하는 미술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과거의 이미지가 퇴색한 것에 대해 왜 그러한 것인지 원인을 찾고 개선점을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9조는 무심천 길을 깨끗하게 만들고, 제2의 한강을 만드는 산업을 계획하였습니다.

10조는 세종 베어트리파크의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에 최건아 교수님께서 탐방 전에 미리 그 장소와 관련된 언론 기사를 찾아보고, 운영 상 침체되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어떨지 조언해 주셨습니다.

6조는 정북동 토성을 선정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으나 접근성이 낮고 역사적 가치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관광객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3조는 정북동 토성의 지역 홍보 또는 밤고개의 개발 방안 탐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4&7조는 명암 저수지와 미동산 수목원을 탐방 장소로 정했습니다. 명암 저수지의 경우 수질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개선점이나 홍보 방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최건아 교수님께서 탐방 전, 관리의 주체는 누구인지, 이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관련 정보는 얼마나 공개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8조는 남석교, 정지용 문학관, 충청북도 문화재 연구원을 탐방 장소로 정했습니다.

11조는 정북동 토성을 탐방 장소로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생각하고, 그 주변의 다른 볼거리를 찾아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지역 탐방 전 계획을 세우고, 회의록 작성 시 유의할 점을 다시금 안내하시며, 무엇보다도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탐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당부하셨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탐방을 마무리하고, 반짝이는 아이디어 도출 결과로 곧 다시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 무엇이 문제인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 고민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며, 한 걸음씩 나아가 CLAP 2기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함께 웃는 우리 지역 만들기

걷기만 해도 땀이 흐르는 7월, 여러분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청주 라이프아카데미에서는 조별 활동 집중 주간을 맞아 지역 탐방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역 탐방을 하며 해당 장소를 개선 또는 개발 그리고 홍보할 방안까지 생각해보기로 했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13주차 수업 때 조별로 탐방할 장소와 탐방 주제를 선정했었습니다. 이후에도 조별로 추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즐거운 탐방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진행하는 팀 활동이라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후문입니다. 그 생생한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함께 봅시다!



1조, 청주 국립 현대 미술관을 가다.



1조는 탐방 장소의 후보가 아주 많았던 조인데요. 긴 회의 끝에 청주 국립 현대 미술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청주 국립 현대 미술관은 청주 내덕동 옛 연초 제 조창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탄생했으며, 과천, 덕수궁, 서울에 이은 네 번째 분관입니다.

1조 조원들은 미술관을 관람하면서 인상 깊었던 작품이나 공간에 대해서 메모를 하거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또 내부 휴게실에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와 작품에 대해 느낀 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미술관을 관람하며 조원들이 공통으로 개선해야 할 방안을 꼽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 부족'이었습니다.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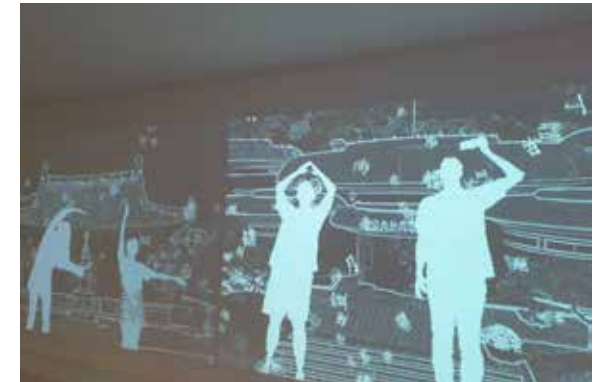
내부에 관한 설명 부족으로 인해 작품 찾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또 작품을 찾았다고 해도 그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작품의 정보를 알 수 없던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우지수 학생은 "현대미술은 그들의 설명에 따라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현대미술관의 부족한 설명에 아쉬움을 느꼈다."라고 해주었네요. 추후 큐레이터의 설명이나 작품 옆에 간단한 설명이나 QR코드를 통해 작품에 대한 정보를 관람자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조의 #운천동 살리기

지역 탐방을 위한 3조만의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청주에서 유명한 곳이 있는 지역, 두 번째는 주변 동네보다 낙후된 지역, 세 번째는 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결과 3조는 운천동 일대를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출발해 세계 문자의 거리, 고인쇄 박물관, 근현대 인쇄 전시관, 윤리단길을 모두 살펴보고 왔는데요. 청주 세계 문자의 거리에서는 여러 나라의 속담이나 글귀가 적힌 비석만 있을 뿐 지도를 보지 않으면 이곳이 세계 문자의 거리인지 알기 어려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보도블록을 세계 문자들로 디자인하여 테마에 맞는 분위기 조성하자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윤리단길



에서는 윤리단길의 테마를 살리려는 노력이 미약하게나마 보였으나 큰 특색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길거리에 생활 쓰레기가 빈번히 발견되거나,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건전한 업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주민들의 생활 쓰레기를 수거할 대형 쓰레기통을 확보해야 하며 테마에 맞는 디자인을 구성하여 윤리단길만의 테마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불건전, 불법 업소 제거를 위해 주민 및 상가와의 협업을 통해 깨끗한 길거리 유지에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박물관, 전시관 등이 휴관인 상태입니다. 3조는 낭비되고 있는 공간을 활용할 방법을 함께 생각해주었습니다. 넓은 주차 공간을 자동차 극장으로 활용하여 이색적인 문화의 공간 창출하는 것인데요. 자연스럽게 청주 예술의 전당이 홍보되며 그 주변 지역 상권까지 살아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5조, 운보 김기창 화백의 집을 방문하다



운보가 어머니와 아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지었다는 운보의 집. 최근 드라마 촬영지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5조가 운보의 집을 다녀왔습니다. 운보 김기창 화백의 예술혼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지만 관광지로서 아쉬운 점들이 있었다고 해요. 비교적 비싸게 느껴진 입장료, 운보의 집 내 동물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미술품 외부 조형물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 접근성 및 교통이 불편한 것 등 여러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5조는 해결방안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입장료를 낮추거나 시설이나 볼거리를 조금 더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 미술품 외부 시설이나 조형물을 잘 관리하는 것, 접근성이 좋지 않으므로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홍보 방법도 함께 제안해 주었습니다. 젊은 층을 겨냥하여 포토존과 같은 장소를 만들고 서포터즈를 두어 SNS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운보의 집이 '청주 시티투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주 시티투어'와 함께 홍보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운보의 집 근처 공방이나 카페 등이 많기 때문에 그 업체들과 협업하여 홍보하는 것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현인섭 학생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보았을 때 라이딩 코스가 좋았음을 느꼈다. 드라이빙 코스를 개발하여 드라이빙 명소로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신진철 학생은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 남녀노소 좋아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또한 내수 지역문화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답사를 통해 CLAP 조원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즐거웠다."라고 의견 남겨주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한 7조의 명암저수지 탐방

7조는 예능 프로그램인 '런닝맨' TV 방영 당시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명암 저수지를 선택했습니다. 동동 떠다니는 쓰레기와 음식물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저수지와 호수공원 특색이 부족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7조 조원들은 '탐방을 통해 직접 걸어보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생각해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지역 탐방에 임했다고 합니다. 직접 걸어본 결과 수질오염, 노후한 안내판, 쓰레기 불법 투기, 부족한 화장실을 추가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7조는 시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명암저수지 산책로, 주변 시설 이용 시 불편한 사항을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7조는 울타리를 만들어 방문객들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이색 요소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명과 가로등 설치를 통한 안전 확보, 수질 개선을 위한 안내판 설치, 활발한 상가의 입점 장려와 방문객 편의를 개선(주차 공간, 화장실, 쓰레기통 등을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8조, 정겨운 중앙공원을 걷다.

8조는 중앙공원을 다녀왔습니다. 8조의 소개에 따르면 중앙공원은 시내 중심지에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주로 어르신들의 휴식처로 쓰인다고 해요. 중앙공원의 특징으로는 청주 문화재 야행, 벼룩시장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시내 중심지에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공원 안에 유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앙공원에 유적이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앙공원에는 1,000년 된 은행나무인 압각수(충북기념물 5), 목조 2층 누각인 병마절도사영문(충북유형문화재 15), 조현전장기적비(충북유형문화재 136), 척화비(충북기념물 23)가 있는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어르신들의 휴식처가 된 중앙공원은 윗놀이, 장기와 같은 민속놀이를 사형성 오락으로 즐기는 장소가 되었고, 노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8조는 다양한 노인 여가·문화·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노인 복지회관, 평생교육시설,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종교단체,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내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을 신축, 보강(포토존, 야외 공연장, 조명시설)하고 민속놀이, 역사체험공간을 제공하여 세대 간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원문화를 조성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공원 중심에 위치한 거목(압각수)의 관리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청주의 상징, 무심천을 다녀온 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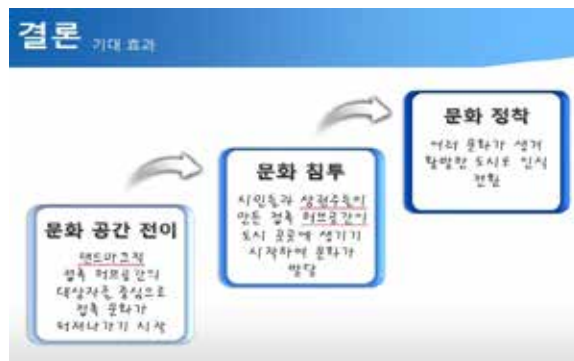


9조는 기존에 알고 있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탐방 장소를 정했습니다. 바로 무심천인데요. 무심천은 청주 시가지를 남북으로 지나고 있는 청주를 대표하는 자연물입니다. 청주 지역 내 문화 공원과 시민들의 쉼터 부족과 아동, 청년, 노인들의 소통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염두에 둔 탐방이 진행되었습니다.

9조는 탐방 전 청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와 졸업작품 전시회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심천 일대를 직접 탐방하며 그 실태를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무심천은 주변 불법 쓰레기 투기, 노후화된 건물, 미관을 해치는 시설물 방치, 이용 불가능한 시설물, 손님의 왕래가 적은 상권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9조는 주변 상가 재개발과 환경 조성, 다양한 문화 시설 개발을 통해 전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청주의 한강으로 불리는 날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지역 탐방 후 개선 방향 제시



고인쇄 박물관과 청주 세계 문자의 거리를 다녀온 1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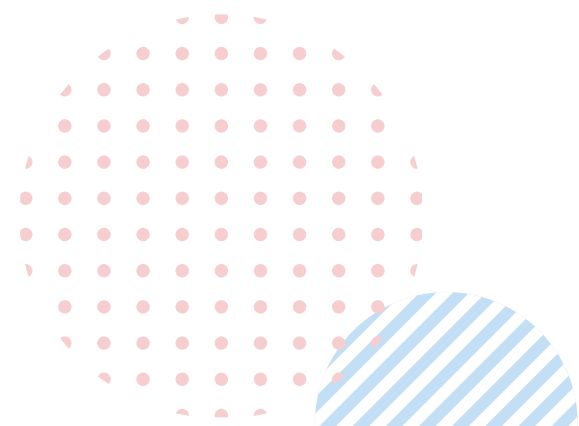
고인쇄 박물관과 청주 세계 문자의 거리를 다녀온 또 다른 팀이 있다고 하네요. 바로 10조입니다! 고인쇄 박물관은 청주 최고의 문화유산 직지를 전시한 장소로, 직지 축제와 직지 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청주시민의 방문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고인쇄 박물관의 역사적, 교육적 의의를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탐방 장소로 결정했다고 해요. 축제와 행사가 없더라도 방문 가치가 있는 장소로 변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청주 세계 문자의 거리는 세계 문자를 전시한 거리로써 교육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2000년도에 기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관련 홍보 활동이 부족한 실정이기에 두 번째



탐방 장소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쇄 박물관의 시설 면에서 전시 콘텐츠 부족과 협소한 전시 공간을, 서비스 측면에서는 홍보와 체험 활동 관리 등이 미흡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세계 문자의 거리의 문제점으로도 역시 시설과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10조 역시 문제에 따른 해결방안도 함께 제안해주었는데요. 직지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해 박물관에 활용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매체 활용법과 그 관리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더하여 세계 문자의 거리를 홍보할 방법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세계 먹거리 축제나 플리마켓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많은 사람이 세계 문자의 거리를 알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더욱더 다양한 조형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쓰며 손 소독과 체온 체크를 하는 번거로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청주라이프아카데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 탐방을 통해 우리 지역의 새로운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개선할 점, 홍보 방안을 찾기 위해 우리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차는 조원들과 회의부터 보고서 작성까지를 함께 하며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던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곧 종강이 다가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서 아쉬움 없는 한 학기 만듭시다!

한줄 다짐

Everyone you meet is fighting a battle you know nothing about. Be kind. Always.

CLAP 청주대 라이프아카데미 2기
우지영

| 2020년 8월 4일 금요일

2020 CLAP DAY

장마가 계속되는 요즘, 2020 CLAP DAY의 날이 밝았습니다. 청주 라이프아카데미 학생들은 청주대학교 석우문화체육관으로 모였는데요. 2020 CLAP DAY에서는 독서 퀴즈, 인증샷 대회와 같은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CLAP DAY를 통해 오랜만에 학우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함께 맛있는 점심 식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박 3일의 캠프는 취소되었지만, 서로 돕는 즐거운 시간을 통해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0 CLAP DAY의 즐거웠던 현장을 함께 볼까요?

두근두근 독서 퀴즈 대회

독서 퀴즈 대회 전 함께 식사하며 어색함을 푸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조원들을 만난지라 모두의 얼굴엔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조원들과 친목 도모의 시간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청주대학교 석우문화체육관에 도착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CLAP DAY를 준비했습니다. 간격을 띄어 마련된 의자에 앉아 교수님과 담당 선생님들의 소개, 그리고 오늘을 위해 시간을 내어준 CLAP 1기의 친구들의 소개 인사를 들은 후 본격적으로 독서 퀴즈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문제를 기다리며 화이트보드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자신만의 화이트보드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그리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자신의 시그니처를 그리며 각자의 개성을 나타냈습니다. 이 화이트보드에 써 내려가는 답이 모두 정답이기를 바랍니다.

독서 퀴즈 대회는 CLAP 활동을 하며 읽은 책과 영화(자기 앞의 생, 이상한 정상 가족, 넋지, 죄와 벌, 마인드 셋, 완벽에 대한 반론, 가타카)에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난이도 별로 다양한 문제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학기에 열심히 읽었던 책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각자의 화이트보드에 답을 써내려갔습니다. 학생들은 점차 긴장감



있는 분위기 속 진지한 태도로 임해주었는데요. 최후의 2인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 깊네요.

퀴즈가 진행될수록 화이트보드를 내려놓아야만 했던 친구들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탈락의 고배를 마신 학생들은 아쉬움이 토로했지만, 그 걱정들은 사치였습니다. 우리에게 패자부활전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2인이 남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패자부활전을 진행했습니다. 라이프아카데미 1기 친구들도

패자부활전에 참가할 수 있었는데요. 패자부활전은 O, X 퀴즈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를 읽고 3초의 짧은 시간 안에 답을 정해 O 편과 X 편에 서야만 했습니다. 패자부활전인 만큼 헷갈리는 문제도 많아 더욱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O, X 편으로 갈지 말지 고민하며 우리는 웃음꽃 피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패자부활전을 통해 많은 학생이 다시 한번 문제를 풀 기회를 가졌습니다.





패자부활전 이후에 2라운드 독서 퀴즈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모두 열정적으로 임해주었습니다.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남은 15명이 10명이 되고 5명이 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후의 5인을 곤혹스럽게 만든 문제가 있기도 했는데요. 책 <이상한 정상 가족>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5명의 학생은 린드그렌의 <말괄량이 삐삐>를 <빨간 머리 앤>과 혼동해 모두 탈락하는 이변이 생겼습니다. 문제 속 빨간 머리라는 힌트가 오히려 학생들을 헷갈리게 만든 요소가 되었습니다. 한편, 기회는 대회장 밖 학생들에게 주어졌는데요. 오세임 학생이 정답을 맞춰 다시 문제를 풀 기회를 얻었습니다.



치열했던 독서 퀴즈 대회 2라운드를 거쳐 CLAP 1기와 2기에서 최후의 2인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CLAP 1기의 이수지, 오성식 학생 그리고 2기의 권민정 학생(1조), 조배성 학생(10조)입니다. 이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볼까요?

-이수지 학생: 안녕하세요, CLAP 1기 국어교육과 17학번 오희진입니다. CLAP 1기를 수료한 후, 그동안 1기 멤버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문득 생각나 다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2기는 어떤 좋은 사람들이 있을지 궁금해하며 2기와도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독서 퀴즈 대회를 계기로 보고 싶었던 1기와 2기를 만나 새로운 추억을 만들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함께 다 같이 모여 밥도 먹고 독서 퀴즈 대회를 하면서 어색한 시간도 잠시, 1기 2기가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어 오랜만에 새로운 감정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1기와 2기를 모두 만날 기회를 만들어 주신 여러 교수님과 행사를 준비해 주신 연구원님과 조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민정 학생: 안녕하세요. CLAP 독서 퀴즈에서 운이 좋게 우승을 하게 된 국어교육과 권민정입니다. 이번 독서 퀴즈를 계기로 지난 학기 클럽에서 다루었던 책들을 다시 읽고 회상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책을 다시 읽는 과정에서 처음 읽었을 때 놓쳤던 부분들이 보여 책에 대한 이해가 보강되었고 특히 고전 중의 고전인 '죄와 벌'은 언젠가 꼭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소설이었는데 독서 퀴즈를 준비하며 완독을 하게 되어 뿌듯했습니다. 책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독서에 대한 실천력이 항상 부족했는데 CLAP을 통해 저의 독서 태도가 개선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독서가 습

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책들을 선정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학기에도 열심히 독서하고 성실하게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성 학생: 안녕하세요. 신문방송학과 조배성입니다. 제가 2등까지 가게 될 줄 몰랐는데요. 그동안 제가 책을 허투루 읽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아주 뿌듯하기도 하고, 보람이 느껴지기도 한 대회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2위 결정전에 저희 조의 민지 학우, 혜송 학우가 사이좋게 남아있었는데, 끝까지 그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어서 더욱더 뜻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지 학생, 오성식 학생, 권민정 학생, 조배성 학생 축하합니다! 오성식 학생은 군대에 있는 관계로 아쉽게도 수상소감을 인터뷰하지 못했습니다. 수상소감을 들어보니 네 학생이 각각 1, 2위를 차지한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다시 한번 독서 퀴즈 대회가 열

린다면 모두 1등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책을 읽어야겠습니다.

오순도순 CLAP 독서 인증샷 대회



두 번째 시간에는 독서 인증샷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사전에 개인별 독서 인증샷, CLAP 활동의 순간을 담은 조별 인증샷을 준비했었는데요. 모두 창의적인 사진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해주셨습니다. 서로의 사진을 감상하며 자신의 컨셉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개인별 독서 인증샷을 위해 자주 방문하는 서점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요즘 폭 빠져있는 책을 들고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독서 인증샷 부문을 통해 서로가 각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독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조별 인증샷 부문에서는 각 조별로 행복했던 순간을 담은 사진들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자신이 속하지 않은 조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조별 활동 인증샷을 보며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문에서 9조가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2학기 때 더욱 활기찬 Team Activity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증샷 대회 덕분에 1학기 때의 활동을 추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20 CLAP DAY 시상식

오늘의 마지막 순서, 대망의 시상식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앞서 다룬 두 대회의 우승자에 대한 시상, 그리고 지난 소통의 날 시상을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던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쇼핑백에 담겨 육안으로는 선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받은 상품들을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수상을 하지 못한 친구들도 수상자들의 행복을 축하해주는데요. 체육관 안은 청주 라이프아카데미 사람들의 웃음과 박수 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CLAP 단체티를 입고 함께 사진을 찍어주었네요. 상품을 하나씩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들처럼 CLAP 1기와 2기는 단체 사진을 찍으며 오늘을 기념했습니다. 한 학기가 흘러가는 사이 서로 친해져 있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만 합니다. 앞으로의 2학기가 더욱 기대되는 오늘이었습니다.

CLAP 1, 2기와 이번 행사를 진행해주신 교수님들과 연구원님, 조교님 등 코로나19라는 힘든 시기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주셨습니다. 2020 CLAP DAY를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CLAP 2기 1학기의 활동을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그동안 읽었던 책들과 활동을 돌이켜 보기도 하며, 마지막 추억을 쌓았습니다. 방학 중 CLAP 1, 2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고 한편으론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가까워질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방학 기간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는 2학기 때 다시 만나요!



한줄 다짐 
매 순간을 즐겁게, 파이팅 넘치게.

CLAP 청주대 라이프아카데미 2기
(좌)오새임, (우)우지영



2020 청주대학교 CLAP 2기 소통의 날



• 일시 :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 장소 : 파티룸



CLAP

2학기

학생기자단

리더의 길, 그 출발점에서 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개인과 공동체가 과거의 길을 지나
현재의 길을 거쳐 미래의 길로 나아가는 항해와 같습니다.
지식을 익히고, 익힌 지식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친구
들과 협력하여 이타심을 기르는 CLAP 수강생의 모습.
그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 2020. 04. 23. ~ 2020. 09. 04.

소담과 함께하는 Book적 Book적 여름 독서캠프

농촌재능나눔 봉사에 참여하기 위해 CLAP 2기 5조, 6조, 10조가 모였습니다. 정확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활동지원사업'으로, 저희 3개 조 유닛은 감사하게도 CLAP에서 쌓은 지식과 함께 나눈 경험을 지역사회에 더 넓게 나눌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팀명을 '소담'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담'은 '작은 이야기'라는 뜻으로, 정확히는 '독서란 크고 어려운 무언가가 아닌, 작은 이야기로 큰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함께하기 위해 모인 소담은 아이들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STAR활동, 릴레이 소설쓰기, 걱정인형 만들기, 삽화 보고 이야기 추론하기, 독서골든벨 등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독서캠프 현장으로 떠나봅시다.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농촌재능나눔, 그 시작



4월 23일, 2020년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활동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5조, 6조, 10조가 모였습니다. CLAP 전용 강의실에서 처음 대면해 어색한 분위기를 풍기던 것도 잠시, 모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건아 교수님께서 사업 계획서를 꾸리기 위해 기존에 어떤 봉사 활동이 전개되어 왔는지, 충청북도의 각 지역에서 현재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봉사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함께 분석해 주셨습니다.

회의를 통해 우리는 지원 분야를 '교육기회 및 문화증진'으로 정하고, 아동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심어줄 수 있는 독서프로그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활동지원사업은 대학생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농촌재능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복지에 이바지하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 조는 충청북도 안에서 독서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아동센터를 찾고, 대상 도서를 선정하면서 독서프로그램을 구체화했습니다. 독서를 어렵게 여기거나, 독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즐거운 독서 경험을 선물하고자 'Book적 Book적 여름 독서캠프'라는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세 조가 함께 할 새로운 팀명도 정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은 작은 이야기라는 뜻의 '소담'으로 독서란 크고 어려운 무언가가 아닌, 작은 이야기로 큰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담은 서류심사, 면접 심사를 거쳐서 최종으로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소담'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함께하는 5조, 6조, 10조의 봉사 활동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이들과의 첫 만남, 긴장되는 첫 수업

8월 14일, 저희 '소담'은 오랜 준비 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옥산 아동센터의 아이들과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날 저희가 준비한 활동은 서로를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 클럽에서도 진행했었던 '두들아트'와 한 달 동안의 활동을 기록할 '개인 파일 만들기'입니다. 아이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처음인 만큼, 우선 서로를 소개하고,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는 시간을 계획한 것인데요. 봉사단원들은 서로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소개한 후, 이날 사회를 맡은 '신진철', '김민기' 학우의 주도로 '두들아트'에 대한 소개와 각자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나, 가지고 있는 꿈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의 활동은 특히,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더욱 긴장되기도 하고, 아직은 많이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수업 중간중간에 시도 때도 없이 질문하는 반면, 몇몇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 느껴졌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노련한 봉사자들의 중재와 '신진철, '김민기' 학우의 매끄러운 진행,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아이들 덕분에 이날의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는데요. 수업의 마지막에는 아이들에게 '아쉬웠던 점'이나 '부족했던 점'을 피드백 받기 위해 수업평가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날의 평가지를 바탕으로 '소담'의 봉사단원들은 부족했던 점을 점점 고쳐나가고, 아이들이 원하는 바를 수업에 추가해 아이들에게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수업을 제공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신진철 학우는 '아이들이 독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봉사를 끝마칠 수 있는 시점에 아이들에게 독서에 대한 좋은 경험과 습관을 남겨줄 수 있는 봉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8월 20일 수업에서는 'STAR'라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STAR'란 'Storytelling, Teaching and Reading'의 약자로서, 책을 읽어보고, 책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생각해 보는 토론형 수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오전 교시에는 제니퍼 헨틀리의 『제니의 다락방』을 읽어보았는데요, 푸른 눈 소녀 제니가 1980년 오월 광주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오후 교시에는 구병모의 『위저드 베이커리』를 읽었는데,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한 소년이 우연히 몸을 피한 뺑집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STAR'는 한 마디로 '책에 대한 생각 나누기'입니다. 진행을 맡은 '김혜송, '윤형균' 학우는 책에서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대해 퀴즈를 만들어 아이들이 답을 직접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했는데요. 이날의 수업 또한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답을 말하기는 했지만, 몇몇 아이들은 반대로 너무 소극적이어서 결국 소수의 인원만 계속 답을 맞히는 상황이 반복되었는데요. 즉흥적으로 주관식 문제를 O/X문제로 바꾸고, 옆에 있던 다른 봉사자들이 아이들에게 힌트를 주며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이날의 수업 또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의 수업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소담의 여정. 하지만 소담의 봉사단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수업을 마친 후 자체적으로 회의시간을 가져, 조금 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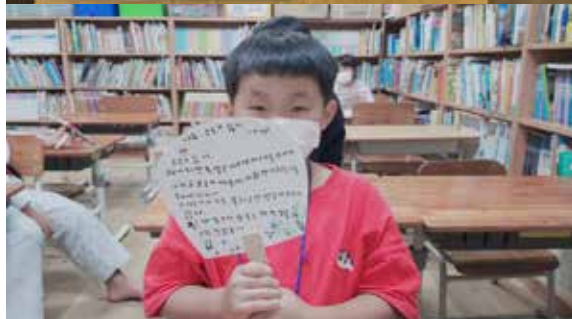


독서캠프가 지루하다는 생각은 버려!

'겁쟁이 빌리'의 주인공 빌리는 걱정이 많은 친구입니다. 비가 오는 것도 걱정, 바람이 부는 것도 걱정, 고양이가 우는 것도 걱정입니다. 우리 옥산 아동센터 친구들의 걱정은 무엇일까요? 소담은 아이들의 걱정을 함께 고민해 줄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실과 나무 집게, 스펀지를 이용해서 아이들마다 걱정을 대신에 해 줄 인형 만들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가진 걱정들을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책에 나오는 인형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독서는 지루하다는 아이들의 편견을 감소시켰습니다. 릴레이 동화 만들기'는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보람찼던 활동입니다. 소담 봉사자들이 설정한 배경을 소개하면, 아이들



이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한편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인공은 '바닷가에 사는 소녀'입니다. 이 주인공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위기에 어떻게 맞서는지는 모두 아이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첫 시작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순서가 맞지 않는 사건들과 결말을 짓기 어려운 동화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담 봉사자들의 도움과 아이들의 창의력이 더해져 세상에 하나뿐인 동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작가가 되어 완성한 동화는 참여한 아이들에게 모두 한 권씩 선물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동화 '모험의 바닷가'는 참여자 모두에게 소중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책을 통해 세상을 만나는 우리들

8월 27일은 여름에 대한 시를 지어서 시화까지 그리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여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여름을 주제로 마인드맵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여름의 날씨, 여름 하면 생각하는 음식과 물건 등을 떠올리며 자신의 여름을 표현했습니다.

시를 지을 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 마인드맵에 썼던 단어 2개 이상 사용하기
2. 제목 짓기
3. 2연 이상으로 작성하기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아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여름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써야 하는 답답함, 여름에 특히 맛있는 아이스크림, 여름 휴가 등 다양한 내용의 시가 나왔습니다. 활동은 아이들이 지은 시를 부채에 적고, 그에 어울리는 시화를 그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8월 28일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도서를 선정하여 역사를 대표하는 위인을 대상으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책을 읽고 인상 깊었던 위인을 선정한 다음, 그 위인에게 편지를 쓰고 위인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아이들은 세종대왕님께 "한글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정환 선생님께 "어린이날을 하루 더 만들어주시지 않아서 슬퍼요." 등 위인의 업적에 관한 자기 생각을 편지에 담아냈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들이 편지를 썼던 위인과 그의 업적을 중심으로 퀴즈를 만들어서 역사 보드게임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어렵고 딱딱한 내용이 될 수 있었던 '역사'를 주제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역사에 대한 흥미를 심어줄 수 있었고, 봉사자도 아이들의 열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옥산 아동센터에 꿈과 추억을 기록하는 방법



소담은 독서캠프 진행뿐 아니라 아동센터 미화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계단 옆 벽면을 정리하고, 꾸미는 작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부착물들을 떼어내고, 새로 만든 작품들을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작품들을 만들까 고민하던 중 한 조원이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작품을 전시하자는 의견을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오래 머물 공간이니,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전시될 작품이라면, 아이들이 마음속에 품은 꿈과 장래희망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버킷리스트’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한 후, 각자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개성 넘치는 꿈들을 소개했습니다. 부모님과 해외여행가기, 나만의 빵집 차리기, 축구선수 손흥민 만나기 등등 다양한 꿈들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장래희망을 묻고 직접 미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만들어준 결과물들을 활용하여 미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소담의 모든 봉사자들은 각자 맡은 종이를 자르고,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채워가며 노력을 쏟았습니다. 3일에 걸친 작업 활동

으로, 소담 봉사자들은 소중한 꿈들이 담긴 작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아이들의 작품, 독서캠프 활동사진, 도서 소개 등 총 8가지의 주제를 가진 미화작품을 완성시켰습니다. 소담은 독서캠프 진행과는 또 다른 어려움을 기꺼이 나누며 서로 협력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10조 고현석 학우는 ‘아이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아쉽다. 하지만 독서캠프의 결과물을 남길 수 있어서 재미와 보람을 느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5조 신진철 학우는 ‘마지막 시간에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을 공유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두 달 동안 함께한 독서캠프는 이제 마무리를 짓지만, 함께 봉사를 진행한 소담은 아이들과 함께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담이 아동센터에 남겨둔 추억으로 아이들의 기억 속에 독서캠프가 오랫동안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5, 6, 10조가 강의실에서 서로 같은 봉사를 진행한다는 사실만을 안 채 마주한 4월 어느 날. 어색한 공기만이 강의실에 맴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5개월 동안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저희 ‘소담’은 그런 것들에 실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수업 전날까지도 모여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부족했던 부분을 고쳐나가면서 아이들 또한 점점 저희에게 마음을 열어주었고, 점차 수업에 긍정적으로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질문한 번 하는 것도 어려워하던 아이들이 마지막에는 선생님들에게 손수 편지를 써주기도 하고, 마지막 헤어짐의 순간에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여 마지막에는 큰 결과로써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이야기’로 시작된 ‘소담(小膽)’의 여정.

7번의 정규수업과 2번의 보충수업을 통해 저희의 여정이 결코 ‘작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월부터 시작된 ‘소담’, 약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고생해준 5조(신진철, 우다현, 윤형균, 현인섭, 차지민), 6조(이윤채, 전소현, 김민기, 차도연, 유승현), 10조(김혜송, 원민지, 고현석, 조배성, 김상현) 학우. 수고하셨습니다!



|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2주차

자기 이해와 자기 관리에 관하여

2학기가 시작되고 CLAP 2기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오전 시간에 우리는 가치성장연구소장 서지은 대표님의 강연을 듣고, 오후에는 도서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를 읽고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기 이해와 관리에 관한 열띤 시간의 마무리로, 마지막 시간에는 자화상을 그려보았는데요. 그럼 즐거웠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시간 관리의 대가 서지은 소장님과 함께

2학기 CLAP 2기는 매주 대면과 비대면 여부를 조사해서 대면이 가능한 학생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고, 2개 강의실에 나누어 모입니다. 강의실 각각이 하나씩의 줌 계정에 연계되어, 학교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화면으로 동료들과 토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주 강의 환경 점검과 대면 출석, 줌 출석 관리에 여념 없는 운영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오전 일렉티브 시간에는 자기 관리를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부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거리두기를 한 후 줌 계정 접속, 일부 학생들은 각자의 장소에서 줌 계정에 접속하였습니다.) 가치성장연구소장이신 서지은 대표님이 강연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1인 기업가이자 창업가인 대표님은,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려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평소 시간 관리, 자기관리에 관심이 많던 저는 신나는 마음으로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에 회사를 퇴사하고 30대에 진로를 다시 찾아 창업을 시작한 대표님은 4년 차 경영인이자, 월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1인 기업가입니다. 저희에게 어떻게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동시에 돈을 벌면서 내 시간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



<둘째 줄 좌측에서 두 번째가 서지은 대표님입니다.>

해 강연해주셨습니다. 현재의 위치와 미래에 희망하는 위치,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시간 관리로 줄이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시간 관리의 목표가 아닌 전략

대표님은 우리에게 어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얼마나 기억하는지에 대해 질문하면서 강연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장 전날 먹은 음식 정도도 얼른 기억해 내기 어려운데, 지난 주, 지난 달의 일은 얼마나 기억하기 어려울까요? 사소한 기억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기억을 하기 어려워요. 의미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기록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년 전부터 꾸준히 기록한 다이어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다이어리에는 2009년에 무엇을 했는지가 빼곡히 적혀있었습니다. 다이어리를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는지, 있었던 사소한 일들까지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훨씬 더 정교한 다이어리로 바뀌었고, 끝내 그것은 콘텐츠화되고 창업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대표님은 덕(덕질=좋아하는 일)과 업(직업)이 일치하는 “덕업일치”를 해냈습니다.

대표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일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아마 우리가 취업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바탕으로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님은 기록 도구의 단일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록 도구가 여러 개인 것보다 하나가 낫다는 뜻인데요. 언제든 펼치고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나의 시간 계획이 시각화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표가 이미 짜여진 고등학생 시절과 달리, 대학생이 되면 주도적으로 시간표를 짜고 각자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즉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 주도권이 나에게 부여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주도적인 기획력, 자기관리는 취업 이후의 삶에서도 지속됩니다. 기억을 포함한 많은 조직에서 과거에는 주어진 정보를 잘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인재상이 요구되었지만 앞으로의 인재상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무언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스스로 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므로 그 기본으로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답이 아닌, 질문을 만들어야 하는 우리

지금은 4차산업혁명입니다.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판례를 내기도 하고, 의사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I가 베스트셀러 편집장, 프로듀서 등이 되며, 그런 작품이 인기를 끄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직시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유일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로봇이 못하는 스스로 생각할 힘, 정답이 아닌 자기 주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기서 시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는 인생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는 인생의 부분마다 조각이기 때문에 인생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도성이 높고 창의적입니다. 창의성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취업과 창업, 면접에서도 중요합니다. 똑같은 대답은 면접관 눈에 들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표님은 목표 세우기에서 참고할 체크리스트 5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1. Specific 구체적인가?
2. Measurable 측정 가능한가?
3. Achievable 달성 가능한가?
4. Relevant 연관성이 있는가?
5. Time-Based 마감일이 있는가?



위 5가지 목표를 참고하여 CLAP 2기 학생들은 목표를 세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의 내용 중 하나라도 빼먹거리는 것이 있으면, 목표를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은 좋은 목표가 되기 어렵습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독서 습관을 만들기”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2020년 “나는 올해 몇 권 이상 읽겠어”라는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한 달 동안 20~30kg 감량할래” 보단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해서 감량할래” 같이 실현 가능한 범위의 내용을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과를 내는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대로 된 방법으로 목표 설정하기.
2. 실행으로 옮기는데 방해되는 부분 해결하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시간이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고민거리나 걱정거리가 많아서 제가 쓰는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 경험이 많았기에, 이 부분이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선 복잡한 머릿속의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점검하여 오늘, 일주일, 장기적 과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에 좀 더 세세하게 일정을 배

정합니다. 만약 “아, 강의 언제 듣지?”라는 고민이 생긴다면, 내일 오전에 강의 듣기, 이런 방법으로 시간을 배치하여 고민을 줄이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CLAP 친구들은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는 방법을 직접 실습해보고 꿈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어떻게 1달, 1년을 보낼지 연/월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의 중요한 이유는 시간의 방향과 꿈의 방향 그리고 삶의 방향이 일치할 때, 우리의 삶이 성장하기 때문이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므로, 피드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밤을 새우고 공부하다가 잠을 자고 시험을 망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드백은 성공한 요인과 실패한 요인들을 적어보며, 우리는 스스로의 순간 순간들을 피드백해보았습니다.



내가 왜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집중이 안 되는지, 물음을 계속 던져서 내가 하기 싫은 이유를 알고 나에게 설득을 시키고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며 팁을 알려주시면서 대표님께서서는 강연을 마치셨습니다. 그 어떤 강연보다 지금, 대학생인 우리에게 필요한 강연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강연을 해주신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조원들과 맛있는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오후 시간에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를 읽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는 오늘날 대학생들이 어떻게 하여 차별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었는지 사회구조적으로 짚어보며, 공감과 연대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책입니다.

본격적으로 책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 우리는 새로 만난 조원들, 그리고 최건아 교수님과 함께 ‘내가 선

망하는 대상(개인 또는 집단)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주변에서 자주 만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상(개인 혹은 집단)이 있는지? 있다면 이들의 어떤 특징/속성에 대해 거부감이 드는지,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차별이나 편견, 고정관념의 장면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지? 그 경험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교수님은 한 설문조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백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신 앞에 인간은 평등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이 ‘그렇다’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만약 내 이웃에 흑인이 이사와도 괜찮은가?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늘어나고, 내 자녀가 흑인과 결혼해도 괜찮은가?에서는 매우 많은 응답자가 부정적 응답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 편견은 이른바 보통의 선량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뿌리 깊게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교수님께서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차별과 편견이 어느 정도로 표현되느냐, 그것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사회적 분위기냐에 따라 공동체의 모습이 달라진다면 우리의 시간 시간을 돌아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JIGSAW 모형을 적용해, 각 조에서 책의 1장부터 4장까지 역할을 나눈 후, 같은 장을 맡은 친구들이 모여 새롭게 조를 구성하여 장의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다시 원래의 조로 돌아온 친구들은 각 장의 메시지를 동료들과 공유하여 도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함께 책의 내용에서 도출할 만한 토의 거리를 찾아보았습니다.

토의 주제를 도출해내는 CLAP 2기

두 강의실과 ZOOM 참여 학생들 사이에서 다양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 기회균등의 방법이 타당한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20대가 왜 서로에 대한 공감에 부족한가?”, “20대가 취업을 위한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자기계발의 균형을 잡는 방법은 무엇인가?”, “학력주의가 왜 문제가 되는가?”, “20명까지 채용되는 상황에서 21번째 사람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는가?”, “기회와 과정의 공정성은 어느 정도로 담보되어야 하는가?” 등 토의 주제를 도출해냈고, 그에 대한 의견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모두 함께 나아가기 위한 이타적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관념적으로는 알더라도 실천하기 쉽지 않음을 말씀하시며, 먼 나중에 실행할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라도 일상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힘든 형편에 어떻게 주위를 돌아보려라는 마음들이 너무 오래 간다면, 결국 작은 단위에서 시작해 조직 전체가 옆자리를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받고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노력에 따른 정당한 결과가 주어지는 사회, 이를 위해 우리가 쌓아나갈 수 있는 작은 실천들부터 다시 새겨보아야겠습니다.

마지막 시간, 자화상 그리기

자화상 그리기 수업은 김경민 연구원님의 주도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자기 이해’라는 이번 주 주제에 걸맞게 마지막 순서로 스스로의 꿈과 모습을 다양한 색채로 표현해보았는데요. Sketchbook이라는 앱을 통해 각자의 얼굴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색과 선을 표현하는 방법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무척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매체 사용법을 익히는 2기 친구들의 표정에서 진지함이 묻어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일을 살 것인가, 이번 주 학습후기는 모두가 한층 더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CLAP 2기는 오랜만에 만나, 더욱 친해진 모습으로 강연을 들으며, 지난 주에 이어 새 학기를 시작한 것을 실감했습니다. 모두 덕과 업이 일치하는 일을 찾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계획을 짜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수업 때 만나요!



|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8주차

혐오가 빚발치는 세상,
극복하는 우리

오늘 우리 CLAP 친구들은 ‘혐오가 빚발치는 세상, 극복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차별과 편견을 주제로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차별과 편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혐오’를 바탕으로 세상의 차가운 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세상이 차가울지라도, 우리는 오늘의 활동을 통해 따뜻한 마음인 배려와 존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차가움에 맞서 싸우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우리 CLAP 친구들의 현장을 지금 바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혐오하는 세상

이번 주 Elective 시간에는 도서 ‘말이 칼이 될 때’의 저자 홍성수 교수님과 함께 세계와 한국 사회의 혐오 문제에 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연 시작에 앞서 우리는 혐오와 차별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혐오(hate)란? 특정 소수자, 개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나 감정 또는 차별하고 배제하는 태도를 말하고

차별(discrimination)이란? 편견과 혐오에 기반하여 실제로 불리한 대우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자료로 혐오의 피라미드를 보여주셨는데요.

피라미드의 순서는 ‘편견 → 혐오 표현 → 차별 → 증오 범죄 → 집단 학살’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편견은 평생 사람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표출되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편견을 밖으로 드러내면 그것은 혐오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혐오 표현은 누군가에겐 불이익이 될 수 있고, 차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집단에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단을 무시하게 되고, 편견을 기반으로 한 폭력을 자행하는 ‘증오 범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해당 구성원 전체에 대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말살인 ‘집단학살(Genocide)’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홍성수 교수님께서서는 혐오의 피라미드를 설명하시며, 하위의 것이 있다면 언젠가는 상위의 범위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심하면 안 되는 상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혐오하는 일은 그 공동체에서 희생양 두 명만 있으면 가능할 만큼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명이 긍정적인 가치로 뭉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감염병과 전쟁으로 난리가 났는데 그중 2명이 위험하고, 그 2명만 없으면 나머지가 살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18명은 뚝뚝 뭉쳐서 그 2명을 배제할 것이다. 단 둘만 희생시키면 쉽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찾기 어려울 때 희생양을 찾는 방법은 집단을 뭉치게 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 예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들 수 있습니다. 히틀

러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하며 독일의 국민들을 선동하였고,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추방하는 등의 공격적인 정책을 취하다가 10년이 채 안 되어 유대인 학살이라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자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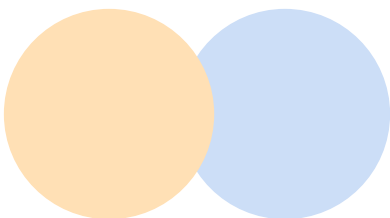
이렇듯 혐오 표현은 자칫 잘못하면 인격 살인을 넘어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만큼 우리가 꼭 경계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가진 편견들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혐오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을 느꼈고, 이것이 더 커지면 차별이나 증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난 속에서의 혐오, 극복을 위한 우리의 과제

교수님께서서는 한국 사회에서 혐오가 확산된 이유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재난 속에서의 혐오 문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 한국 사회에서 혐오가 확산된 이유

- 1. 경제적 배경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시대가 도래하여 청년 실업의 증가와 개인의 지위가 하락
- 2. 미디어 환경 : 한국 특유의 공격적인 인터넷 문화와 SNS 게시글을 통한 주목 경쟁, 가짜뉴스와 음모론의 확대
- 3. 정치적 맥락 : 혐오에 맞설 수 있는 건강한 민주정치 세력의 약세 / 포퓰리즘 정치의 등장 (cf. 동성애, 이주자, 난민 문제와 한국 정치)





개인의 지위가 취약해지고, 이로 인한 허탈감, 시기, 불만, 분노, 우울, 낮은 자존감,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짓밟게 되었으며, 그러한 행위를 통해 우월감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미디어의 급진적인 발달로 자극적인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무분별하게 표현한다는 것, 포퓰리즘 정책들로 인하여 혐오와 차별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재난 속에서의 혐오

또한 우리는 편견과 혐오는 일상적인 시기에도 존재하지만, 위기 상황 속에서 더 폭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경제적 위기

- 독일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유대인 혐오 (홀로코스트)
- 유럽 복지국가 위기와 이주자 혐오
- 한국의 일베 현상

재난

-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 동일본대지진 이후 혐한 시위 증가

질병

- 스페인 독감과 외국인 혐오
- 코로나19와 아시안, 중국인 혐오



우리는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한국 사회에서의 혐오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기독교 혐오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사태 및 교회발 집단감염 이후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출입 금지!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교회를 향한 혐오와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천만 신도를 가진 기독교마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혐오는 다수자 집단도 단번에 소수자로 만들 수 있고, 혐오의 대상에는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대구 혐오입니다. 신천지에 대한 혐오가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면서 ‘TK 코로나’, ‘대구 코로나’ 등 대구 시민 전체를 코로나 확진자로 취급하거나 대구, 경북지역에 코로나 확산 책임을 돌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와 같은 지역 혐오에 대해 권영

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보다 더 힘든 것은 대구 시민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 배제’이다. 제발 ‘혐오’를 멈춰 달라.”고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성 소수자 혐오입니다.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나 재난국면에서 더욱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태원 발 감염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역시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성소수자긴급대책본부의 요구에 따라 사생활이 보장되는 안전한 검사를 보장하고, 성 소수자들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한 덕분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배제와 혐오는 감염병과 싸우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혐오와 차별 중지야말로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확고한 입장을 밝히



면서 코로나의 확산과 무분별한 혐오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앞선 여러 사례를 통해서 혐오와 차별은 방역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더욱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고 포용과 연대를 지향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아진다면 코로나라는 위기는 오히려 우리 사회가 더욱 평등하고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강연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 누구나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차별과 혐오 표현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포용과 연대의 가치가 널리 퍼져나가 서로를 더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을 읽고 들었던 의문점에 대해 교수님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LAP 홍보 영상 기획 회의

우리는 27일에 진행되는 '퀴즈 풀이와 함께하는 ZOOM 전시회'에 쓰일 홍보 영상에 대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CLAP 전시회에서는 각 팀이 제작한 홍보 영상 공개와 더불어 CLAP에 대한 소개와 퀴즈 풀이가 이루어지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3기 모집을 위한 CLAP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CLAP에 몸담은 친구들이 지난 일 년 간의 활동 내역을 바탕으로 CLAP에 대해 알리는 것을 목표로, 친구들은 뜻이 맞는 다른 조와 연합 회의를 하기도 하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영상 컨셉을 정하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각 조들의 영상 제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육십세조들

- 조: 5조, 6조, 10조 연합
- 주제: CLAP에서 진행한 활동 대한 2인 5조 문답
- 내용: 10명의 CLAP 학우가 2명씩 조를 만들어 CLAP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CLAP에서 기억에 남는 수업, 이런 사람에게 CLAP을 추천한다, 조별 프로젝트 수행 후기 공유)

걸어온 길, 걸어갈 길

- 조: 7조, 9조 연합
- 주제: CLAP의 다양한 활동 소개 (팀프로젝트: 지역탐방, 멘토링, CLAP 파티 등)
- 내용: CLAP의 다양한 활동들을 조원들이 앵커가 되어 상황극을 하며 쉽고 재밌게 설명해준다.

CLAP 어스

- 조: 2조, 8조 연합
- 주제: 지금까지 했던 CLAP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한다.
- 내용: 어몽어스 게임을 하면서 재미있고 쉽게 CLAP의 활동을 표현한다.

114조! CLAP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조: 4조, 11조 연합
- 주제: CLAP 활동을 소개하고 느낀 점을 말한다.
- 내용: 학생들이 114에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CLAP을 문의하는 형식

슬기로운 클럽 생활

- 조: 1조, 3조 연합
- 주제: 인터뷰를 통해 CLAP 2기의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 내용: C.L.A.P 각 스펠링에 의미를 부여하여 인터뷰 형식으로 1년 동안의 CLAP 활동에 대해 느낀 점을 전달



이렇듯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 CLAP에 참여하게 될 3기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CLAP 친구들이 재밌고 알찬 영상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CLAP 홍보 영상 기획 회의를 진행하며, 각 조가 서로의 재미있는 의견들을 공유하니 강의실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CLAP 활동을 하는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이루었던 일들과 앞으로 또 새롭게 펼쳐질 일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27일에 있을 CLAP 전시회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응원하며 기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LAP 친구들! 언제나 파이팅!!!"



|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3주차

젯빛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함께였음을, 또 사랑했음을

무더운 여름과 매서운 태풍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평온한 날씨가 청주 라이프아카데미(CLAP) 3주 차 강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긴 소매 옷을 입은 친구들이 부쩍 많아진 것을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선하고 평온한 날씨와는 달리 우리 CLAP 친구들은 열기로 가득 찬 모습을 보이며 오늘 강의실을 달아오르게 만들었는데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주 라이프아카데미, 그 뜨거운 열정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Break your stereotype!



이번 주 Elective 시간에는 낮에는 엄마, 밤에는 DJ칸디로 활동 중이신 '노는 엄마'이자 가방 브랜드 '플레이 올데이'의 대표이신 이민선 대표님께서 코로나 19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학교로 찾아와 주셔서 더욱 생생한 현장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선 대표님께서 'Break your stereotype, 고정관념을 깨다!'라는 제목으로 고정관념과 편견, 차별에 대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stereotype이란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집단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가지는 비교적 고정된 견해와 사고를 말하여, 고정관념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대표님께서 8가지의 틀, 직접 겪으셨던 차별(인종, '외국물 먹은 애', 다른 전공, 서울대, 출신, 성, 엄마, 노랑머리 등)의 에피소드를 들려주셨습니다.

>> 성, 엄마, 노랑머리 차별

대표님께서 금용권, 삼성에서의 근무 시절을 치열하게 보내던 중 갑상선 암으로 모든 일을 멈추게 되었는데요. 병을 극복한 이후 친동생의 권유로 DJ학원을 통해서 온전한 자기 자신을 찾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금용권에서 그러했듯 DJ세계 역시 남성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이때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DJ를?"이라며 놀라워하는 시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낸다'라는 열정과 끈기로 연습을 하셨고!! 현재 DJ KANDE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답니다. 또한, 대표님은 트레이드마크인 노랑 머리를 하고 계신데 머리칼 색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때문에 외모와 시선을 많이 의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대표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에게 보다 더 당당해졌다고 하네요! 우리는 다들 틀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대학교 차별

때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타이틀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민선 대표님께서 케이블 채널 온스타일이 2009년에 방영한 'The Editors'에 출연을 하셨는데, 서울대학교라는 타이틀로 인해 서바이벌 최종 경선에서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발 미션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헤쳐 나간 대표님이 최종 우승자로서의 승리를 확신한 그 순간에, 방송에서 보여주는 성공신화의 바탕에는 서울대학교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역차별이 있었던 것인데요. 대학교라는 배경이 개인의 노력을 무시하는 차별(학벌주의)이 될 수도 있고 역차별(성공신화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강연의 마무리 시간에 우리는 10년 후의 나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대표님은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행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는 어떤 것도 괜찮다고 격려해주셨습니다. 신진철 학생은 공기업에 취직한 후에 사진을 찍는 취미를 살려 해외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찍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윤형균 학생은 독서실에 '복합운송주선인'의 꿈을 적어 놓았고, 적어도 3년 안에 꿈을 이룰 것이라는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Man Box - 남자다움에 갇힌 남자들

오후 강의는 최건아 담임 교수님과 함께 벨 훅스(Bell Hooks)의 저서 '남자다움이 만드는 이상한 거리감' 도서를 가지고 가부장제 아래 친구들이 겪은 성차별 사례들을 공유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젠더 갈등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흑인인권운동가이자 교육자인 벨 훅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펼치기에 앞서, 우리는 도서 'Man Box'의 저자 Tony Porter의 'A call to a men(남자들에게 고함)' 강연 동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약 11분가량의 강연 영상은 가부장제가 남성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완전하게 요약해놓은 훌륭한 영상이었습니다.



남자다움이 만드는 이상한 거리감



영상을 시청한 후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조별로 1장부터 11장 중 한 개의 장을 선택하여 내용과 개념을 아래 세 가지의 요건에 맞추어 4개 이하의 문장으로 요약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개념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다른 장과는 차별되는 내용으로 어떤 것이 소개되었는지

우리는 각 조원들과 함께 도서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개념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개념이 없다면 문장을 개념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과 사례를 교류하였고, 앞서 제시된 조건들을 생각하며 문장을 써 내려간 뒤 간략하게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동 시기부터 남성성이 어떤 형태로 내면화되는지, 미디어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어떻게 다루는지 논의하며, 우리는 이웃 조에서 기록한 각 장의 내용을 더욱 심화하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내 삶에서 젠더의 문제



이어서 우리는 성, 젠더와 관련하여 삶에서 겪은 불편함이나 차별을 겪은 일에 대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의 세 가지 내용을 고려하여 좀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사례 발표는 제가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부장제 가정에서 겪었던 편견과 차별에 대하여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하였는데요. 저의 진심이 담긴 발표를 들은 친구들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



했는데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또 관심이 생겨서 책을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아야겠다.”,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어서 용기가 났다. 덕분에 발표할 수 있었다.”라고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저의 마음이 친구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세상의 관점을 다시 생각해보는 변화의 힘을 심어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제가 행복의 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 중 윤선아 학생의 사례는 무거운 짐을 드는 일과 같은 힘겨운 일들을 남성들이 당연하단 듯이 도맡아 했을 때 이미 체계화가 된 집단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고민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교수님께서,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받는 선행과 그들이 베푸는 호의와 애정, 사랑은 무척 행복한 것이지만! 사회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가부장제 아래에서 겪었던 차별을, 어쩌면 가슴 아플지도 모르는 속 안의 말들을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나누었습니다. 다만, 오늘 배운 사랑과 존중을 통해 모두의 눈빛들은 별처럼 반짝였고, 잔잔한 해수면처럼 담담한 모습으로 발표를 이어나갔습니다. 친구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접해보면서 가부장제에 대해 잘 몰랐던 친구들은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고, 가부장제로 인해 힘겨웠던 친구들은 오늘 활동을 통해서 치유 받는 등 CLAP의 의의인 지덕체의 전인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난 순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분명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 나뉘어 있지만, 최건아 교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모두가 서로 사랑을 하고 행복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젠더를 넘어 인간 존엄의 문제

우리는 가부장제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를 선정하고, 이를 토론의 '논제' 형태로 만들어 본 후에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심 끝에 제시한 논제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1) 초등학생용 교과서에서 가정 내에 성 역할을 구분하는 삽화, 텍스트를 삭제한다.
- 2) 전국 중등학교 교복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폐지한다. (치마와 바지의 선택권)
- 3) 언론기사에서 직군 앞의 성별 표기를 일제히 삭제한다
- 4) 초등학교 취학 이후 부모가 아닌 자녀 스스로 성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네 가지 논제 중에서 우리는 4번! '초등학교 취학 이후 부모가 아닌 자녀 스스로 성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를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A반 B반이 각각 찬성, 반대 팀으로 나누어졌고, 주제가 정해지자마자 친구들은 입론과 반론 등 의견들을 종합하기 위해 웅기증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던 저는 열정적인 친구들 틈에서 땀이 날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찬성 팀의 "아버지의 성을 따르며 가부장제 사회를 만들어왔지만, 자신이 성을 직접 선택함으로써 가부장제 사회를 탈피한다."라는 입론을 시작으로 "성씨를 자녀가 스스로 정한다고 해서 근본적인가부장제문제를 해결할수 있는가?"에대한반대팀의 입장이오고갔습니다."아버지의 성을 따라대를 잇기위해아들이 필요하다는 근본적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남아선호사상이 악화되고 그에 따라 남성이 집안을 책임지는 고정관념을 깰수 있다."라는찬성팀의의견이나왔고,반대팀은 "사회적, 정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수 있다."라고반론하며 치열한공방이이어졌습니다.

친구들의패기가넘치는토론이끝난후,비대면참석(ZOOM)한친구들이배심원의입장에서토론의승리팀을지목하고그이유를설명하였습니다. '찬성' 팀이 4대 2로 승리하였으나, '현세대의문제를다음세대에게떠넘기는발상이교육적이지못하다'라는반대팀의견도홀륭했다는논평이있었습니다. 어떤상황에서든지온진심을다해참여하는CLAP친구들의멋있는모습을볼수있는하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 해왔고,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모르게 말이지요. 오늘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성장했습니다.마음 한편에사랑과존중이자리를잡았거든요.앞으로우리는행복해질일만남았습니다.CLAP에참여하는모든친구들,선생님들,더나아가세상모든사람들이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저는가을임에도봄처럼따뜻하고포근했던오늘의우리를영원히기억할것입니다.행복을표현하는방법을지금이라도당장실천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사랑합니다."



| 2020년10월 23일 금요일 6주차

우리가 당신들의 오늘을, 내일을 사랑하겠습니다.

선선하고 평온하다고 느껴졌던 지난 주와는 달리 CLAP 6주차의 날씨는 가을이 무색하게 무척이나 추웠습니다.

추위를 몰고 오는 칼바람은 오늘의 도서 '말이 칼이 될 때'를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으며 싱그러운 느낌을 안겨다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뿔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를 느끼게도 합니다. 말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될 수 있듯이 말입니다. 강의실로 향할 때에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팔짱을 끼고 웅크린 채 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CLAP 친구들의 따뜻한 온정과 웃음이 가득한 강의실에 도착한 후에는 당당히 가슴을 펴고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매서운 추위도 잊게 만드는 따뜻함을 가진 CLAP 친구들과의 6주차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우리는 모두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이번주 Elective 시간은 사단법인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와 함께하였습니다. 엄선희 변호사님께서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고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며, 교육부장관의 꿈을 갖고 교육학에 진학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료조직에 머물기보다 더 자유롭게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일이 하고 싶어 아동, 청소년, 교육 영역의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하셨고, 현재 사단법인 '두루'에서 아동, 청소년, 교육 인권의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약 2만 명의 변호사 중 공익변호사는 단 100여명에 불과한 숫자이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시는 변호사님의 모습에서 그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권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인권에 대한 의미를 배워보았습니다.

인권이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보편적인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 제30조 :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수 없다.

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권에 대해 배운 후 사례를 통해 인권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수용자의 인권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왜



현대판 연좌제의 피해자는 어쩌서 아동이어야 했는가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하느냐'고 되묻곤 합니다. 저 역시도 범죄자의 인권을 굳이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서는 수용자가 교도소 안에서 혈액 검사를 받다가 HIV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용자의 인권을 무시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번도 떠올려보지 못한 상황을 깊게 생각해 보고 본질을 들여다보니 그제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인권에 대해서만큼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주체의 권리를 온전히 지켜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보호 대립은 인권을 가로막는 장벽과도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용자 자녀의 인권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거나, 뉴스에 보도가 되어도 무심히 지나쳤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씨리얼' 유튜브 채널과 사단법인 '두루'가 함께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동영상에서 '두루'의 변호사님들께서 지원하고 있는 수용자 자녀의 여러 이야기를 읽어 편지로 구성하였고, 편지는 아이들의 신상보호를 위해 또래의 친구들이 대신 읽어주었습니다.

“전과자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동네에는 소문이 다 났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엄마가 보고 싶지만 만날 수 없다.”

매년 부모의 수감을 마주하는 아동의 수는 5만 4천명이며 아이들은 위와 같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낙인이 새겨져 상처받은 아이들은 스티그마(Stigma) 효과가 나타나 비행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합니다.

남겨진 수용자 자녀들은 부모님을 그리워하거나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는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고, 어떤 아



이들은 그들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을 홀로 걸어 나갑니다. 영상 속의 또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아무도 이 아이들을 도와주지 않는 걸까?”하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혼자가 된 아이들을 지원해줄 제도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범죄자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낙인이 찍혀 차별과 편견 속에서 상처받는 아이들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현실에 가슴이 답답하고 어려웠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을 타파하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자식'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등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소외된 아동을 위한 복지제도가 단단하게 자리잡기 위해 우리 모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자가 법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신과 자녀가 존재 자체를 부정 당하는 등 인권 침해의 당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말이 칼이 될 때



오후 강의는 안지영 교수님과 함께 '말이 칼이 될 때', '노란 들판의 꿈' 도서를 이용하여 혐오표현과 장애인 차별을 비롯한 다양한 차별에 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공유하며 어떻게 하면 평등한 세상이 만들어질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먼저 혐오표현에 대해 배우고 그와 관련된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혐오표현이란?

“소수자에 대한 편견 또는 차별을 확산시키거나 조장하는 행위 또는 어떤 개인, 집단에 대해 그들이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멸시, 모욕, 위협하거나 그들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혐오표현은 왜 문제일까요?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문제이며, 특히! 소수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란이 '자유확대'가 아닌 '자유축소'로 귀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을 제약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이득을 보는 쪽은 '강자'이며, 서로 할 말을 못하는 상황은 현상 유지를 바라는 강자의 입장에서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수자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소수자에게는 더 많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부당한 현실을 바꿀 수 있고 그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소수자들을 짓밟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모호하고 어렵기 때문에 문제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대생들은 매일 스마트폰으로 예쁜 옷이나 구경한다. 그래서 불행한 거다.”

”우선 필자는 동성애에 매우 비판적이다.”

”동남아시아 출신들은 게으르다.”

”정신병자들은 집에 있어야.”

위의 문장들은 모두 사회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내뱉은 혐오표현들입니다. 이런 문장들은 자칫부정적인 방향으로 과도한 일반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표현들입니다.

또한 선량한 차별주의자(혹은 아주 사소한 / 사소하지 않은 차별)라는 이름으로 차별과 편견이 담긴 말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한국인이 다되었네요.”

(비장애인에게) “희망을 가지세요.”

(개신교인이 동성애자들에게) “당신들을 사랑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결정장애가 심해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가벼운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칼이 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조용히 스며들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기생충, “혐오표현”



그 다음에 우리는 ‘노키즈존’과 ‘블랙페이스’에 대한 사례를 통해 차별과 편견에 대한 생각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보았습니다.

사례1. 노키즈존, 맘충

노키즈존과 함께 등장한 혐오표현은 ‘맘충’이라는 단어입니다. ‘맘충’은 엄마와 벌레의 합성어로서 몰상식한 일부 어머니들의 모습을 비하하는 말인데요. 포털사이트 육아커뮤니티에서조차도 흔하게 ‘맘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이며, 노키즈존에 73%가 찬성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일부의 잘못을 ‘맘충’이라는 혐오표현을 사용하면서 개인의 이기심을 어머니 전체의 일로 일반화시키는 오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위축되는 상황은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키즈존과 맘충이라는 혐오표현을 통해서 아이와 어머니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체감할 수 있었고, 선부른 혐오표현의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크게 작용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키즈존에 대한 우리 CLAP 친구들의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들어보았습니다.

찬성의 주장을 펼친 학생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들로 인해서 다른 손님들이 다치거나 피해를 볼 수 있고, 아이들이 음식물을 바닥이나 책상에 많이 흘리고 기저귀와 같은 그 외의 쓰레기들로 인해 서비스직 노동자들이 힘들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이들과 관련된 부당한 요구들로 진땀을 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반대를 주장한 친구들 중 김혜송학생은 “아이들이 말썽을 일으키는 문제는 아이의 문제가 아닌 부모의 문제이며, 이것은 아동권리의 침해를 유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노키즈존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보였었는데 혜송 친구의 발표를 듣고 아동복지와 권리에 대해 배웠음에도 이런 차별적인 생각을 한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노키즈존과 같은 차별 사례를 통해 특정집단을 지정하여 배제하는 것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례2. 블랙페이스

블랙페이스란? ‘흑인 분장을 위해 얼굴을 까맣게 칠하는 행위’로 이로 인해 발생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1) 샘 오취리는 무엇 때문에 불쾌하다고 생각했을까?
- 2) 한국사회에도 인종차별이 있을까? 있다면/없다면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사례는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은 대부분 비슷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블랙페이스’의 유래는 흑인 인권이 정말 낮았던 19세기에 흑



인이 아닌 배우가 흑인 흉내를 내기 위하여 얼굴을 검게 칠하고, 흑인의 두터운 입술을 강조하기 위해 입술을 과장하여 표현하는 무대분장으로 흑인을 비하하고 조롱하기 위해 행해졌습니다.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서는 금기시되는 행위로써 샘 오취리가 불쾌하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차이로 잘 몰랐던 문제들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 CLAP 친구들은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로 다문화가정의 이야기를 다루어보았습니다.

11조 친구들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차별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어른들은 차별에 대한 말을 가려서 하는 편이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7조 친구들은 다문화 가정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멘토링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알게 된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은 편견 없이 잘 지내는 반면에 아이들의 부모님이 오히려 다른 학부모님들에게 ‘말이 어눌하고 잘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대화나 회의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별과 편견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혐오표현에 대한 사례들을 접해보고 깊게 생각해봄으로써 이 사회에 자리잡은 혐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혐오표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관심에 의한 혐오표현 자체를 없애도록 교육과정의 개입이 필요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게도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 장애인. “우리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



장애아동의 교육을 위해, 특수학교의 설립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만 했던 장애아 부모들.

21세기의 세상은 눈이 부시도록 발전했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인권은 정반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해야만 그제서야 이슈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우리나라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2018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수는 258만 5,876명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장애인을 자주 마주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장애인이라서 대학 원서 접

수를 거부당하고, 장애인이라서 버스 승차를 거부당하고, 지하철 전동차 고장으로 인한 추락사고 등 이동권과 교육받을 권리라는 기본적인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환경은 장애인을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도서 '노란 들판의 꿈'을 같이 읽으며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동권 문제)

지하철 역에서 이동을 위해 리프트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고장이 났다.공익요원을 불렀다.세 명 중 한 명이 나를 업고 다른 두 명이 전동휠체어를 옮겼다.이 과정을 보던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몸도 불편한 아가씨를 데리고 나오면 어떡해요?왜 저 귀한 아들들을 이렇게 고생시켜요?”

2002년 시청역 선로 점거 농성)

TV에서 '불쌍한' 장애인을 보며 혀를 차고 지갑을 열던 사람들이 눈 앞에서 자신의 길을 막고 그 길을 함께 가자는 장애인들에게 '병신'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장애인이 버스를 탈 수 없는 것은 '합법'이었고,버스를 막은 장애인의 행위는 '불법'이었다.

탈시설운동)

시설이 아무리 민주화되어도 그들이 원했던 자유로운 삶은 아니었다.

“당신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을 통제하고,어디로 가는지 혼자 결정하지 못해요.평생 거기서 살래요?”

장애인등급제 폐지운동)

신체적 기능의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반인권적 제도.이때 받은 등급은 활동보조서비스와 직결되며 장애 1등급을 받지 못하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송국현 씨는 활동보조인이 없어 화재를 피하지 못했고,결국 별이 되었다.

장애인들은 말했습니다. “숨쉬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이 차별이었다.”

보이지 않던 존재를 '보이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우리는 장애인 차별사례를접해 봄으로써 무관심이 얼마나 잔인하게 소수자들을 짓밟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장애인의 인권을 끌어올림으로써 그들이 동등하고 당당하게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결국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우리는 마지막 활동으로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이 평등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CLAP 친구들은 각 조의 친구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후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다현 학생은 ‘장애우’라는 단어 속에 은연 중에 장애를 동정하고 보호받아야만 하는 개념이 속해 있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구 값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경제적 보조와 더불어 2~3시간 가량을 기다려야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이동수단이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성원 학생은 사고를 당하여 두 다리를 못 썼을 때 장애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는 장애를 놀림거리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장애인이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이니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김준표 학생은 정신병원과 정신병 및 정신장애 등의 명칭이 자칫하면 사회적 낙인으로 새겨질 수 있으므로 장애인들은 물론이고 비장애인들에게도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제가 하였는데요. 저 역시도 준표 친구와 마찬가지로 인식의 변화가 장애인 인권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겪었던 사례를 말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왜 가장 먼저 필요한지 호소하듯 말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상버스에 휠체어를 타고 계신 할머니를 도와드렸는데 이 때 교통이 지체된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님과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욕설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를 내려드린 후 버스가 그냥 출발해버려서 저는 정류장에 덩그러니 버려졌었는데, 그 당시 선행을 베풀고 있었음에도 저와 할머니를 멸시하는 행위들로 인해서 모멸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내가 괜히 밖으로 나와서 학생한테 폐를 끼쳤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고개를 꼭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고 멸시받는 현실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동등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인식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숙제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혐오표현과 차별, 편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위험성과 파괴적인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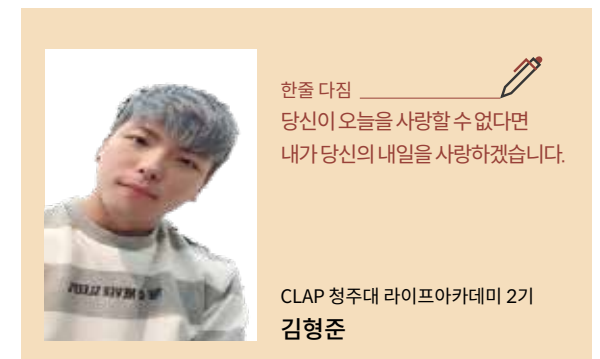
“모든 혐오를 멈추고 그들을 온전히 바라볼 것. 그리고 사랑할 것.”

우리의 목소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세상을 향해 소리친다면 그것은 함성이 될 것이고, 세상을 바꿀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그들과 발걸음을 맞춰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밟고 올라선 것이 아니라, 그저 조금 앞서 나가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더 이상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함께 손을 잡고 세상을 걸어 나갈 때입니다.

“당신들의 오늘을, 내일을,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2020년 04월 23일 목요일~9월 27일 일요일

사랑은 꽃처럼 천천히 피어나는 것

여러분, 지난 9월 게시된 CLAP 내 소그룹 '소담'의 기획 기사 기억하시나요? CLAP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지역 및 이웃과 함께 하는 다양한 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요. 오늘 저희 7, 9조는 'CLAP (L)READ'의 팀명으로, 소담에 이어 두 번째 번외 기사로 인사드리며, CLAP의 뜨거웠던 봉사 시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포함된 7조는 CLAP의 이름으로 처음 만난 이후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다양한 공모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중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0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 지원사업'에 도전하기로 하였는데, 프로젝트 구성 중에 9조 친구들과 뜻이 맞는 것을 알고서 적극 협동을 요청하였고, 7조와 9조가 함께 멘토링 봉사활동 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협동이 확정되었을 때, 멘토링 사업 공모전의 신청 마감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멘토링 최종 선발을 목표로 팀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밤낮없이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노력과 소망이 이루어져 멘토링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었고, 멘토링 봉사활동으로 시작된 우리 이야기의 첫 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별을 따라 걷는 우리는 CLAP (L)READ !!



우리는 CLAP (L)READ라는 팀명으로 멘토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읽다'의 Read와 '이끌다'의 Lead를 합친 것으로 독서를 통해서 멘토와 멘티 모두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창의적인 나로 거듭나며, 함께 도우며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됨으로써 세상을 읽고 세상을 이끌고자 하는 팀명에서 드러나듯이 독서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멘토링 활동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책이 알려주는 삶의 길을 '별'로 삼고 이 '별'을 멘토와 멘티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토로 멘토링 프로그램명을 '별을 따라 걷는 아이'로 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최종선발에 안주하지 않고, 첫 멘토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프로그램을 다시 점검하고 활동 계획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우리는 최건아 담임교수님께 슈퍼비전을 받음으로써 주차별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멘티의 연령대에 고려해야 할 것, 주의사항들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활동 목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소통, 배려, 평등, 존중, 자존감 다섯 가지의 주제로 멘토링을 진행하여 멘티들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제에 따른 도서를 사용하여, 멘티들이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인물 상상화 및 독서 연극을 통해 흥미로운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려하여 근본적인 독서 동기를 생성한다.
- 독서토론을 진행하여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교류함으로써 당당하고 비전 있는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탐구하고, 발표를 통해 발설의 기쁨을 느끼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행복한 삶의 기반을 다지고, 친근한 독서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짧은 기간임에도 우리 CLAP (L)READ 팀원들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처럼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프로그램을 구상했기 때문에 잘 해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멘티들에게 향했습니다.

아직은 초봄의 서먹함으로



우리는 첫 멘토링이라는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아이들에게 향했습니다. 어색함이 가득한 우리의 첫 만남은 마치 초봄의 날씨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색함 속에서도 우리 CLAP 친구들은 미소를 잃지 않고 아이들과 래포 형성을 위해, 함께 그림을 그리며 특별한 자기소개를 진행하였습니다.

- 달콤한 아이스크림 형준 선생님
- 곰돌이 인형 은솔 선생님
- 강충강충 산토끼 소현 선생님



멘토들이 먼저 독특하고 재미있게 자기소개를 하며 흥미를 유발하였더니, 멘티들도 이에 반응하여 느릿느릿 거북이, 꺾꽂이 우는 오리, 용감한 슈퍼맨 등 다양한 소재로 자기소개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나의 장점과 꿈 등을 잘 써볼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하여 아이들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의 활동에 쓰일 칭찬 스티커북과 개인 파일을 알록달록하게 꾸며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화지를 아름답게 꾸민 아이들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의 마지막 활동은 '멘토와 함께 보드게임!'이었습니다. 멘토와 멘티의 관계 발전을 위해 우리는 보드게임을 진행하였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ICE BREAKING'을 하였습니다! 재미있는 보드게임을 함께 하면서 현장은 웃음꽃이 가득 피었고, 우리는 멘티들과 금세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음에도 멘토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나의 소중한 마음을 찾아서



만남을 거듭할수록 아이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서로에게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했고, 아이들은 내심 어떤 수업을 진행할지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독서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아이들이 멘토 선생님처럼 명찰을 갖고 싶다고 하여 명찰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자신의 개성이 듬뿍 담긴 명찰은 아이들을 한껏 더 빛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본격적인 독서 활동은 아이들이 책 읽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멘티와 동일한 나이의 초등학교생이 쓴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라는 시집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시의 테마가 사계절로 나누어져 있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절을 골라 팀을 이루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집을 읽고 인상 깊었던 시 하나를 골라 시에 나타난 사물이나 배경, 계절을 주제로 마인드맵을 그려보았고, 내용 속의 인물 상상화를 그려보면서 아이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애착 사물을 찾아보고, 그 물건이 내게 소중하고 특별한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낸 그림과 글을 말로써 표현하고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작은 발표회도 열어보았는데요. 수줍다고 말하던 아이들이 발표를 너무나 잘해주어 기특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적극적으로 잘 따라와 주는 아이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시를 읽을 때, 문제를 풀 듯 일일이 따져가며 읽는 습관을 지닌 우리가 아이들의 풍부하고 순수한 상상력이 들어간 해석을 보니 시의 온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마치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듯하였습니다. 우리의 독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며 활동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어가는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소통하는 꿈나무들

오늘부터 문자 파업! / 소통 씨는 잘 통해!

우리는 위의 두 가지 도서를 이용하여 독서토론을 하였습니다. 각 멘토들이 준비한 독서 활동 학습지를 통하여 스마트폰으로 인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책의 주인공이 되어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사용 시간표를 만들거나 친구들과 함께 노는 시간을 정해 놓고 만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이 독서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 멘토들이 책 속의 주인공 역할을 맡아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독서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채팅으로만 대화하는 '말 없는 소통 놀이'를 해보았습니다. 채팅 초기에는 재미있고 다양한 이모티콘을 쓰며 대화가 오고 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멘티들은 왁자지껄하고 너무 빠른 채팅 속도로 인해서 대화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후 아이들의 소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채팅으로 대화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느낄 수 없어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부모님께 걱정을 끼쳤다. 관계의 벽을 느끼게 만든 것을 반성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은 대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봄으로써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맛있는 샌드위치 만들기!

모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아이들이 주어진 재료로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재료를 서로 나누어 쓰고, 순서를 기다리는 등 상대방을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오늘의 활동을 직접 실천함으로써 아이들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함께 분리수거를 하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과 어질러 놓은 것을 치우도록 하여 깔끔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해, 우리는 사랑해

평등 씨는 공평해! / 존중 씨는 따뜻해!

단체 독서 프로그램 전에 아이들은 담당 멘토들과 함께 위의 두 도서에 대한 선행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 평등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한 이유를 안다.
- 마음을 표현하는 상황을 알고, 마음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 불평등 사례를 교류하고, 해결방안을 생각해본다.

위의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왜(Why)?'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왜 친구가 기분이 나빴을까?", "왜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 등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평등과 존중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과 다른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활동은 활발한 아이들을 위하여 다양한 움직임이 요구되는 게임과 퀴즈 형식의 프로그램을 꾸렸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몸으로 말해요!' 게임으로 우리가 배운 존중과 배려, 지금까지 읽었던 도서의 이름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이들이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각자의 방식으로 제시된 문제들을 말없이 몸짓으로만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스꽝스럽기도 하여 활동실이 웃음으로 가득 차기도 하였고, 정말 창의적으로 잘 표현하여 감탄을 자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알쏭달쏭 초성 퀴즈!' 게임이었습니다. 제시된 초성 [ㅈㅈ] '존중'을 시작으로 아이들이 학습한 내용, 책 이름, 주인공, 그 외에도 나라 이름이나 모음 초성 퀴즈를 통해서 학습 내용을 되돌아보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학년과 고학년이 섞여 있어 걱정이 되었지만 고학년 멘티들이 먼저 나서서 저학년 멘티들에게 모르는 단어들을 설명해주고, 기다려주는 등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멘토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게임 형식의 프로그램은 멘토와 멘티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였고, 정말 흥미로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행복한 공동체가 된 우리

슈퍼비전: 따뜻함이 가득한 최건아 교수님의 슈퍼 파워☆



우리는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면서 틈틈이 슈퍼비전도 받았습니다. 최건아 담임 교수님께서서는 멘토링이 처음인 저희를 위해 독서와 글쓰기 교육에 대한 따뜻하고 감동적인 가르침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더 이해하고, 아이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저희를 믿고 격려해 주시며, 복잡한 미로에 빠졌을 때마다 출구를 찾아 주신 교수님 덕분에 우리의 멘토링 활동은 더욱 더 밝고 따뜻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두근두근 신나는 물놀이!

(*본 장소를 대여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만이 물놀이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일출입관리대장 및 자가 문진표를 작성하여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멘토들과 물놀이를 하는 것을 소망하여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냈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도 참여해 주셨고, 여러 가지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물놀이 시작에 앞서 준비운동을 하였고, 안전한 프로그램을 위해 규칙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작정 노는 것이 아니라 협동심을 기르고, 배려와 존중의 학습을 이어가기 위해서 팀 게임도 이루어졌습니다. 팀별로 원 만들기, 선생님 데려오기, 제시한 사물 가져오기 등을 통해서 멘토와 멘티가 하나가 된 순간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시간을 내어 함께 참여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씀과 함께 항상 고맙고 응원한다는 학부모님들의 격려 말씀에 우리들은 더욱 용기를 갖고 끝까지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멘토, 멘티, 학부모님들과 함께 웃음이 가득한 여름휴가를 보내면서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 있어도 서로를 느낄 수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점화되어 우리는 비대면 멘토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다고 말하며 아쉬움을 표현해 안타까웠지만, 아이들의 마음에 부응하여 더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비대면 멘토링은 자존감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생소한 '자존감'이라는 말에 대해 알아보았고, 멘티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아탐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꿈을 직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10년, 20년 뒤의 내 모습을 상상해보거나 어떤 일을 하고, 이루고 싶은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소극적이고, 의견을 잘 표현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멘토링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당당한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가지게 된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Hi, Bye. 웃으며 안녕

어느덧 시간이 흘러 종결식이 다가왔습니다. 약 4개월 가량 매주 일요일을 아이들과 함께하였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니 그동안에 정이 참 많이 들은 것 같았습니다. 시원섭섭한 분위기가 우리를 감쌌지만, 우리는 그간 서로에게 배운 것이 많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기에 웃는 얼굴로 활기차게 종결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한 후에, 우리들이 만든 활동사진과 멘토, 멘티의 사진이 담긴 패널에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과 응원을 편지로 써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의 소감과 감사 인사는 우리들의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동원육영재단의 지원을 받아 아이들에게 도서를 선물로 제공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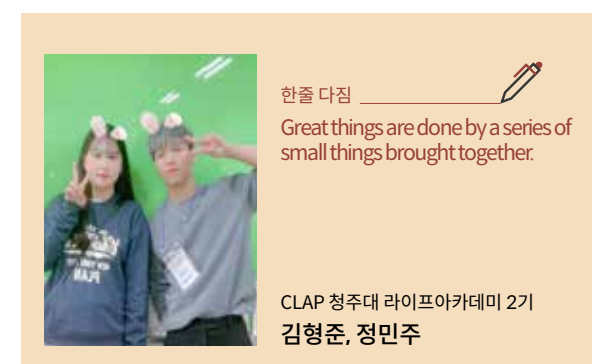
하여 도서 전달식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도서를 받고는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던 독서에 흥미를 느끼고 읽고 싶은 도서를 직접 찾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멘토링의 효과를 볼 수 있었고, 멘티들로 하여금 우리는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찍은 후에 담당 멘토와 멘티가 포옹을 하였고, 웃으면서 안녕을 말했습니다. 모든 아이들과 한 명 한 명 인사를 나눈 후에 아이들이 탑승한 차량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작별했습니다. 차량 지원을 해주신 학부모님께서 후일담으로 집으로 향하는 길에 아이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끌벅적했던 일요일이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조용한 일요일은 적적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잊지 못할 따뜻한 추억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며 마무리된 행복한 멘토링의 마지막 장은 더할 나위 없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는 서로 따뜻한 마음을 공유하며 성장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한 모습에서 멘토들이 준비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이제는 서로 장난도 치고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며 서서히 멘티들이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멘토들은 멘티들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멘토들 역시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뜻깊고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준 멘티들, 학부모님들, 우리 CLAP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추억들을 기억하고,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서로가 멋지게 성장해 나가기를...



| 2020년 11월 13일

숫자로 이해하는 세상! 회계의 신들과 함께 한 재무제표 이해의 주간

날씨가 많이 쌀쌀 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CLAP 친구들은 열정 가득한 마음으로 얼굴에 한가득 미소를 담고 강의실에 모였습니다. 이번 주 ELECTIVE 시간은 <숫자로 보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회계학과 최정미 교수님과 함께 기업의 재무제표 보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MODULE 시간에는 EY한영 장진원 부회장과 함께 사회적 자본과 재무제표에 더욱 심화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부회장의 역서 <친구의 친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 맺음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신비한 숫자 세상 속으로 빠져볼까요?



숫자로 보는 세상



이번 주 오전 시간에는 회계학과 최정미 교수님과 함께 회계의 개념과 원리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재무제표의 기능과 특성을 알아보았습니다.

Accounting is the language of business
(기업의 언어)!

회계란 법인들이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도구를 뜻합니다. 최정미 교수님께서 회계의 뜻을 알려주시며 드라마 <미생>의 영상을 짧게 보여주셨습니다. 영상의 한 대화에서 재무팀장은 직원에게 “회계는 공부하고 있나?”라고 물어봅니다.

교수님은 이 대사와 관련된 한 일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모 대학에서 강의를 하실 때, 한 기악과 여학생이 경영회계 전공 수업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커다란 악기 케이스를 들고 온 학생을 보고 교수님은 궁금한 마음에 기악과 학생이 왜 경영수업을 수강하느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자신의 학과에는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신은 연주자로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다가 악단의 행정업무를 맡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경영을 부전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교수님은 이 학생처럼 자신을 알고 자신의 앞길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다고 하시며, 회계는 어느 조직에서나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요소임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정미 교수님은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이란, 재무제표에서 정보들을 추출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이 분석의 주요 대상으로는 차별화와 원가우위전략 등을 분석하는 사업전략분석, 회계분석, 기업의 자금 조달이나 상환에 포커스를 맞추는 재무분석, 애널리스트가 하는 예측분석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근래에는 재무제표 분석 시 기업가치를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살펴본다고 합니다. 기업가치 평가 이론의 발전이 재무제표 분석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재무제표를 이용한 기업분석의 틀에는 재무 실적의 분석, 미래 예측과 가치 평가, 분석 대상 기업의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를 의사결정 상황에서도 활용하는데 그 예시에는 증권분석, M&A분석, 경영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최정미 교수님은 강연을 마치며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회계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정미 교수님과 질문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산업공학과 이경섭 학생은 주식을 할 때 이슈에 따라 상한, 하한이 오르내리는데 재무제표를 병행해서 파악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최정미 교수님은 그런 상황일 때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며 세세한 항목을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무와 인생

이어 장진원 부회장과 CLAP 친구들은 사회적 자본 그리고 재무와 인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사회적 자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능력이란 실력과 관계력이 더해지는 것인데, 실력은 본인이 가진 역량이고 능력이란 자기 개인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남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관계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력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적 자산, 사회적 자산 등 무형자산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회장은 무형자산의 중요성에 더불어 직접 번역하신 <친구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부회장은 리더십 공부 모임에 참여했다가 우연한 기회에 출판사 대표를 만나셨습니다. 출판사 대표님은 그 자리에서의 대화 후 출판을 제안하셨고, 이러한 기회로 부회장은 리더십 도서에 이름을 올리게 되신 것이지요. 부회장은 또 다른 우연한 기회로 후배인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을 만나 번역 기회를 얻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도서 <친구의 친구>를 출판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관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인연을 구름에 비유하시며 어느 구름이 비를 내려줄지 모르니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을 구름에 비유하여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재무와 인생 파트에서는 오전 수업에 배웠던 재무제표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산과 비용의 개념을 이해해보았는데, 두 개념은 공통점으로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 지출하는 것이며, 수익을 내주는 기간에 따라 1년 이상이면 자산, 미만이면 비용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비유동자산인 무형자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부회장님은 재무제표에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특히 강조해 주셨는데 그 종류에는 조직적 자산, 관계적 자산, 인적 자산이 있다고 합니다.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무형자산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며 무형자산이 결국 리더십 역량, 문제해결능력으로 변화하여 유형자산으로 탈바꿈된다는 점, 자산이 커짐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자유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오늘 장진원 부회장님의 강연을 들으며 부회장님이 강조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는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깨닫고 힘껏 키워나가야겠습니다.

장진원 부회장님과 함께하는 Q&A시간 그리고 깜짝 선물

광고홍보학과 나재원 학생은 장진원 부회장님이 지금의 자리까지 오시면서 스스로 가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유지해 오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었습니다. 이에 장진원 부회장님은 겸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며 인사를 잘 하는 것이 기업의 인사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사람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인문학부 김다솔 학생은 <친구의 친구> 책을 보면 미국에 대한 예시가 많이 나오는데 미국은 인맥과 로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지만, 한국은 이것을 좋지 않게 보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장진원 부회장님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그 방법에는 상대방과 연관이 있는 이벤트가 있을 때 그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영학과 김혜송 학생은 진로 설계에 대한 질문을 해주었습니다. 장진원 부회장님이 진로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강점이라고 하셨는데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와 선택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를 때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장진원 부회장님은 내면의 소리가 부르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선택과 진로를 굉장히 많이 연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진원 부회장님은 사전 질문을 해준 학생들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부회장님이 번역하고 옮기신 <친구의 친구>라는 책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좋은 말씀을 직접 적어 주시며 나눠 주셨습니다.

저도 그 책을 받은 학생 중 한 명인데요. 부회장님이 써준 글귀를 마음속에 품고 멋진 사람이 되어 먼 훗날 부회장님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구름이 되고 싶습니다

CLAP 친구들의 뜻깊은 소감

강연이 끝난 후, 우리 CLAP 친구들의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중어중문학과 강원용 학생은 “이번 주차 주제인 숫자로 이해하는 세상의 오전 강연을 맡아 주신 청주대학교 회계학과 최정미 교수님께서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회계에 관해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도 재밌고 유익한 강연이었습니다. 오후 강연은 EY한영 부회장님이 맡아 주셨는데 재무와 인생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무에 빚대어 강연해 주셨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의 삶이 유형자산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무형자산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과, <친구와 친구>라는 도서에서 나온 것처럼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실력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력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간과하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알려 주셔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회계학과 전소현 학생은 “회계학과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회계학과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고, 타과생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문 과목을 CLAP 친구들과 함께 공유했다는 것에 뜻깊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계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며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 볼 기회가 없었는데 장진원 부회장님을 통해 회계 현장을 한층 더 깊게 알아갈 수 있었고, 마냥 재미있지만은 않은 회계 용어인 자산, 부채, 자본 등을 우리의 인생과 관련지어 설명해 주신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이 강연을 통해 저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이 회계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졌다면, 지식을 함께 공유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소감을 말씀해 주신 우리 CLAP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실제로 회계 과목을 수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는 어렵다’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CLAP 강연자님들의 쉽고 간단한 설명을 들으며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친구의 친구> 도서의 주요 내용인, 장진원 부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관계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중요성을 가지고 관계력을 키워나가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CLAP 강의를 수강하며 많은 배움을 얻어 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의 저에게 비를 내려 줄 구름, 또 제가 누군가를 위해 비를 내려 줄 수 있는 구름이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10주차

‘정의’란 무엇인가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간 날씨는 마치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CLAP 친구들이 처음 만났던 봄에서부터 마지막 계절인 겨울을 맞이하기까지 시간이 빠르게 흘렀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한 시간 동안 따뜻한 우정을 나누는 우리 CLAP 친구들과 추위를 극복하며, 10주차의 현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오전 강의는 청주대학교 산업공학과 주종혁 교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4차 산업 혁명이 더욱 앞당겨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먼저 유통 형태별 소매판매 비중 그래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우리는 2006년 / 2012년 / 2017년의 유통 형태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유통형태별 소매판매 비중



전통 시장의 경우 2006년 27.20%의 비중을 차지하며 약 1조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지만, 2017년에는 10%의 비중으로 감소하고, 매출은 약 1천억 원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유통의 경우에는 2006년 18%에서 2017년 28.5%로 성장했는데요.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4차 산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현재에는 약 5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의 예로 ‘마켓컬리’에 대하여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켓컬리는 새로운 유통망을 가진 21세기의 온라인 마켓으로 2017년에 약 465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19년에는 약 4,289억 원, 그리고 올해에는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켓컬리의 빠른 성장세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서서히 바뀌고 있던 유통구조가 얼마나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유통구조가 온라인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서비스업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2005년과 2016년을 비교해보면 서비스업종사자 비율은 65.7%에서 70.6%로 증가한 반면,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59.4%에서 59%로 60%를 넘기지 못한 채 오히려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서비스업이 부가가치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5.4%로 OECD 평균 15.9%보다 약 10%가 높은 편이지만 노동생산성이 \$4.9/h로 OECD

평균 \$7.7/h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부가가치 서비스업(도소매, 유통, 숙박 등 자영업)이 코로나 사태와 유통구조의 변화 같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여 서비스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 경기 변동의 문제가 아닌 산업구조변화의 문제
-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가속화
- 과거 방식의 대책으로는 해결 불가

위와 같은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상, 극복하는 우리!!



교수님께서서는 4차 산업의 불가피성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4차 산업의 불가피성

1. 인구의 증가와 감소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
2. 자유시장자본주의의 한계
 - 독과점 심화 : 규모의 불경제 작동 X (플랫폼 경제의 한계 비용 제로)

- 보호무역주의 회귀 (미중 무역분쟁)

- 양극화 및 고용 문제

3. 제조/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대비 소비능력 부족

4. 일자리 문제 (AI가 못하는 분야, 로봇이 더 비싼 경우)

5. 중국,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 (미국, 유럽 중심주의 붕괴)

교수님께서서는 인구가 늘거나 줄어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한계비용 제로라는 자본주의의 동력이 사라지는 문제, 대기업들의 너무나도 많은 생산량에 비해 소비가 되지 않는 경우, AI가 하지 못하는 분야나 로봇보다 사람의 고용 비용이 더 저렴한 경우 등 저부가가치의 예를 말씀하시며 현재의 문제점을 꼬집어 주셨습니다.

재택근무: Untact

변화의 첫 번째는 재택근무(Untact)입니다. 재택근무로 인하여 수직적인 기업 문화가 붕괴되고, 세대 간 적응 능력의 차이로 젊은 세대가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개인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함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워라벨(Work-Life Balance)', 즉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져 더욱 윤택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강의

두 번째 변화는 온라인 강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오프라인 강의가 아닌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강의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등, 성의 없는 수업에 대하여 학생들의 '강의 내용' 평가와 비판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강의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져도 강의 내용에 대한 비판은 어려웠지만, 이제는 모든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배움 권리를 주장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So, What should I do?



교수님께서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오늘 배운 새로운 혁명들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변화의 가속에 따른 새로운 기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의 탈피가 필요하고, 이러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는 능력과 그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판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현명한 자는 본 것을 믿고, 어리석은 자는 들은 것을 믿는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이를 통해 고정관념, 편견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서는 “인내심이 그 일을 하는 첫 번째 노동이라면, 그것은 노동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직업이 아니라 좋아하는 분야와 꿈을 찾을 수 있도록 CLAP 친구들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오후 시간에는 교양학부 김영균 교수님과 함께 도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이용해 정의에 대한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시작에 앞서 교수님께서서는 '정의란 무엇인가?'란 질문을 통하여 '정의'의 기본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고찰을 끌어내셨습니다.

이때 정의에 대한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나재원 학생은 조직의 이해관계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진철 학생은 다수가 납득하여 동의하는 것이 정의이며 옳으나, 옳지 않으나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교수님께서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진철 친구의 의견이 상대주의적 입장이며 반대의 입장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이 있다고 철학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x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이 소크라테스의 물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도서의 저자 마이크 샌델 교수는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공리주의 (최대다수 최대행복)

‘정의’의 형태



- 자유지상주의 (천부인권, 개인의 자유 강조)

- 미덕과 공동체주의 (미덕과 공동선 강조)

위의 세 가지 사상에 대한 ‘정의’를 친구들의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적용하여 이해하고, 책을 세세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공리나 행복의 극대화, 즉 최대다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말로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으나 우리는 다음의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 테러범을 막기 위해 죄가 없는 그의 딸을 고문할 수 있는가?

- 다수를 구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이 정당한가? (트롤리 딜레마)

- 바다에 표류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한 명을 살해하고 식인하는 행위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공리주의의 약점은 이렇듯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소수의 인권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수님께서서는

다수결의 원리는 민주주의 이론이며 그것이 꼭 도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공리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무고한 희생이 과연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를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는 사람의 목숨이 그 가치와 절대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CLAP 친구들은 지난 배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다수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 누구나 언제든지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리주의에 대한 경계가 잘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유지상주의

자유지상주의는 천부인권, 즉 개인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장기 거래나 안락사에 대한 문제까지도 말이지요. 자유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 사례는 장기 거래와 대리모 문제입니다.

아동이 자신의 장기를 판매한다고 하는 것과 불임부부를 위한 대리모의 문제가 ‘정말 자신의 선택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의 강요인가? 이것이 과연 자유가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진정한 자유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지상주의자면서도 이에 비판적인 두 학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칸트는 욕구의 종속된 행위는 욕구의 노예이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자율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즉 정언명령에 따른 행동이 도덕적이고, 자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칸트의 정의는 사회계약을 기초로 한 정의론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롤스는 미국의 철학자이며 그는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말하며 평등과 복지를 주장하였는데요.



그가 주장한 '절차적 정의론'은 천부인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타고난 재능은 평등하지 않으므로, 평등한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유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기회의 균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평등은 기회의 균등을 위해 약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존 롤스는 '무지의 장막'을 통해 완벽한 계약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무지의 장막을 쓰고 인종, 직업, 성별, 연령, 학력을 모른 채 부당한 질문을 받는다면 과연 사람들은 그 부당함을 수긍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지의 장막 속에서 위험에 처한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한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할 것이라며, 복지도 마찬가지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듯 무지의 장막은 자연적이거나 사회적인 요인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추가적으로 '내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최선의 구조를 꿈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덕과 공동체주의

미덕과 공동체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의 목적론적 정의는 '목적에 따른 삶이 정의다. 사람들이 소중히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합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핵심인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플루트의 분배 사례입니다.

'1억 원의 플루트가 기능과 목적을 다 하기 위해서는 부를 과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 연주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즉, 분배는 올바른 가치 판단의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목적은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하는 것이며,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려면 구성원 개개인의 미덕을 강조하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정치에 참여하여 공동체를 보살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행동을 계속할 때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고도 하였는데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다만 그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동체의 합의라는 객관적인 결정으로 인해 '노예에 적합한 사람이 있다.'는 노예제 옹호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하니, 여러분 모두 참고하여 더 많은 윤리, 철학 도서들을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CLAP 친구들은 세 가지의 정의를 복합적으로 생각해보면서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견들을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극복하는 새로운 대처 방법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다양한 정의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CLAP 친구들이 자신만의 정의를 마음에 구축하여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11주차

윤세웅 대표님과 함께 한 라이프아카데미와 AI 이야기 + 퀴즈대회를 겸한 zoom 전시회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심상찮은 뉴스를 접하고, 우리는 2학기 처음으로 전면 zoom으로 클랩데이를 맞이하였습니다. 청주대학교 차천수 총장님께서도 시시각각 코로나 확진 추이를 지켜보며 CLAP의 대면 여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고 계신데요. 아쉽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본부와 라이프아카데미 사업단은 이번 주차를 zoom으로 더욱 알차게 진행해보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는 먼저 'AI, 지금 우리는'이라는 주제로 자양라이프아카데미의 교장이신 WWF KOREA(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윤세웅 대표님께서 강연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후에는 그동안 CLAP에서 활동한 여러 소그룹들의 성과를 영상으로 소개하고, CLAP이 아닌 많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퀴즈대회를 진행하는 전시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CLAP 친구들의 열정 가득했던 현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AI와 비즈니스 모델

Elective 시간에는 윤세웅 대표님께서 AI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대표님께서 강연의 첫머리에 소개해주신 자양의 히스토리를 통해, 송어가 아닌 연어처럼 바다를 개척해 나가는 정신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대표님은 AI 이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는 AI가 우리 삶을 견인하는 세상이 올 것이며, 그에 대비한 각 기업의 실험은 오늘날에도 쉼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항상 머릿속으로 AI에 대해 생각해야 함을 강조하셨고, 같은 학부에 있는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다른 전공의 친구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AI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AI와 관련된 학과가 아니더라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공대학생)가 하는 일, 즉 유의미한 패턴을 찾는 작업을 잘 활용하여 우리는 이 과정에서 형성된 인사이트에 주목하고 이를 비즈니스에 접목하며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낼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전공으로 이루어진 CLAP 친구들이 모두 제각각의 영역에서 AI를 멋지게 활용하는 융합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어 대표님께서 AI가 이미 과거에 나온 개념인데, 과거에는 왜 주목받지 못했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1900년대에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지만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여 실행되지 못했고, 2000년도부터 컴퓨팅 파워가 발전하였지만 정제된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충분한 기술 구현이 되지 못했는데,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데이터 폭증에 따라 AI에 가장 필요한 3박자인 1. 알고리즘 2. 컴퓨팅파워 3. 정제된 데이터라는 조건이 부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비로소 폭발적으로 AI에 대한 Apply가 시작된 것이지요.

과거 인터넷은 1996년~2000년 초반 첫 번째 혁신을 만들었고, 2010년도 모바일을 통한 두 번째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현재 AI는 어떤 혁신을 이뤄낼 것인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혁명의 기회, 혁명의 요소를 그냥 흘려보내듯 지켜보지 말고, 산업이 전환점을 맞이할 때 커다란 기회가 생기는 것을 낚아챌 수 있도록 항상 공부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대표님께서 이를 위해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모여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AI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해 주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참치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신 사례와 김의 이물질 필터링 기술을 실제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한 사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참치 포획을 어느 시기에 해야 더 경제적인지 파악할 수 있기에 더 효율적으로 어선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비용 절감 효과와 수익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에 묻은 이물질을 필터링하는 작업은 AI 기술을 도입하면서 99.9%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생산 속도는 2배 향상되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만 산업에서 이 같은 급속한 기술의 발전은 기존 노동 환경에서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기술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구축을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님을 통해 동기 부여를 얻고 새로운 것에 항상 도전하려고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라이프아카데미 학생들도 CLAP 활동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받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CLAP 친구들과 인간, 미래, AI에 대한 이슈로 더 깊은 논의를 이어가야겠습니다.

퀴즈풀이와 함께 하는 ZOOM 전시회



오후에 CLAP 친구들은 삼삼오오 zoom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전에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물을 접한 많은 청주대 재학생 친구들이 전시회 감상 겸 퀴즈대회 참여를 위해 zoom에 접속하였고, 우리들은 3기가 될지 모르는 새로운 얼굴들을 떨리는 마음으로 마주하였습니다.

이전부터 CLAP에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참여해 주었는데요. CLAP에 관심은 있지만 어떤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저희 담임 교수이신 최건아 교수님께서 CLAP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각 팀에서 CLAP 홍보를 위해 준비한 영상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5조, 6조, 10조 친구들이 같이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CLAP에서 진행한 활동을 2인 5조 문답의 형태로 소개해 주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소담'이라는 소그룹으로 함께 하면서 구성원들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었는지, 또 대표적인 그룹 활동인 농촌재능나눔 봉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등을 진지한 멘트와 익살스러운 영상으로 조화롭게 구성해 보여줬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 소그룹의 영상이 끝날 때마다 퀴즈를 내셔서 전시회에 참여한 친구들이 답을 맞힐 수 있도록 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CLAP의 진행 요일, 취지 등에 대해 알고 있어 놀람기도 했습니다. 정답을 맞힌 친구에게는 독서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북마커티백, 가습기, 독서대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걸어온 길, 걸어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7조와 9조 친구들이 협심하여 제작해 주었는데요. CLAP의 다양한 활동들을 두 앵커가 소개해 주는 상황극을 하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7조와 9조 친구들은 올 한 해의 봉사활동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조와 8조 팀원들은 요즘 유행하는 어몽어스라는 게임을 통해 CLAP의 활동을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1조, 3조, 4조는 인터뷰 형식으로 1년 동안 CLAP 활동에 대한 느낀 점과 경험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영상을 제작해 주었습니다.



모든 영상 관람을 끝나치고 최건아 교수님께서 고생했다는 말씀과 함께 'CLAP 3기에 관심 갖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즐겁게 진행해야 하는데 영상을 다 보고 나니 애뜻하고 아련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이 그동안 저희에게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고 계셨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울컥 눈물이 나올 뻔하였습니다. 이어 준비된 퀴즈가 종료된 뒤에도 많은 친구들이 CLAP 운영에 대한 여러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퀴즈 풀이와 함께 하는 ZOOM 전시회'에 다양한 친구들이 참여해 주어서 정말 고맙고 저희가 지난 1년간 같이 고생하며 풀어나갔던 일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해주는 시간을 갖게 되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홍보 차원으로 제작한 영상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온라인 전시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CLAP의 취지를 잘 이해했으리라 믿고, CLAP 3기에 신청하여 성실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AI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떤 분야에 활용되는지 개괄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윤세웅 대표님께서 제시해주신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지금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많은 분야에도 AI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어와 연어를 비교해 연어 같은 삶을 살자는 말처럼 항상 도전하는 자세로 진취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같이 고생한 우리 CLAP 친구들과 교수님들께 정말 좋은 추억 그리고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 제가 느낀 것들을 다음 CLAP 3기 친구들이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였으면 하지 못했을 일을 친구들과 교수님들께서 힘을 때마다 함께해 주셔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13주차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번주 CLAP은 과학, 융합을 주제로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항공, 우주 그리고 미래’ 강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의 핵심 키워드는 COSMOS였습니다.

C: Challenge

O: Obstacle

S: Steady

M: Modesty

O: Optimistic

S: Sensible

교수님께서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는 항공우주의 트렌드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학생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Cosmos는 러시아어로 우주, 이상향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Cosmos가 가진 뜻에 집중해 수업을 들어 봅시다!



항공, 우주 그리고 미래



항공 기계 공학 전공 임동균 교수님께서 간단히 소개를 마치신 뒤, 교수님께서 영향을 받은 두 인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쥘 베른입니다. 쥘 베른은 해저 2

만리, 80일간의 세계 일주, 15소년 표류기, 지구에서 달까지 등의 대작을 남긴 소설가입니다. 교수님은 특히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책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는 전쟁이 자주 일어났을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남북전쟁 후 많은 무기가 남아, 대포의 원리를 이용해 사람들을 달로 보내자고 합니다. 당시에는 비행기에 대한 개념도 없었을 때인데 참 신기하지 않나요? 심지어 그 재료를 알루미늄이라고도 말합니다. 요즘 항공기는 복합재료를 이용하여 만들지만, 아직도 항공기를 이루는 대부분의 재료는 알루미늄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미야자키 하야오입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도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붉은 돼지’라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에서는 비행선과 오염된 지구가 나오는데요. 항공 우주 기술은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자연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교수님께서 자연과 비행기에 관심이 많으셨고 이 애니메이션이 무척 감명 깊었다고 합니다. 붉은 돼지에서는 맛있는 정비공이 등장하는데 교수님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 항공에 관련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COSMOS

Challenge for your Dream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가 위축되었지만, 우리의 도전하는 마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수님께서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40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항공 우주 분야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30년까지 화성에 인구 8만 명이 사는 기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 목표를 향해 지금도 진전 중입니다.

교수님께서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몇 가지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SpaceX 실험 영상입니다.

<https://youtu.be/l5l8jaMsHYk>

이 실험이 항공 우주의 비포엔애프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엄청난 속도를 내며 우주에서 지구로 진입하는 로켓의 이름은 펠컨 헤비입니다. 영상 속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로켓이 역추진을 통해 본인들이 원했던 위치로 착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켓은 큰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더욱 저렴하게 로켓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고 결국 로켓을 재사용하여 이 실험을 성공시킵니다.

<https://youtu.be/tw4jkyfY4HE>

두 번째 영상으로는 테슬라의 Roadster 영상입니다. 제로백이 2.1초, 최대속도 400km/h, 최장 거리 1000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 관심이 없었을 때 테슬라의 등장으로 전기차 시대가 열렸습니다. 항공우주기술은 자동차에도 적용됩니다. 400km/h까지 달린다는 것은 마크 0.3, 음속의 0.3배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인데 이 속도는 자동차의 뒷바퀴를 뜨게 합니다.

<https://youtu.be/XjBcCChaytE>

세 번째 영상은 하이퍼루프입니다. 교수님께서 하이퍼루프의 개념을 우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이퍼루프에 탑승하기 전 스마트폰으로 어디를 갈지 선택합니다. 충돌 회피를 하며 손님의 패턴 분석을 완료한 하이퍼루프는 1,280km/h까지의 속도를 내며 달립니다. 항공기와 상대속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두바이에서는 하이퍼루프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스테이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하이퍼루프를 설치하기 아주 좋은 장소인데요. 하이퍼루프의 라인은 직선이어야 하는데 두바이는 산이 없고 사막-도시-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라인을 설치하기 좋다고 합니다. 또 하이퍼루프는 태양열로 주행하므로 두바이는 최고의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하이퍼루프를 개발 중입니다.

Obstacle in our life

코로나로 인해 항공업계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더라도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살아가는 데 장애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청어는 성질이 급해서 잡으면 곧장 죽어버리는데, 자주 죽어서 도착하는 청어를 어떻게 살려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메기 몇 마리를 잡은 청어들에 풀어놓았더니 95% 이상의 청어들이 살아있었고 고기의 맛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우리의 능력을 더 개발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도전이 뒤따를 때 문입니다.



항공 우주에 있어 가장 발전한 곳은 미국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21세기 초에 발사한 로켓은 아폴로 시대에 사용된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1969년에 인류를 달에 보낸 이후로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9.11 테러에 이은 두 차례 전쟁의 여파로 NASA 예산은 우선순위에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느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때 일론 머스크의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NASA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생각해 냈습니다. 컬럼비아호, 챌린저호, 디스커버리호, 아틀란티스

호, 인디버호 모두 공기역학적으로 비효율적인 모양임을 지적했습니다. 장치에 진동이 발생했을 경우 로켓이 분리가 잘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순식간에 위기상황에 모면하게 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셔틀에는 날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지구에 재진입할 때는 특정한 궤도에 따라서만 착륙을 해야 합니다. 재진입할 때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효율적인 형상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이퍼루프 개발의 문제해결 방안도 찾아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하이퍼루프는 1904년 로켓 공학의 대부 로버트 고다드 박사가 우스터 폴리 테크닉 신입생 시절 진공 열차로 고안한 것입니다. 하이퍼루프에는 피스톤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는 앞에 압축기(컴프레서)를 달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Steady effort for your dream

일론 머스크는 지구에 자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사람들은 항상 환경오염 등의 사회 문제를 일으키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그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화성에 이주시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다독가였고, 책을 통해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12살 때 책을 통해 스스로 코딩을 배우고 블래스터라



는 게임을 제작하였고 500달러에 팔게 됩니다. 그리고 엑스닷컴(페이팔의 전신)을 제작합니다. 이것을 이베이에 약 15억 달러에 팔며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엑스, 테슬라, 솔라시티라는 회사를 세우는 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회사들은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람들을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데 목적을 둔 그는 스페이스 셔틀이 필요하여 SpaceX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주시키는데 큰 비용이 들면 화성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자동차는 내연기관을 이용합니다. 이 내연기관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공기와 연료입니다. 화성은 산소도 화석연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전기자동차는 태양열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솔라시티도 이 태양열을 위해 만든 회사입니다.

Modesty in my life

우리는 꾸준하게 어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에는 겸손함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교수님은 또 다른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신재원 박사님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NASA에 있었으며 항공 연구기술개발국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이분에 관련된 하나의 일화를 말씀해주셨습니다. 박사님이 NASA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미국엔 박사학위자가 많지 않았고 동양인은 더욱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청소부가 박사님께 청소를 요구하였고 박사님은 군말 없이 깨끗이 치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박사학위자라는 걸 안 청소부는 박사를 존경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박사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창조자에 의해 똑같이 만들어졌으며 존중받아야 한다.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학력이나 부에 따라 생명의 가치까지 결정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현재 신재원 박사는 현재 현대자동차에 UAM 사업부장으로 있습니다. 이어 교수님께서는 현대에서 제안하는 UAM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현대에서는 스카이 포트라는 것을 제시했고 이제 항공기의 역사가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는 2025년까지 S-A1을 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양재, 인천공항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스카이 포트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충북에서도 이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할 계획입니다. 청주대학교 항공학부에서 UAM 프로젝트를 내년 초부터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스카이 포트를 청주 공항, 오송역 등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2030년쯤에는 우리가 상상만 하던 것들이 현실이 됩니다.

To be Optimistic in all situation

낙관적인 마음 없이는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개구리가 새에게 잡아먹히고 있을 때 새의 목을 잡아버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주변 상황에 맞춰 꿈을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꿈을 끝까지 좇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걸 보아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님께서 무인기의 트렌드를 알려주시고자 영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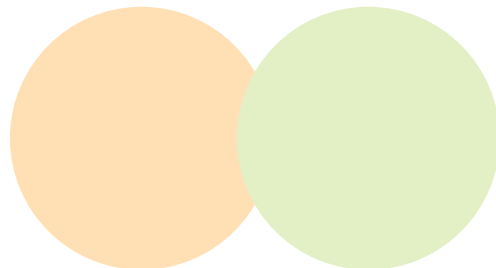
<https://youtu.be/13PHxjRbVMo>

Angel has fallen(2019)

한때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나라에 침범했습니다. 이때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비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물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무인기가 몰래 독약을 뿌리면 우리는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상처럼 무인기가 한 번에 쳐들어온다면 그들을 막을 기술 또한 없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To be Sensible

교수님께서 Smart라는 단어 대신 Sensible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예민하고 민감하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항공 기술에서 Sensible이라고 하면 무인기가 떠오릅니다.



좌측 무인기는 쿼드콥터 형태입니다. 지상과의 통신을 위해 여러 가지의 통신장비, 배터리, 모터, 로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측형태는 가스터빈 엔진, 하이브리드엔진, 수소 연료 사용이 가능한 무인기입니다. 비교적 멀리 비행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무인기에 관심이 있다면 지상 장비에도 관심을 가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무인기의 기술 트렌드는 군집 비행입니다. 고속비행을 위해 편대 유지 및 군집 정밀 제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미션이 바뀌었을 때 임무를 판단하고 재분배할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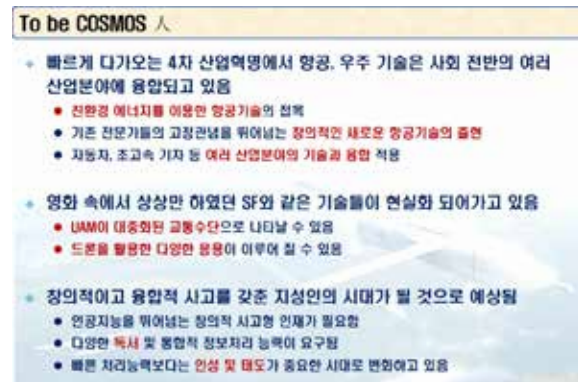


또 하나의 최근 트렌드 기술은 자율 비행 및 인공지능입니다. 충돌 회피, 영상 인식, 사물 추적, 비상 제어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To be COSMOS人

교수님께서는 CLAP 학생들이 상황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닌 상황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에서 항공 트렌드의 개념 또는 COSMOS의 6가지 키워드 중 하나라도 마음속에 남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CLAP과 함께하는 겨울

오후 시간에는 모두 모여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기상 이 일정은 겨울 방학 중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조별, 개인별로 독서와 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활용하여 조별 회의를 진행한 팀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5, 6, 10조입니다.



5, 6, 10조는 여름방학 동안 함께 봉사활동을 같이 한 팀입니다. 이번에는 PBL 프로그램을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최건아 교수님과 면담을 통해 청년이 독서하는 젊은 청주 프로젝트를 주제로 삼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설문지를 만들고 피드백 받는 시간을 가지며,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7, 9조도 팀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7, 9조는 연합하여 CLAP (L)READ 봉사팀을 꾸렸고 얼마 전 우수 동아리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CLAP을 통해 봉사도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상까지 받게 되다니 매우 기쁜 일입니다.



7조의 정민주 학생은 “먼저 멘토링 봉사활동을 함께한 우리 7, 9조 친구들과 봉사활동 기간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최건아 교수님, CLAP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처음 멘토링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멘토링 활동하는 동안 멘티들과 많은 활동을 진행하면서, 낯을 가리고 소극적이던 멘티들이 점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이야기까지 말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처음과는 다르게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고, 저 또한 아이들과 함께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 7, 9조와 함께 멘토링을 진행하며, 서로 힘을 맞춰가면서 팀워크를 배울 수 있었고, 우리의 관계도 더 끈끈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졸업 전에 이런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또한 수상도 하게 돼서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멋진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소감 마칩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해주었습니다.



7조의 김형준 학생도 “정말 고생 많았던 우리 7, 9조원들, 지속해서 도움 주셨던 교수님, 선생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CLAP 활동 덕분에 행복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요.”라고 소감 남겼습니다. 이날 7, 9조는 상을 수령하고 교수님과 맛있는 점심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줌으로 회의를 진행한 팀들도 있습니다. 1조는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였고 2021년 신년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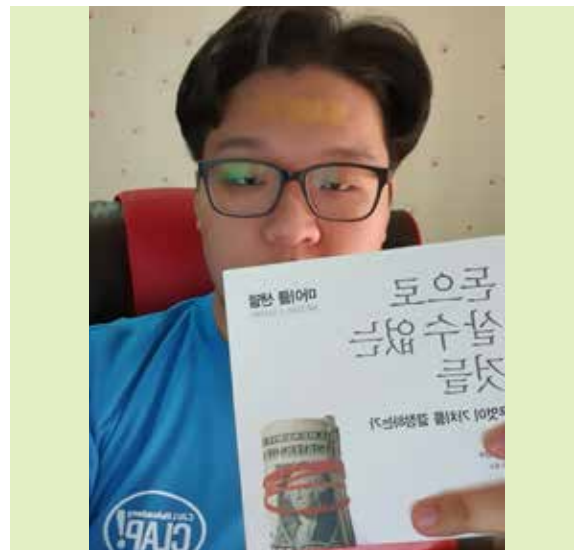
2조는 줌 독서실을 열었습니다. 줌 독서실을 통해 각자 개인적인 공부나 독서를 함께하며 이번 주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만나지 않았더라도 함께 책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보낼 조원들이 있다는 것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CLAP 조별 활동의 장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3조는 진행하고 있던 봉사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와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조는 종강 후 만나서 공연을 보기로 약속하고 예매까지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김동휘 학생은 토론 대회 때 상품으로 받았던 마이클 센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읽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인증샷을 보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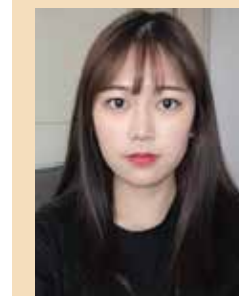


팀 활동을 못 한 학생들은 이렇게 개인별로 독서 인증샷을 보내주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며, 또한 언제나 쉽지가 배우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또 한 페이지 완성되었습니다.

취소된 공연 관람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묵묵히 독서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CLAP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혹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고난은 앞으로의 여러분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CLAP을 통해 인성과 바른 태도를 겸비한 우리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한줄 다짐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하여

CLAP 청주대 라이프아카데미 2기
우지영

2020 CLAP DAY

Dongwon
동원대학교

2020년 8월 4일 화요일
청주대학교 석우목학생회관

청주대학교



CLAP

학생 학습후기

숨이 찰 정도로 걷기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길에서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꾸준히! 착실하게! 최선을 다 하여! 지금 주어진 일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매주 CLAP 수강생들이 작성한 학습후기들. 목표 달성의 궤적을 돌아봅니다.



청주대학교

1학기 11주차 학습후기

성명 : 권민정
학과 : 국어교육과
(18학번)

이번주 학습 및 활동 내용

오전 수업은 '김치와 미녀'를 창업하신 윤지영 대표님의 창업스토리를 들었다. 강사님은 대학생때 서울에서 진행한 김치 체험 부스에서 부모님을 도왔던 일을 계기로 창업을 다짐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그 일을 계기로 김치 사업을 지금처럼 키울 수 있었던 사건들과 갈등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다.

오후 수업은 '마인드 셋' 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의하고 발표하였다. 교수님께서 겪었던 일들을 마인드 셋에 기초하여 설명해주셨고 조원들끼리 고정 마인드 셋, 성장 마인드 셋, 자신의 성장이란 무엇인지 토의하고 전지에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학습 및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

윤지영 대표님께서 김치 사업을 부모님께 허락받고 하루 하루를 블로그에 매일 기록했다는 부분이 인상깊었다. 어떤 일든 꾸준히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토대도 아직 잡히지 않은 일에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포스팅했다는 말에서 대표님의 성실함과 간절함이 느껴지며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

책 '마인드 셋'을 통해 나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 성장마인드 보다는 고정마인드가 강했다는 사실을 반성했고 앞으로는 좀 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이 나를 더 발전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 알고보고 싶은 것

아직 창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보지는 않았지만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여러 아 이템과 창업 절차에 대해서 알고보고 싶다.

현재 우리학교에서 창업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가 실제 창업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고보고 싶다.

다음 학습 및 활동 계획

책을 읽으면서도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는데 이 생각이 고정마인드셋이라고 조원들이 알려주었다. 성장마인드셋을 키우기 위한 긍정적인 사고와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하는 법을 연습하고 배울 것이다.

마이클 센델의 '완벽에 대한 반론'책을 읽고 '가타카' 영화를 보고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생각해오기.



청주대학교

1학기 12주차 학습후기

성명 : 김동휘
학과 : 경영학부
(18학번)

이번주 학습 및 활동 내용

흔히 문사철이라고 불리는 문학, 사학, 철학에 대한 기원과 유래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수렵과 채집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문명과 역사라는 코드로 들어가 벗어나지 않게 되면서 자연에서 벗어나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했기에 문명은 자연파괴로부터 시작 되었고, 환경, 생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학습하였습니다. 영화를 관람하고 학우들과 인상깊었던 장면과 영화가 전하려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 완벽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습 및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

사회가 점차 고도화 되는 이유는 인간이 알아낸 지식을 후손에게 체계적으로 전달가능하기 때문이고, 체계적인 전달을 위해 문자를 만들고 기록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나아가 이성에 대해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나와 인간으로서의 나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각하고 괴리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책 완벽에 대한 반론에서 주로 다루는 이슈들이 지난 번 토론의 우수상품으로 받은 마이클 센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과 많이 비슷했습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어지면서 인간성의 훼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더 알고보고 싶은 것

b.c. 6세기에서 5세기경 일어난 boom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사상가들의 탄생이 우연적인 것인가 시대적인 큰 흐름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당시의 사회,문화적 환경 때문인지 알고보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가져올 명암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으로 근래의 이슈였던 기본소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화학비료의 발명으로 압도적인 식량생산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굶어죽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인간이 노동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될지 궁금합니다. 기술을 기반으로 노동을 하지 않거나 아주 적은 노동만 하며 기술의 혜택을 보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극도의 양극화가 펼쳐져 소수에 의해 지배받는 암울한 사회가 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노동의 가치 인간의 가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학습하고 싶습니다.

다음 학습 및 활동 계획

우리가 문명과 역사의 코드 속에서 살아가는 한 생길 수 밖에 없는 환경, 생태적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취업 문제로 문사철로 불리는 인문학적 요소들이 외면 받는 경향이 많은데 이러한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로비가 합법일만큼 금권정치화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다면 오직 시장에서 자유롭게 공급과 수요를 통해서 모든 것의 가치에 값이 매겨지고 거래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미국인들이 가진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 알고보고 우리와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주대학교

2학기 6주차 학습후기

성명 : 김형준
학과 : 사회과학부
(19학번)

이번주 학습 및 활동 내용

엄선희 변호사님과 함께 수용자, 수용자의 자녀,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편견들이 인권의 발전을 어떻게 막고 있는지, 왜 차별과 편견이 위험한지 알 수 있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인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안지영 교수님과 함께 '말이 칼이 될 때', '노란들판의 꿈' 도서를 통해서 혐오 표현과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배웠다.

혐오표현이 왜 위험한지, 어떤 것들이 혐오표현인지, 혐오표현들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알 수 있었다.

소수자들이 혐오표현으로 얼마나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지, 선부른 표현이 과장되는 것을 배웠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등 제대로된 인권도 실현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의 현실을 알아봄으로써 그들에 대한 이해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학습 및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

수용자의 자녀가 무관심 속에서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이와 같은 활동과 배움을 통해서 인권에서 더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더 넓어졌다.

또한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차별받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니 국가에서 해주는 지원이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한 마음이었다.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을 비롯한 여러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빨리 거둘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겠다고 느꼈다.

더 알고보고 싶은 것

책에서 나온 혐오표현들 이외의 것들을 더 알고보고 싶다.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혐오표현 중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인식을 고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또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고보고자 한다.

다음 학습 및 활동 계획

다음 활동은 '말이 칼이 될 때' 의 저자 홍성수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궁금한 것들이 있어 질문을 미리 만들고 관련된 문제에 더 깊은 생각을 해보아야겠다.



청주대학교

1학기 13주차 학습후기

성명 : 김혜송
학과 : 경영학과
(16학번)



이번주 학습 및 활동 내용

1. '물'을 주제로 한 송영일 부장님의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물'이라는 자원은 전세계적으로 사회, 경제, 환경 등 우리 삶의 각 영역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송영일 부장님은 '세계 물 환경 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다. 먼저 '포노 사피엔스'의 개념을 설명해주시면서 현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부터 함께 살펴보았다. 우리는 현재 스마트폰 없이 살수 없는, 스마트폰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되었다는 부분이 공감되었다. 그 후로는 기후변화, 세계 물부족, 물의 오염, 기후변화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 각 조별로 '환경' 관련 도서를 읽고 조별활동을 수행했다. 우리 조는 고금숙 작가님의 '우린 일회용이 아니니까'라는 책을 읽고 친구들에게 소개했다. 책의 중심내용과 책에서 제시한 환경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소개했다.

'우린 일회용이 아니니까'에서는 플라스틱의 과다 사용이 정확히 어떤 문제들을 가져오는지,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줄이기 매뉴얼을 제시해주었다.

또한 다른 조들이 선정한 자연이 보내는 손익 계산서, 침묵의 봄, 사향고양이의 눈물을 마시다 등 다양한 환경 관련 도서에 대하여 알 게되었고, 각각의 책이 제시하는 환경문제점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학습 및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

1.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물이 사실을 아주 귀한 자원이며, 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장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송영일 부장님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의 활동 하나하나가 물의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언제까지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을것 같은 물이

사실은 한정적이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할 자원이라는 점을 되새길 수 있었다. 또한 평소에는 자각하지 못했던 농업 방식, 탄소발자국, 경제적 상황등이 '물'과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 모두 자연이 준 물이라는 선물을 귀하게 여겨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2. 우리가 플라스틱을 '삶의 기본값'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테이크아웃 컵, 플라스틱 스푼, 비닐봉지 등 너무나 당연히 사용하던 것들이라 나조차도 플라스틱 사용의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환경'을 주제로한 수업에 참여한 후에는 현 시점의 우리는 모두가 필환경시대를 실천해야함을 깨달았다.

생각보다 환경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었다는 충격과, 그럼에도 우리가 저마다 일상속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하면 우리의 환경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얻게되었다.

다음 학습 및 활동 계획

14주 수업에는 학교에 오는대신, 각 조별로 지역탐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6월 27일~7월 3일 사이 조별로 원하는 지역(또는 장소)을 탐방하고, 해당 장소를 개선 또는 개발, 홍보할 방안을 생각하여 보고서로 결과물을 도출할 것이다.

더 알고보고 싶은 것

책에서 나온 혐오표현들 이외의 것들을 더 알고보고 싶다.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혐오표현 중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인식을 고칠 수 있도록 해야 겠다. 또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고보고자 한다.

청주대학교

1학기 5주차 학습후기

성명 : 박건
학과 : 레이저광정보공학과
(18학번)

이번주 학습 및 활동 내용

이번주 활동 잠깐 조원들과 봉사활동 의견을 나누다가 결식아동과 관련된 플랫폼을 창업동아리를 접목시켜서 해보자는 생각을 했다. 결식아동에 대해 생각해보다가 결식아동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정작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결식아동또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결식아동 플랫폼 제작 창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조원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조원들과 만나고 최건아 교수님을 만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을 알리고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았다.

학습 및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

사실 이 결식아동 플랫폼 제안을 처음으로 낸 사람은 나다. 그냥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의견을 냈더니 모든 조원들이 공감해주고 좋은 생각이라고 해주고 뭔가 일이 술술풀리더니 다같이 한번해보자고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조원들과 마음이 잘 맞아서 좋았다. 처음으로 대면으로 조원들을 만나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친해질 것 같다.

더 알고보고 싶은 것

코로나가 계속 진행중인데 향후 clap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줌으로만 활동하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아 불편해서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대면수업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다음 학습 및 활동 계획

다음주는 글쓰기 관련 수업이다. 평소에 글을 잘 못써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생각만 했지 실제 배워 본 적이 없어서 다음 수업을 계기로 글쓰기에 대해 열심히 수업을 들어보겠다.



청주대학교

1학기 14주차 학습후기

성명 : 반석진
학과 : 레이저광정보공학과
(15학번)

이번주 학습 및 활동 내용

1조 조원들과 함께 청주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하여 전시회를 관람하였다. 주제가 문화 탐방을 하면서 그 지역의 발전이 될 수 있는 방법 즉 개선 방안이나 배워야 할 점 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학습 및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

미술 작품을 관람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두들아트에서 배운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나 시각적인 것들을 부숴버리는 듯한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인상 깊었던 작품은 돌에 고양이로 조각한 작품이다. 둥근 돌의 특성은 살리면서 고양이 특유의 몸을 말고 있는 자세나 팔을 몸 안으로 넣고 웅크려 앉아있는 자세등 돌로 고양이의 특징을 잘 찾은 것 같은 작품이었다. 관람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작품 설명이 팸플릿에만 적혀있어 팸플릿이 없으면 작품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벤치가 부족해 앉아있지 못하여 많이 지쳤었다는 점이다.

더 알고보고 싶은 것

지금 청주 국립현대박물관은 옛 연초제조창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청주시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이런 업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 건물에서의 작품을 관람하는 것도 좋았지만 예전에 엔틱주 국립현대박물관은 옛 연초제조창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청주시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이런 업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 건물에서의 작품을 관람하는 것도 좋았지만 예전에 엔틱한 느낌이 작품들의 연출을 더욱 살려주는 장점도 있었기에 타지역에도 이런 폐건물에서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곳을 알아보고 방문해보고 싶다.

다음 학습 및 활동 계획

CLAP 2기 1학기를 마치며 중강파티



청주대학교

2학기 2주차 학습후기

성명 : 방은솔
학과 : 국어교육과
(16학번)



이번주 학습 및 활동 내용

이번 주차에는 가치성장연구소 서지은 대표님이 오셔서 강연을 했다. 강의는 시간관리에 중점되어 있었다.

성과를 내는 기본 공식, 미래위치와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그 사이의 간극을 시간관리를 통해 극복한다는 공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나서 목표설정과 시간관리에 대해 강의하였다.

1. 목표는 SMART기법을 사용하여 설정하자.
목표의 기술이 구체적인지, 측정가능한지, (현실적으로)달성가능한지, (자신이 원하는 것과)연관성이 있는지, 마감일이 있는지. 이렇게 다섯가지 기준이다.
2.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자.
떠오르는 모든 고민들을 적고, 시급성과 중요도를 체크하여 To do list에 올리자.
3. 시간관리는 역산스케줄링 방법을 사용하자.
연간목표 - 월간목표 - 주간목표 - 일일목표 - Now Start.
연간 목표를 월간 목표로 나누고 주간 목표를 일일 목표로 나눈다.
그리고 나서 나의 가용시간에 배분하여 넣는다.

시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다.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들은 항상 발생하고 끊이지 않는다. 하기에 긴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것을 시간관리를 통해 이루어야 한다.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면서 자신의 비전이나 궁극적 목표를 함께 적는다. -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학습 및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

이번 주차에 읽었던 책이 자기계발로 인해 무너져가는 20대들을 보여주는 책이었다. 20대들은 시간을 분단위로 나누어서 생활하고 그렇게 쏜은 시간과 노력에 대가를 원한다. 그 노력의 보상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멸시와 혐오가 정교화되어가고 있다.

그렇기에 시간 관리에 굉장히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었다. 강의 처음에는 앗! 20대를 옹호하는 시간관리다! 하면서 (자기계발서에 등장하는) 뻔한 강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연자의 말이 흡입력이 있었던 이유에선지. 시간관리는 곧 성공! 이라는 공식 덕인지. 나도 모르게 시간관리에 빨려들어 갔다.

사실 나도 전에는 시간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었다. (물론 강연자만큼은 아니지만..) 월간목표-주간목표-일일목표-시간별 해야할 일로 나누어서 생활했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따로 스케줄이 잡히지도 않았다. 인터넷 강의는 교수님마다 매 주차 강의마다 시간도 매우 유동적이게 되었다. (물론 이제는 50분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계획한 것이 그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잘 포기하는 편이라 아예 계획을 안짜고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생활패턴이 완전히 무너졌다. 식사는 하루에 1끼에서 2끼도 제대로 먹지 않으며, 식사 시간도 유동적이다. 취침과 기상시간 또한 유동적이며 일일 학습 시간 또한 격차가 심했다.

시간관리로 20대를 옹호하는 강연은 물론 싫다. 하지만 나에게 이번 강의는 매우 유익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물론 강연자만큼 모든 시간을 쪼개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원래 목표만 정하고 시간은 유하게 짜는 편이었기에... 무조건 목표만 달성하면 쉬거나 취침시간을 줄이거나 했었다. 일의 흐름이 끊기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의 스타일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태해졌던 나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 이 강의는 매우 훌륭했다!

다음 학습 및 활동 계획

다음주에 읽을 '남자다움이 만드는 이상한 거리감'. 이 책은 개인적으로 매우 기대되는 책이다. 외국 저자의 책이라 약간의 간극은 있겠지만, 서론을 보고 내가 매우 공감할 만한 소재였다. 또한 생각해보고 싶었고 읽어보고 싶었던 내용이다.

책의 처음 부분을 읽으며 아버지를 가장 많이 떠올렸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는 애증의 관계에 있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곤 했다. 하지만 자기노출 원리에 따라... 아직 조원들과는 이렇게 깊은 얘기까지 가긴 힘들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다음 주차에 이 책의 내용을 주제로 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싶다.!

더 알고보고 싶은 것

DJ 캔디(님)이 오신다! 완전 멋진 여성이 아닌가.. 모든 편견을 깨부신 여성의 느낌이라랄까. 완전 기대된다 ^o^ ...

게다가 오후에는 최교수님과 '남자다움이 만드는 이상한 거리감'이라는 책으로 진행

완전 완벽하게 기대되는 주간이다! 금요일이 오기전에 책도 다 읽고, 캔디님(?)에 관한 정보도 약간 검색해 봐야겠다.

청주대학교

1학기 4주차 학습후기

성명 : 신진철
학과 : 경영학과
(16학번)

이번주 학습 및 활동 내용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에서 함께 변화하고 다양화 되어가는 가족의 의미, 꼭 가족이라는 것이 4인가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폭 넓은 인식으로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상한 정상 가족 책을 통해 우리나라에 예로부터 전해오던, 그리고 현대적 사고로 생각했을 때,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정당화 되었던 행동들(체벌 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나도 책과 관련된 경험을 해보았나에 대해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학습 및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

내가 평소 가족이라고 떠올리면 4인가족을 생각했는데, 현대에서 이런 편견은 이제 시대에 뒤쳐지고 꼭 옳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상한 정상 가족을 통해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했던 행동들, 남이 나의 자식을 때리면 화가 나는데 왜 나는 내 자식을 때려도 정당화 되는가에 대해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더 알고 싶은 것

이상한 정상가족에 나오는 이상하지만 정당화 되는 행동들 외에 다른 예들을 찾아보고 싶다.

다음 학습 및 활동 계획

봉사활동 계획 토론, 피드백



청주대학교

1학기 5주차 학습후기

성명 : 오새임
학과 : 보건행정학전공
(18학번)

이번주 학습 및 활동 내용

저희 3조는 봉사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팀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한 상황에서 했고, 우리는 걱정되는 마음을 가득 안고 만났습니다. 저희 3조는 교수님과 대면 미팅 약속을 잡았습니다. 교수님과 조원들을 실제로 만나는 첫 자리라서 어색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마음을 가지고 학교로 갔습니다. 우리는 수업 1시간 전에 만나서 어색함을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다른 위치에서 자료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 조는 창업동아리를 통해 결식아동을 위한 플랫폼 만들기를 봉사활동으로 정했습니다. 주치가 어디인지,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결식아동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구할지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습 및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

저는 생각보다 조원 각각이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우리는 이 창업동아리를 통해 결식아동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 시각에서 이 일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점들은 결식아동, 지역아동센터, 선생님, 공무원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고 실제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사례를 찾아보고 이 일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는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대면 수업의 기쁨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었습니다.

더 알고보고 싶은 것

우리는 구체적으로 문제에 나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식아동에게 무료 제공해줄 음식점, 꿈사랑카드 등 결식아동들을 위한 총복 시도구청 등의 상업을 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미 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알아봐야 하는 것과 결식아동을 이해하기 위한 설문조사 양식을 만들고, 각자 대상을 맡아 질문지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저는 결식아동 플랫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다른 지자체의 예산도 알아보고 정부나 시도 청에서 하는 여러 창업 아이템을 찾아봐야 합니다. 큰 노력과 집중적인 관심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결식아동들의 결식을 줄일 방안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다음 학습 및 활동 계획

우리는 결식아동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진행할 설문조사의 설문지를 작성하고, 각자 설문대상을 맡아 그 대상에 맞는 질문지를 작성해서 공유하며 토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4/20에 회의를 나누고 이후에 회의록을 작성해서 저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5/11에 진행 예정인 창업동아리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창업동아리 오리엔테이션에 갈 인원을 조사하고 우리만의 사업 과제 신청서 제출 기간인 4/29까지 우리는 과제 신청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청주대학교

1학기 13주차 학습후기

성명 : 우지수
학과 : 미디어콘텐츠학부
(19학번)

이번주 학습 및 활동 내용

저희 3조는 봉사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팀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한 상황에서 했고, 우리는 걱정되는 마음을 가득 안고 만났습니다. 저희 3조는 교수님과 대면 미팅 약속을 잡았습니다. 교수님과 조원들을 실제로 만나는 첫 자리라서 어색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마음을 가지고 학교로 갔습니다. 우리는 수업 1시간 전에 만나서 어색함을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다른 위치에서 자료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 조는 창업동아리를 통해 결식아동을 위한 플랫폼 만들기를 봉사활동으로 정했습니다. 주치가 어디인지,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결식아동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구할지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습 및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

저는 생각보다 조원 각각이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우리는 이 창업동아리를 통해 결식아동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 시각에서 이 일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점들은 결식아동, 지역아동센터, 선생님, 공무원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고 실제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사례를 찾아보고 이 일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는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대면 수업의 기쁨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었습니다.

더 알고보고 싶은 것

우리는 구체적으로 문제에 나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식아동에게 무료 제공해줄 음식점, 꿈사랑카드 등 결식아동들을 위한 총복 시도구청 등의 상업을 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미 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알아봐야 하는 것과 결식아동을 이해하기 위한 설문조사 양식을 만들고, 각자 대상을 맡아 질문지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저는 결식아동 플랫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다른 지자체의 예산도 알아보고 정부나 시도 청에서 하는 여러 창업 아이템을 찾아봐야 합니다. 큰 노력과 집중적인 관심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결식아동들의 결식을 줄일 방안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다음 학습 및 활동 계획

우리는 결식아동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진행할 설문조사의 설문지를 작성하고, 각자 설문대상을 맡아 그 대상에 맞는 질문지를 작성해서 공유하며 토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4/20에 회의를 나누고 이후에 회의록을 작성해서 저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5/11에 진행 예정인 창업동아리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창업동아리 오리엔테이션에 갈 인원을 조사하고 우리만의 사업 과제 신청서 제출 기간인 4/29까지 우리는 과제 신청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청주대학교

1학기 7주차 학습후기

성명 : 원민지
학과 : 국어교육과
(18학번)

이번주 학습 및 활동 내용

대립 토론은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대항하는 두 팀으로 나누어 일정한 규칙에 따라 토론하고, 심문과정을 거치며 토론이 끝난 이후에는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말로하는 게임이다. 대립토론은 사회자가 진행하고, 발언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찬성측이 먼저 입론하고, 반대측이 다음으로 입론한다. 그 다음 2분간의 작전시간을 가지고 각측의 질문자가 입론자에게 입론에 대해 질문하고, 입론자는 이에 답한다. 다음으로 각측 반론자의 주장을 듣고 두 번째 작전시간을 갖는다. 이후에는 각측 2질문자가 반론에 대해 질문하고 반론자가 답하고, 반대측의 최종발언과 찬성측의 최종발언으로 마무리된다. 토론이 끝난 뒤에는 심판원이 작성한 대립토론 판정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승패를 가른다.

대립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근거와 그를 뒷받침하는 출처가 확실한 자료이다. 또한 제한 시간을 준수하며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장을 말하고, 질문하고, 반박해야한다.

학습 및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

대립토론을 대학교에서 처음 해보았는데 하나의 안건에 대해 찬반입장을 나누어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준비해온 자료로 상대측의 질문에 대답을 해낼 수 있어서 뿌듯함도 느꼈다. 실제 토론도 물론 유익했지만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출처가 분명하고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찾고, 안건에 대해 공부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다. 화폐개혁을 제대로 알지 못해 막연히 "1000원이 1원이 되는 게 화폐개혁 아닌가? 굳이 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화폐개혁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토론을 준비하다보니 화폐개혁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었다. 반대측에게 질문할 내용과 함께 반대측이 어떻게 반박을 할지를 고민하고, 반대측이 우리측에 질문할 내용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반대측의 입장도 고려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

더 알고보고 싶은 것

대립토론을 꼭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해야만 하는지 궁금하다. 이번에 CLAP에서 자료조사시간을 일주일정도 가졌는데, 이는 대립토론이 낯선 학생들이 두 가지,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입장을 준비하는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토너먼트 형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안건에 대해 집중하여 자료를 보다 풍부하게 수집하고, 대립토론이 끝난 뒤에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토론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대립토론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했는지 영상자료를 찾아서 보고싶다. 영상에 등장하는 토론자들의 잘한 점과 아쉬웠던 점을 살펴보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다음 학습 및 활동 계획

대립토론을 계속 한다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능력은 물론 타인 앞에서 말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도 기를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이번에 대립토론에 대해 학습한 내용과 대립토론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그룹스터디를 구성하여 소설을 읽고 소설에서 안건을 선정하여 대립토론을 진행하면 재미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청주대학교

1학기 9주차 학습후기

성명 : 윤성원
학과 : 국어교육과
(15학번)

이번주 학습 및 활동 내용

두들아트를 통한 비주얼 씽킹 + 디자인적 사고를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
상<넛지><디자인씽킹수업>
신경순 작가님과 함께 하는 '두들아트'
이종선 교수님과 함께 한 '넛지' 이야기
CLAP 친구들의 조별 활동 결과 발표

학습 및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

두들 아트라는 것을 아예 처음 접한 것은 아니지만(클랩1기 전시회 때 보았
음), 그때 당시에는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만 생각했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에 대한 궁금증은 없었던 것 같다. 두들아트도 '표현'의 한 방법이니만큼 창의
적이고 개성적인 자신만의 색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림 그리는 것에 있
어서 나는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들 아트가 더 어
렵게 느껴졌던 것 같다. 직접 해보지는 못했지만, 만약 했으면 어땠을까 싶었
다. 보고 그리는 것만 잘하는 나에게 있어서 두들 아트는 큰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넛지+디자인 씽킹'은 부드러운 설득과 표현이 합쳐진 것이었다. 최근 관심
을 가졌던 것과도 연관이 있어서 더 관심이 갔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직접적
인 메시지를 통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이 수업은 그러한 부드러운 설득과 '표현'이 합쳐진 것이기도 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자연스럽게 아트라는 것을 아예 처음 접한 것은 아니지만
(클랩1기 전시회 때 보았음), 그때 당시에는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만 생각했



지,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없었던 것 같다. 두들아트도 '표현'의 한 방법이니
만큼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자신만의 색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림 그리는 것에 있어
서 나는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들 아트가 더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다. 직접 해보지는 못했지만, 만약 했으면 어땠을까 싶었다. 보고 그리는 것만 잘하는 나
에게 있어서 두들 아트는 큰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넛지'+디자인 씽킹'은 부드러운 설득과 표현이 합쳐진 것이었다. 최근 관심을 가졌던 것
과도 연관이 있어서 더 관심이 갔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메시지를 통하지 않고 자
연스럽게 행동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이 수업은 그러한 부드러운 설득
과 '표현'이 합쳐진 것이기도 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자연스럽게 제재한다는 것에 호기심
이 생겼다.

더 알아보고 싶은 것

결국 우리 삶 '주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고력'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
었다. 그렇다면, '사고력'이라는 수단 이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음 학습 및 활동 계획

<세상>을 주제로 한. 일과 사람 + 사회란 무엇인가<시선은 권력이다><죄와 벌>

청주대학교

1학기 13주차 학습후기

성명 : 장일성
학과 : 영어영문학과
(13학번)

이번주 학습 및 활동 내용

이번 주차 오전에는 조승래 교수님께서 '인간학으로서의 역사'에 대해 강연을 해주셨다. '역사'란 '우리가 자연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인간이 점점 진화하면서 자연과함께 어우러져 살다가, 자연을 개발하고 훼손하기 시작하면서 더이상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말도 하셨다. 동서양의 고대, 중세, 근대 역사에 대해서도 강의해주셨다. 오후시간에는 CLAP교수님이신 김영균 교수님의 '완벽에 대한 반론' 도서에 대해 강연해주셨다. 영화 <가타카>가 담고있는 '유전자의 우성과 열성'과 책에 나온 '유전자 강화'를 연관시켜보는 것도 하였다. 그리고 미리 배부되었던 질문지에 답을 같이 하나씩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학습 및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

이 주차에 대면 수업을 참석하지 못했지만, 미리 배부받은 질문지를 작성하면서 '유전자 강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책에서 언급되고있는 '우생학'은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단점도 있는거같다. 자신의 아이를 우월한 유전자만을 가진 아이로 태어나게하면, '양육'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가 잘 성장하는것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게 '부모의 양육'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때 나도 '키가 큰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텐데..라고 생각했었지만, 나중에 알게된건 '어릴때 나의 식습관'이 문제 였다는 것을 알고 유전자가 좋아도 노력이없으면 안되는구나를 느꼈다. 책과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생명, 유전학에 좀 더 생각해볼수있는 기회가 되었던것같다.

더 알고보고 싶은 것

예전에 한창 이슈였던, <줄기세포>에 대해 현재는 어떤 단계까지 진행이되었고, 치료사례는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사고후에 후유증으로 인해 마비가 된 신체도 유전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가? 도 궁금하다!

다음 학습 및 활동 계획

다음 주차에는 조별로 '환경'을 주제로 가진 책을 정해서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요즘 환경에 관한 이슈가 적은편이지만, 개인적으론 중요하게 다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점점 사회가 발전함에 비례해서 자연이 파괴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이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정해지는 책을 꼼꼼히 읽어보고 환경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청주대학교

2학기 1주차 학습후기

1주차

성명 : 윤성원

학과 : 미디어콘텐츠학부
(18학번)

이번주 학습 및 활동 내용

이번주 학습내용은 "자리이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다 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의 초반부에 "인생에서 남을 돕는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남는 것이었다"라는 부분이 인상깊었습니다. 박재갑 강연자님의 인생스토리를 통해 인생을, 그리고 자리이타의 삶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습 및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

박재갑 원장님의 강연중 중요한 주제인 "자리이타" 에 대해서 이야기 하실 때 박재갑 원장님의 부모님이 하신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결혼을 한 후 어머니께서 떡이나 그런 것을 만드시면 항상 다른 친척집에만 주고 자신의 집에는 주지않는 다고 투정을 부렸을때 어머니께서 항상 "우리 것은 또 만들면 돼지"라고 말씀하셨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일상 속에서 내가 힘든 일을 하기 싫어서 할일 외에 것들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하는 것에 인색한 부분이 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 알고보고 싶은 것

더 알고보고 싶은 것은 박재갑 원장님의 강연을 듣던 중 어떤 대학 총장님이 자신의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하면서 많은 나이에도 공부하는 모습들,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좋아보여쑥(나이가 들어서도 이미 박사학위가 있음에도 다른 분야를 기꺼이 처음부터 공부하는 것) 이 정말 좋은 자세인것 같아 앞으로 인생에서 꾸준히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싶고 인문학, 철학, 종교적인 부분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음 학습 및 활동 계획

다음 학습 및 활동계획은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인데 책을 읽고 참여할 것 이고, 오늘 박재갑 원장님의 인생 스토리에 대해 듣고 다양한 분들의 인생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는 영상들을 더 찾아보고 싶다.



청주대학교

2학기 1주차 학습후기

성명 : 전소현
학과 : 회계학전공
(18학번)

이번주 학습 및 활동 내용

첫 주차 수업은 줌 수업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오전 수업은 줌을 통해 박재갑 서울대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리이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자리이타는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교수님은 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깊게 공부해 좋은 영향력을 끼치셨습니다. 생각의 작은 차이가 생각밖에 큰 차이를 만든다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라도 확실하고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를 통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수업은 다른 조원들의 봉사활동 계획과 현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조에서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학습 및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

이타적이라는 뜻은 많이 들어 보았지만, 자리이타라는 뜻은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박재갑 교수님이 일궈놓으신 업적들이 모두 자리이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이 운동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챙기라 하여서 저의 몸상태를 다시 돌아보고 30분이상 걷기 목표를 세우려고 합니다. 또한, 유산균을 최근에 챙겨 먹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음식에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어 굳이 안챙겨먹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돼서 흥미로웠고 친구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더 알아보고 싶은 것

5대암을 예방하는 좋은 음식들과 좋은 생활습관을 알아 보고 싶습니다. 1일 유산균 권장량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다음 학습 및 활동 계획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해 학우들과 서로가 가진 생각들을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청주대학교

2학기 6주차 학습후기

성명 : 정다민
학과 : 보건행정
헬스케어학부
(19학번)

EDELMWEIS

이번주 학습 및 활동 내용

우리나라에서 차별받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차별받는 아동 청소년들, 범죄자 부모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아동 청소년들 그들은 차별 받는 것이 당연한가?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었던 차별용어를 생각해보았다. (예를 들어 결정장애)

학습 및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

장애 아동들이 보육기관에서 폭행을 당했던 자료 영상을보고 장애를 가지고 싶어서 가지게 된 것이 아닌데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말과 행동이 정확하지 못한 아이들을 폭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줘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었다. 몸이 불편하지 않은 아이들을 폭행한 것도 큰 범죄인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폭행했으므로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말 일상에서 결정장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단어를 차별의 용어라고 여기는 지 정말 몰랐다.

항상 결정에 있어서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아 결정장애 있어서 너무 어렵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결정장애라는 표현 대신에 그냥 둘 다 맘에 들어서 선택이 어렵다고 말하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겠다고 생각했다.

더 알고보고 싶은 것

우리 일상에서 정말 나도 모르게 차별표현을 쓰고 있었는지 몰랐고, 그런 차별 표현을 완화 표현으로 차별의 의미 없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다음 학습 및 활동 계획

장애인에 대한 차별 말고도 동성애,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청주대학교

2학기 2주차 학습후기

성명 : 정민주
학과 : 영어영문학과
(19학번)

이번주 학습 및 활동 내용

오늘 오전 수업은 서지은 강사님께서 시간관리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다. 서지은 강사님께서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시간 관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다. 서지은 강사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차근차근 계획을 년,월,일 순으로 세세하게 작성해나갔다.

오후에는 최건아 교수님과 함께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책의 각 챕터를 조원들이 하나씩 맡아 토의하였다. 챕터마다 각 조원들의 다양한 논점들을 공유하였고 마지막에는 20대의 자기계발이 취업을 위한것인지 자아실현을 위한것인지에 각자의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시간에는 김경민 연구원님과 함께 자화상 그리기 시간을 가졌다. 김경민 연구원님의 설명을 듣고 각자가 자신의 얼굴을 그려나갔다.

학습 및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

서지은 강사님의 강연을 듣기 전 나는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강연을 들으면서 계획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다보니 내가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세세히 설명해주셨다. 앞으로는 강사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계획을 다시 짜서 실천해보고싶다.

최건아 교수님과 함께한 토의 수업에서 조원들과 토의를 하며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의 주제에도 정말 많은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 느낄 수 있었다.

김경민 연구원님과 자화상그리기를 하며 나는 터치펜이 아닌 손으로 해야해서 불편했는데 옆에 친구가 도와줘서 잘 끝마칠 수 있었고 이것을 계기로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있어서 좋았다.

더 알고보고 싶은 것

서지은 강사님하고 한 시간계획강의가 너무 유익했고 재미있었다. 기회가 된다면 서지은 강사님을 직접 뵙고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다.

<우리는 차별을 찬성합니다> 책 앞에 나온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 내가 지금 4학년 취업준비생이다보니 이 논점에 대한 해결책 같은 것을 더 알고보고 싶다. 김경민 연구원님 덕분에 좋은 그리기 어플을 알게되었다. 앞으로 혼자서도 이 어플로 그림을 그려보고싶다.

다음 학습 및 활동 계획

<Break your stereotype>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민선 강사님의 강연 듣기
최건아 교수님과 함께 <남자다움이 만드는 이상한 거리감>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기



청주대학교

1학기 10주차 학습후기

성명 : 조배성
학과 : 신문방송학과
(17학번)

이번주 학습 및 활동 내용

오전교시에는 최종연 변호사님과 함께 인권과 노동 그리고 법에 대한 학습을, 오후 수업에서는 김성일 교수님과 함께 ‘죄와 벌’ 그리고 시선과 관련된 판옵티콘, 인정욕구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히 오전교시에서는 화상 수업으로 진행되어, 최종연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노동과 법에 대한 사례에 대해 사진과 함께 소개해 주셨고, 마지막 시간에 각자 질문하고 싶은 것을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후교시에서는 김성일 교수님과 함께 ‘시선은 권력이다’ 그리고 ‘죄와 벌’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가 생각하는 판옵티콘, 인정욕구, 죄와 벌의 내용을 발표토론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학습 및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

최종연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권리입니다. 강제로 일하지 않을 권리가 특히 기억에 남는데,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규정 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했던 적이 적지 않게 있다. 그때는 노동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일하기 바빴는데, 내 스스로의 권리를 내가 챙기지 않으면 과연 누가 챙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오후 교시는 나에게 조금 어려운 수업이었는데 책에 대한 생각의 정리가 부족했던 게 아닐까 싶다. 어려운 수업 중에서 인간은 사실 시선에 지배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현대는 감시의 사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알고보고 싶은 것

‘죄와 벌’ 책을 사실 일부만 발췌하여 읽고, 논문만 읽었는데, 이번 기회로 죄와벌을 완독하고 싶다. 등장인물 이름이 특히 러시아인이라 어렵고, 책의 두께가 두꺼워 쉽게 손이 가지 않은 책이었는데, 죄와 벌 그리고 자유의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담은 책인 것 같아서,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최종연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권리는 내 실생활에서 유용한 정도를 넘어서 필수적으로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들이었다. 그러한 권리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른 노동을 할 때 적용 시킬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학습 및 활동 계획

우선 ‘죄와 벌’ 책을 다 읽은 후, 여러 사람의 생각을 보고 들을 생각이다. 팟캐스트 중, 책을 소개시켜주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죄와 벌’에 대한 콘텐츠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한 콘텐츠 들을 하나씩 들을 후, 독후감을 작성하고 싶다. 또한 시선과 권력에 관해서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난 후에 다시 교수님이 주신 논문을 읽어보고 싶다.



청주대학교

1학기 11주차 학습후기

성명 : 조성준
학과 : 전자공학과
(14학번)

이번주 학습 및 활동 내용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에도 기꺼이 도전하는 반면,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저 머무르려는 사람도 있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실패를 딛고 올라서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를 겪으면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걸까? 20세기 초 파리에 거주했던 프랑스인 지네가 IQ 테스트를 고안한 이유는, 공립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지적 능력에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교육과 연습으로 지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자질이 돌에 새겨진 듯 불변한다는 믿음, 즉 '고정 마인드 셋'은 스스로를 계속해서 증명해 보일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상황이 곧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나는 성공할까? 실패할까? 현명해 보일까, 바보같이 보일까?' '성장 마인드 셋'은 당신이 현재 가진 자질이 단지 성장을 위한 출발점일 뿐이며, 노력이나 전략, 또는 타인의 도움을 통해 얼마든지 길러낼 수 있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결과가 실패하더라도, 자신을 새로운 경험에 내던지고 버티려는 열정이 성장 마인드 셋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정 마인드 셋에서 노력이란 결점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어떤 결점도 없는 사람, 재능을 타고난 천재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없을 게 많습니다. 노력은 자칫 그 사람의 역량을 갉아먹을 수 있는 위험한 것입니다. 고정 마인드 셋을 가진 리더들은 아무리 세계를 돌아다니며 유명 인사들을 만나더라도 좁고 한정된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항상 "나를 입증해야 해!"라는 한 가지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 및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

마인드 셋이라는 단어, 듣는 순간 뭔가 맘에 들었다. 이 책에서 고정 마인드 셋을 가진 사람과 성장 마인드 셋을 가진 사람의 차이점이 나오는데 고정 마인드 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은 이미 정해져 있고 자신은 그걸 증명만 하면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 반면 성장 마인드 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현재 능력 수준을 알고 이것은 점차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이다. 최근에 1만 시간의 재발견을 본 뒤에 이 책을 봐서 그런지 타고났다는 개념은 어쩌면 그 분야에서 성공한 한 사람에게 붙는 칭호라고 생각했다. 어느 분야에 있던 그 분야의 일인자는 한 명이고 결국은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은 배제한 채 유전적으로 타고났다는 식으로 간주해 버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마인드 셋을 살짝 보니, 모든 사람은 평범한데 마인드 셋이 나중에 격차가 엄청 벌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다. 흔히 '도전해라', '치열하게 살아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라'같은 말을 많이 듣게 된다. 이 같은 말을 고정 마인드 셋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으레 하는 말이라 여기고 자신은 저렇게 살아도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 셋을 가진 사람은 저 말을 아주 잘 이해할뿐더러, 자신은 앞으로도 장래가 창창하고 노력을 하면 뭐든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청주대학교

1학기 11주차 학습후기

성명 : 조성준
학과 : 전자공학과
(14학번)

더 알고보고 싶은 것

마인드셋이란 마음의 틀, 사고의 틀, 또는 사고구조 즉, ‘마음의 틀’이라 번역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의 행동, 관점, 그리고 정신적 태도를 결정하는 신념이나 사고방식에 가깝다. 캐롤 드웁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똑같은 재능이라도 각자가 가진 마인드셋에 의해서 개개인의 성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마인드셋은 성과이론에 하나로서 언급되는 동시에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인간의 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마인드셋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한 또 하나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릿(GRIT)의 저자인 안젤라 리 더 크웬스는 매우 긴 연구 끝에 이 마인드셋을 “열정”과 끈기’라는 용어로 정리했다. 그러면서 두 교수는 우리에게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이 있으며 이 둘은 학습방식에서 크게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노력하며 애쓰면 우리가 똑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어버리고 어려움이나 좌절을 대했을 때 피해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거나 쉽게 지쳐서 목표를 수정하기도 한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노력을 하나의 행위로 보고 이것이 자신을 똑똑해지게 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반응이 달라져 더욱더 많이 시도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행동을 강조하고 노력을 평가하기 이전에 나의 마인드셋을 점검해야 할듯싶다. 성장에 초점을 맞춘 마인드셋의 변화로 행동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성장 마인드셋은 자신이 기울인 노력의 가치나 목적을 다르게 이해한다.

다음 학습 및 활동 계획

12주 차는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인간학으로서 역사를 조승래 교수님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4교시부터 6교시까지 완벽에 대한 반론을 김영균 교수님이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강의 전가타카라는 영화를 보고 난 후 딱 느껴지는 메시지 첫 번째로 자신이 꿈, 목표로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꾸준히 즐긴다면, 자신이 지능이 떨어지든, 열성이든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무엇을 시작하면 돌아올 생각 말고 전심전력을 다 해라 라는 메시지를 느꼈다. 즉 무엇을 하든 후회 없이 행동하라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메시지를 느꼈다. 그 외에도 느낀 점은 복합적이게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위 세 메시지가 느껴졌다. 고작 26살이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 책이나 영화를 보고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배운 지혜 혹은 철학인 것 같다고 느끼고 있다. 20대 초반까지는 지혜 같은 것은 필요 없고, 그냥 뭐든 일단 부딪히고 보자 마음이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시간은 한정돼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최근 1년간은 남는 시간에 여러 권의 서적과 영화를 보면서 나를 지혜나 철학을 쌓고 있다. 그리고 직접 내 삶에 그 지혜와 철학을 적용하고 싶어서 직접 글을 써 보고 있다. 단순히 명작이나 명서를 보고 느끼고 덮어버리면 그것은 자신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올바른 인성, 묵직한 행동력, 깊은 지혜, 자신만의 철학 및 신념, 자기 전공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한 넓은 상식을 가지고 싶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청주대학교

1학기 7주차 학습후기

성명 : 진세연
학과 : 광고홍보문화
콘텐츠전공
(18학번)

이번주 학습 및 활동 내용

이번 주에는 박보영 전문가님과 대립 토론에 대해 학습하였다. 먼저 토의와 토론의 차이점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토의는 과반수에 따라가는 결과를 말하고 토론은 규칙이 정해져 승/패가 갈리는 것이었다. 토론의 6가지 요건은 1.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2. 대항하는 두 팀을 나누어 3. 일정한 규칙에 따라 토론하고 4. 심문과정을 거치며 5. 토론이 끝나면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말로하는 게임이다. 6. 목적은 진리탐구, 의사결정, 문제해결이다. 그리고 10가지 규칙은 1. 입론은 찬성측이 먼저하고 2. 최종발언은 반대측이 먼저한다 3. 발언 순서를 지키고 4. 정해진 시간에 따라 진행된다. 5. 찬성과 반대 팀을 결정하는 것은 토스로 결정하며 6. 좌석은 찬성측이 사회자 오른쪽에 앉고 7. 인원수를 달리 한다 8. 승패를 결정하고 9. 토론자마다 역할이 부여되며 10. 진행은 사회자가 한단을 알게 되었다.

토론의 규칙과 종류도 다양한데 의회식 토론, WSDC 토론, 퍼블릭 포럼 토론, 교차조사항 토론, 칼 포퍼식 토론, 링컨-더글러스 토론이 있다. 이중 링컨-더글러스 토론이 제일 유명하다고 한다. 그리고 오후 수업에 우리는 실제 대립토론을 진행해보았다.

학습 및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

대립 토론을 실제로 경험하며 입론, 반론, 질문자, 최종 발언자 등의 역할이 각자 토론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되었다. 나의 경우 질문자2의 역할을 맡았는데 질문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 했던 반론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 평소 토론을 할때 주로 입론자의 역할을 맡아 정의를 내리는 역할을 하다 다른 역할을 해보니 어려운 점과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혹 팀에게 피해를 줄까 많은 걱정을 하였다. 비록 우리조는 패배하였지만 다른 역할을 해보고 다른 학우들이 준비해온 입장을 잘 들으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다음에 또 이런 토론의 시간을 갖게 된다면 더 나은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알고보고 싶은 것

타당성 있는 주장을 위해 준비하는 자료들을 어떻게 하면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보통 우리가 접할 수 있는건 인터넷이라 이 공간에서 타당한 근거자료를 만들기란 쉽지않은 것 같다. 다양한 사례를 알기 위해선 다양한 곳에서 정보를 얻어야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궁금하다.

다음 학습 및 활동 계획

다음주는 넋지라는 책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기대가 된다 열심히 임하고 싶다.



청주대학교

1학기 14주차 학습후기

성명 : 차지민
학과 : 신문방송한국문화전공
(18학번)

이번주 학습 및 활동 내용

7월 1일: 조원들과 청주 내수에 위치한 '운보의 집'을 탐방 했다. 운보의 집 안에 미술관이나 생가, 수석 공원 등을 살펴봄에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1차적으로 회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7월 3일: 1일에 탐방한 자료를 가지고 문제점을 분석,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하려면 어떤 방법들을 도입해야 할지, 개선 방안 등을 보고서와 ppt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습 및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

집 근처에 있는 문화시설이었지만 아주 어린 시절을 제외하면 직접 관람한 경험이 적은 곳이었다. 이번 탐방을 통해 예전에 비해 발전되었고 잘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조원들과 같이 관람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회의를 하며 운보의 집 이외에도 청주에 위치한 수 많은 문화시설, 문화재 등을 직접 찾아보고 싶었다. 이번 탐방을 통해 강의실 안에서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 뿐 아니라 밖에서 직접 찾아가보고 회의하면서도 얻어가는 것이 많을 수 있구나를 느꼈다.

더 알고보고 싶은 것

운보의 집 이외에도 청주나, 충북에 위치한 문화 시설들을 찾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유명한 장소가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시민, 도민들의 발길이 끊긴 곳을 찾아보고 기회가 된다면 직접 찾아가보고 싶다.

다음 학습 및 활동 계획

클럽 워크숍에 참여해서 다른 조 친구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워크숍에서 하는 활동들이 기대된다.



청주대학교

2학기 3주차 학습후기

성명 : 현인섭
학과 : 환경조경학과
(15학번)

이번주 학습 및 활동 내용

오전 수업은 dj캔디님의 '스테레오 타입 깨기' 강연을 들었다. 기존에 퍼져있는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시선을 벗어나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오후수업에서는 최건아교수님과 함께 책 '남자다움'이 만드는 이상한 거리감'에 대한 내용을 배웠다. 제목 그대로 기존의 남자다움과 가부장제의 문제점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문제점을 의식할 수 있었다.

학습 및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

오전수업 '스테레오 타입 깨기'의 강사님이신 dj캔디님의 일생에서 겪은 차별과, 타인의 판단으로부터 느낀 압박과 상처에 대해 들었다. 캔디님은 우리에게 망설이지 말고 하고싶은 것을 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다. 아이의 엄마이지만 dj활동을 하고 노란머리를 하고 계신 모습에서 당당함과 자유로움이 느껴졌고, 스테레오 타입을 깨신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오후수업에서는 기존의 남자다움의 문제점을 새로이 배워볼 수 있었다. 현재에 와서는 가부장제나 남성권위적 성향들이 많이 사라져가고는 있다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구조적인 문제가 많고, 개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범하는 문제들도 많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내 어머니, 아내, 딸에게 좋은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기존의 가부장제와 남자다움을 재인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알고보고 싶은 것

기존의 남자다움, 스테레오타입 모두 기존 사회의 분위기, 통념에 편승하면서 벌어지는 문제들 같다. 사실 이렇게 새로운 사고의 필요성을 말하는 이도, 듣는 이도 언제나 새로운 사고, 비판적 사고로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피곤하고, 나의 일에 집중하기도 버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살려면 '나'의 시선이 필요한 것 같다는 것을 느꼈다. 한번 뿐인 삶에서 나의 생각인줄 알고 살아가는 것들이 실제로는 나의 생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나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그렇기에 앞으로는 나의 시선을 갈피 판단은 유보하는 연습을 해봐야겠다.

다음 학습 및 활동 계획

배운 내용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고 나의 생각을 정리해볼 예정이다. 가능하다면 조원들의 생각도 들어보고싶다.

배운 내용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다음 수업에 필요한 책을 다시 살펴보고, 진행될 수업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려 한다.





CLAP

학생에세이

人속에 IN하다

한 해를 마치며, CLAP 2기 친구들은 그동안의 경험과 성장,
다짐을 한 편의 에세이로 들려주었습니다.



2020년, CLAP 시대

경영학과 16학번 신진철



2020년 초,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가 찾아왔다.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시름시름 앓게 했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마땅히 학교에 가야 할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였으며, 이 같은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당장 나에게 일어나는 현실이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나는 올해 CLAP 2기에 참여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CLAP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CLAP이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쓸데 없는 걱정을 하였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1년간의 CLAP활동을 통해 내가 얻은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로 세상에는 정말 흥미로운 책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책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습관을 지니게 되었다. 정말 많은 책을 읽었지만, 특히 두 권의 책이 기억에 남는다. 하나는 ‘마인드셋’을 다룬 책이다. 나는 마인드셋이 고정관념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다룬 책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CLAP 수업에서는 긍정적 마인드셋이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데 대해 알려주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전보다 진취적으로 변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힘든 활동이나 공부를 할 때 ‘안 된다’는 생각을 전제로 두고 행동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나에게 긍정적 마인드셋이 필요한 경우가 언제인지에 대해 탐구하는 과정을 거치며 ‘나는 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덕분에 너무나 어려워 4번이나 떨어진 시험에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여 합격할 수 있었다. 또한 예전이라면 시도해 보지 않았을 영역의 자격증에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면 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의란 무엇인가’이다.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철학에 대해 다룬 책은 무겁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CLAP을 통해 그 생각이 바뀌었다. 철학 관련 책들이 무거운 주제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는 사실과 철학에 무지한 사람들도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책을 읽던 중 공리주의에 관해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내 생각을 교수님께 질문해보고 교수님이 답변해 주는 시간을 가지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철학에 조금씩 관심이 생겼다.



두 번째로 봉사활동이나 단체 활동을 통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었으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다. 처음 CLAP에서 만난 학우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인연을 맺은 지 6개월도 안 된 사이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처음 활동을 진행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서로를 어색해하고 의견을 주고받기 힘들어 해서 정확한 활동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다. 함께 회의를 하며 의견을 주고받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 결과 안 되리라 생각했던 재능나눔활동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나의 진취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2020년이 끝나가는 지금, 나는 CLAP 활동을 시작하며 하였던 수많은 걱정이 정말 쓸모없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느낀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해로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닌다. 2020년은 대학 생활 중 가장 바쁜 나날을 보냈던 해이자 나 자신이 많은 부분 변화할 수 있었던 해이다. 나는 꿈만 같은 대학 생활을 만들어 준 2020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무대

국어교육과 15학번 윤성원



‘CLAP은 여행이다.’라는 생각이 ‘CLAP이란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무대이다.’라고 변하기까지 어느덧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CLAP을 내면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여행지라고만 생각하

던 내가, CLAP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무대라고 생각하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이번에는 그동안 CLAP으로의 여행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채워나갔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글을 쓰는 것만큼 자신을 알아갈 수 좋은 방법이 있을까? 나는 CLAP 덕분에 태어나 처음으로 에세이를 쓰게 되었다. 지금까지 6편의 에세이를 써 오면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내용을 선택하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고민해 왔다. 그렇기에 내가 지난 1년간 CLAP 활동을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이 6편의 에세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에세이는 CLAP에 임하는 나의 각오를 주제로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하는지에 대해 쓰는 것이었다. “삶과 자신의 가치가 오직 성취에 달린 것은 아니다. (CLAP이) 타인의 인정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

은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주체적으로 나를 이끌지 못했던 첫 번째 여행을 반성하며 준비된 여행자로서 CLAP 활동을 기대해 본다.”

두 번째 에세이는 CLAP 선정 도서 중 한 권을 골라서 이 도서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쓰는 것이었다. 나는 캐럴 드웁의 『마인드셋』을 골랐다. “성장 마인드셋이냐 고정 마인드셋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나만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힘들었던 과거일지라도 현재와 이어질 수 있도록 ‘심표’를 찍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심표가 있다는 것은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 하기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여 마침표를 찍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에세이는 일상 속에서 ‘이타성’을 실천해 본 경험에 대해서 쓰는 것이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캘리 그라피’를 선물해 줄 때도 이것이 이타성의 실천이라는 것에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내 선물에는 ‘저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저 또한 당신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어려운 일이기도 해서, 그 일을 바라는 것이 내게는 너무 큰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주기도 했다. 내가 이렇게 자라올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많은 사람이 이타성을 실천해 왔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어 왔다는 것에 감사한다. 바로 이것

이 값 없이 주는, 값어치 있는 선물을 주고받게 되는 시작점이지 않을까?”

네 번째 에세이는 지난 학기의 CLAP 활동을 돌아보며, 2학기에 임하는 각오와 다짐, 올 한 해의 목표 등에 대해 쓰는 것이었다. “넓게 보자면 독서도 여행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나에게 있어서 ‘타인’인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것을 읽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학기에 매주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동료들과 나누면서 작가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더 깊숙이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라고 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님을 느끼게 되었다. ... 그리하여 ‘처음’보다 중요한 ‘두 번째’ 여행, 2학기의 클럽 여행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좋은 여행지를 여행하는 여행자의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일지 고민하며,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겠다. 그것이 삶의 주체적인 여행자로서 내가 가져야 할 태도일 테니까.”

다섯 번째 에세이는 CLAP에서 경험하거나 학습한 내용 중 나의 ‘이타성’ 또는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에 대해 쓰는 것이었다. 나는 지난 학기에 이어 ‘이타성’을 주제로 에세이를 썼다. “이 사랑의 빛을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줘야 할 것인가? 나는 CLAP을 통해 그 답을 찾은 것 같다. 스스로가 그 자체로 목적으로 살아갈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것. 주체로서 살아갈 것,

그리고 내 안을 비우고 사람들을 초청할 것, 그래서 남을 이해하는 여유를 가질 것. 나와 친하든지 처음 보는 사람 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빚진 것처럼 살아갈 것.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前轍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에세이는 지난 1년간 CLAP 활동을 통해 얼마나 성장하였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었던 구체적인 경험을 기술하는 것이었다. 나에게 CLAP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가왔는데, 이러한 것들 속에서 다시금 그 소중한 의미를 음미하게 한 것은 ‘글쓰기’였다. 그리고 이렇게 CLAP이 내 삶에 남긴 ‘수레바퀴 자국(前轍)’을 되짚어가면서 웃음 지으며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지난주 ‘CLAP 홍보 영상’을 제작할 때, ‘나에게 CLAP이란?’이라는 마지막 공통 질문에 나는 ‘CLAP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무대’라고 대답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일차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등식마다 그것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미지수 ‘x’는 다 다르다. CLAP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각자 한 명 한 명이 x라는 주인공, 그러니까 어떤 등식을 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주인공이라는 것이 아닐까?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각자만의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답게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 말이다.

이타적으로 살며 창의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실천하자

국어교육과 19학번 김상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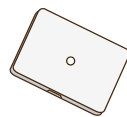
나는 CLAP에서 봉사활동의 기쁨과 집단지성에 대해 배웠다. CLAP에는 30시간의 의무 봉사 시간이 있다. 보통은 조별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데, 우리 조는 특별한 활동에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

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대학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농촌재능나눔활동이었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팀을 이뤄 참여하는 사업으로, 선발된 팀은 노인 복지서비스 확대,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확충, 교육이나 문화 증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전국의 농촌 지역에서 봉사하는 내용이었다. 우리 CLAP에서는 5, 6, 10조가 한팀이 되어 '소담'이라는 팀명으로 지원했다. 그리고 농촌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 봉사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국어 교사를 진로로 하는 나로서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다. 매주 책과 관련된 교육 내용과 활동을 고민하고 충분히 회의하였으며, 지속적인 수정을 거쳐 봉사할

동을 진행하였다.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능기부'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어느 지식 분야에 전문성이 있거나 박학다식한 사람만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학생들의 독서 지식 함양을 위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고 이를 직접 실행하면 그것이 곧 재능기부이자 이타적인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기획한다거나 그것을 직접 실행할 생각을 해 보지 못한 내 모습이 조금 후회되었다. 미래에 교사를 희망하는 데다가 학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도 지금까지 행동하지 않았던 나 자신에 대해 고민을 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해 봉사, 배려,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뜻깊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내가 배운 또 다른 하나는 '집단지성'의 힘이다. CLAP과 다른 수업의 가장 큰 차이는 수업 방식에 있다. 본래 이론 수업의 경우 교수자의 일방적인 개념 전달이 대부분이나, CLAP은 다른 어떤 강의보다도 조별 활동의 비율이 높았다. 조원들과 함께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른 조원들이 채워주고, 여러 아이디어가 합쳐져서 더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창의성도 발현된다.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던 생각이 조원들의 생각과 결합하여 더 창의적이고 색다른 발상을 할 수 있게 자극을 주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의 힘은 여러 분야의 강연자를 만나며 더욱 크게 자라났다. 한번은 클럽 강연자로 만화가 이해경 선생님께서 오셨다. 그분은 장애가 있으셨는데, 그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만화가로서 성공적인 삶을 꾸려나가고 계셨다. 순간적으로 내가 부끄러웠다. 나는 불편한 점이 없는데도 항상 나의 부족함보다는 사회나 다른 사람 탓을 해 왔던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나 자신의 부족함을 다른 외부의 문제로 돌리기 위한 핑계일 뿐이었다. 앞으로는 클럽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교사라는 꿈을 이룬다면 아이들에게 전인 교육의 중요성과 타인을 위해 봉사, 헌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교육하고 싶다.

이처럼 CLAP은 독서 기반의 활동을 통한 전인교육을 지향하는데 특히 이타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동안은 한국 교육 사회의 특성상 이러한 수업을 들을 수 없었는데 이런 좋은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 행복감을 느낀다. 나는 CLAP에서 많은 강연자가 강조한 것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삶을 도모할 것이며, 4차 산업 시대에 걸맞은 사고를 할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CLAP에서 배운 내용을 앞으로의 삶에 적용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배움을 청하며 본받을 만한 인물들의 생애와 걸음, 방향을 따라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 책을 많이 읽어 지식 함양에도 힘쓰고 비교과 활동 또한 내 삶의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참여할 것이다.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 준 CLAP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CLAP 2기로 지내온 1년

영어영문학전공 18학번 설유정



CLAP 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활동의 막바지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간 것 같다. 처음에 학과 교수님께 이 프로그램을 추천받았을 때는 매주 책을 읽어야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다시 찾아오진 않을 거라 생각해서 수업을 신청하고 면접을 본 후 합격까지 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초에는 부득이하게 학교에 가지 못해 집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었는데 교수님과 조교님, 연구원님께서 학생들을 위해 노력해주신 덕분에 중반부터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수료를 앞두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내가 CLAP 수업을 하면서 가장 성장했다고 느낀 점은 나의 주장을 피력하며 발표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발표할 때 떨리는 마음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기 초에 토론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나만 토론을 너무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감이 떨어졌다. 하지만 노력해 보겠다는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조별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보거나 토론 등의 상황에서 발표하는 등 열심히 노력했다. 한번은 조별로 탐방을 하러 가서, 그 장소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조는 성안길에 있는 중앙공원에 방문했는데, 그곳은 젊은 세대들을 위한 장소가 부족해 보였다. 그래서 버스킹이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그 이후, 이때 했던 조별 탐방 내용을 발표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발표했다. 이렇게 CLAP 수업에 갈 때마다 발표하고 질문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눈치도 덜 보게 되었다. 내 발표에 대한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고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할 때의 기분을 경험해보니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

CLAP 활동을 통해 얻은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좀 더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억에 남는 활동이 하나 있다. ‘넛지’라는 책을 읽은 후에 한 활동이었는데 제시된 두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정해서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는 것이었다. 그때 우리 조는 주제를 ‘어린이가 유치원에서 손을 잘 씻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생각들이 나왔다. 비누 안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은 피규어 같은 것을 넣어서 그 비누를 다 써야 장난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닥에 발바닥 모양을 붙여 화장실로 손을 씻으러 가게끔 이끄는 길을 만들자는 의견 등이었다. 이때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채워준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처럼

CLAP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의 생각도 들 수 있어서 좋았고, 그 의견을 통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요즘 ‘내가 만약 이런 활동들을 하지 않았다면 일 년이 지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CLAP 덕분에 다양한 과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친해 질 수 있었고, 뜻깊은 봉사도 해 보았으며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누군가 대학 생활 중 가장 의미 있게 보낸 학년을 꼽으라면 주저 없이 올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같은 조로 지낸 언니, 오빠, 동생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



CLAP, 두려움 너머의 세상과 손뼉을 치다.

사회복지전공 19학번 김형준



당신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 역시도 나눌 수 있다면

나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고, 슬픔과 우울을 이겨내는 중이었기 때문에 나의 나약한 모습이 남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두

려웠다.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나는 내향적인 나를 꼭꼭 숨기고, 외향적인 나로서 사람들과 마주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운 감정이 잔여물처럼 남아있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힘겨웠다. 나는 무엇이든 혼자서도 잘 해왔기 때문에 혼자가 편했고, 뒤따르는 쓸쓸함을 당연하듯 받아들였다.

그런 나였기에 CLAP 7조 조장으로서, 친구들을 이끌고 함께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눈앞이 캄캄했다. 친구들과의 소통이 어려워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할까 며칠 밤을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수님을 뵈러 갈 용기조차 부족했던 나는, 늘 그

랬듯이 꼭 참고 해 보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9조와 연합하여 멘토링 봉사활동을 함께하게 되었고, 나는 9명으로 구성된 팀의 장이 되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이 마음을 짓눌렀다.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색했다. 고독은 언제나 나를 따라다니며 외로움을 강요했다. 그러나 친구들의 배려와 도움을 밀어내는 뺨뺨어진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믿어주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운 마음이었지만, 그들이 주는 조건 없는 순수한 응원은 결국 내게 용기를 가져다주었다. 나는 그제야 친구들이 내민 손을 잡았고 그 덕분에 나를 눌러왔던 책임감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나 역시도 친구들을 믿고 그들에게 기꺼이 의지하다 보니 감정적으로 지치고 우울했던 문제와 멘토링을 이끌며 부딪혔던 문제 등 얹히고설킨 일들이 실타래를 풀듯 차근차근 풀려나갔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순조롭게 멘토링 봉사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팀장으로서의 생활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여러 가지의 개인적인 고난과 함께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겹겹이 쌓이다 보니 심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에 이르게 된 적도 있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혼자 모든 것을 삼킨 채 속을 썩이며 자학하고 있었을 테지만, 친구들에게서 받은 용기를



갖고 최건아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다. 나는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마음속의 깊은 고민들을 털어놓았고,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교수님께서 건네주신 위로와 격려가 담긴 애정 어린 손길은 넘어져 있던 나를 다시 일어나게 했다.

나는 친구들과 교수님께 받은 온정을 언제나 간직할 것이다. 내가 조건 없는 진정한 사랑을 받아 슬픔을 극복한 것처럼 나 또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리라고 다짐했다. 누군가 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언제나

고 묻는다면 나는 기꺼이 청주대학교 라이프아카데미 (CLAP)에 참여한 올해라고 답할 것이다. CLAP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에게 받은 감히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쁨과 사랑, 행복은 '홀로'를 자처하던 외톨이를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 외톨이가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행복 전도사로 무한한 성장을 하는 중이다. CLAP 활동을 함께한 사람들 덕분에 확신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나약하지 않다는 것. 나는 사랑받고 있었다는 것. 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레이저광정보공학과 15학번 남국현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CLAP 수업을 듣기 전 나는 어중간한 사람이었다. 대학교 4학년이지만 이론 것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다르게 보면 한심할 정도로 미래가 없었으며, 무엇인가

해 보려고 해도 딱히 하고 싶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우월감에 취해있는 사람 그게 바로 나였다. 하지만 CLAP 수업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과 추억을 쌓고 여러 시련들을 겪으며 성장했다. CLAP 수업을 듣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

성격의 변화

나는 CLAP 수업을 듣기 전 인성, 외모, 성적, 성과 등 모든 평가지표가 중간을 가리키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 CLAP을 소개해 준 친구가 CLAP에 참여하게 되면 생각의 관점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 해주었고, 그 한마디에 용기를 내 CLAP 지원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참여 후 조장이라는 임무를 맡게 되었고, 조장의 역할을 하면서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다. 소통의 문제 혹은 대화 방식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다.

나와 조원들은 학년으로는 2년 차이가 났지만 실제 나이로는 4살 차이가 났다. 그런데 그 차이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다가왔다. 조원들과 나는 생각하는 관점이나 아이디어, 열정의 정도, 말투, 예의라고 생각하는 행동 등이 전부 달랐다. 큰 벽을 만난 기분이었다.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30~40명 인원의 의견을 모으고 행사를 진행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겨우 4명과의 합이 맞지 않아서 처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 대면 미팅을 생각만큼 많이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 능률이 더 떨어지게 되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7조 조장 김형준 형이 정말 많은 의지가 되었다. 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신의 의견도 반영하여 조를 이끌어 가는 형의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아무 문제없이 모두와 소통하며 일을 진행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1년동안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된 존재였다. 그로 인해 내 생각과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을 가졌던 과거의 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으며, 남을 위해 희생하는 그의 태도를 배우고 실천했다.



환경의 변화

CLAP 수업을 수강하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전공 분야에서 특허까지 출원한 의미 있는 학생으로 성장했다. CLAP을 수강하기 전 그저 자신 없고, 할까 말까 망설이고, 모든 일에 내성적이었던 나는, 토론과 발표 위주로 이루어지는 CLAP 수업을 통해 내 의견을 말하고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학부 연구생으로 발탁되어 연구도 하며 특허도 출원하는 학생이 되었다.

CLAP을 마치며

이처럼 나는 1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CLAP 수업이 없었다면 혹은 최건아 교수님, 김형준 형과 같은 좋은 분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1년을 허무하게 보내고 하고 싶은 일도 찾지 못한 채 졸업하여 취업전선에 뛰어 들어갔을 것이다. 만약 이 글을 CLAP 3기 학생들이 본다면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고, CLAP 수업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들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

국어교육과 16학번 방은솔



나에게 2020년이란 대학 생활의 마지막 해, 코로나로 일상이 단조로웠던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며 매일을 보낸 해이다. 나는 CLAP을 통해 3가지의

선물을 받았다. 첫 번째는 다양한 책을 읽는 습관이다. 두 번째는 다양한 분야에 속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이다. 세 번째는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 기회이다.

먼저 CLAP은 나에게 다양한 책을 만날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CLAP에 참여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평소 관심 갖지 못했던 분야의 책들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었다. 여러 책을 읽다 보니

내가 막연히 어려우리라 생각했던 책들도 읽을 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매주 책을 읽

어가야 했기 때문에 하루에 다만 몇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어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일 수 있었다. 또한 책을 책장에 넣어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침대나 책상 근처에 두어 언제고 꺼내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즉 책을 내 근처에 가까이 두고 독서를 생활화하는 습관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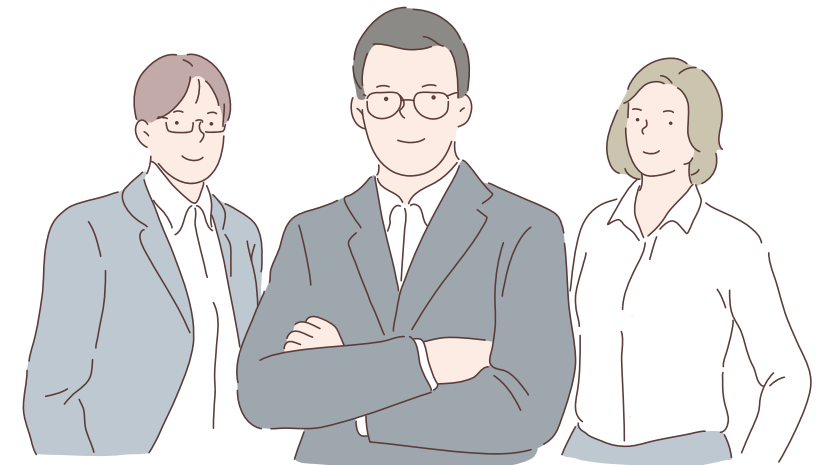
다음으로 나는 CLAP을 통해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학과 특성상 교내 동아리나 행사, 프로그램 등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학과 행사만 간간히 참여하며 대학 생활의 3/4을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타 학과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같은 학과 사람이라고 해봐야 학년이 달라 왕래가 적었던 사람만 있는 CLAP의 수업환경은 낯설기도 하고, 조금은 버겁기도 했다. 하지만 배정된 조원들과는 1년 동안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미리 친목을 다져놓지 않는다면 힘들 것 같았다. 그래서 조원들과 자주 소통하고, 크고 작은 수업에서의 토론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친분을 쌓았다. 덕분에 다양한 학과의 학우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그만큼 다양한 생각이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마지막은 팀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다. 우리 7, 9조는 크게 두 가지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하나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여 시

골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 친해질 기회가 없었던 CLAP 2기 학생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식사도 하며 친해질 수 있는 장을 만드는 프로젝트였다. PBL이나 실습수업 외에는 이렇게 학생들끼리 무언가를 구상하고 실현해 내는 수업을 찾기 힘든데 CLAP 덕분에 기회를 얻게 되었다. 게다가 두 프로젝트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다. 대학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될 것 같다.

나는 CLAP을 활동을 통해 여러 장르의 책을 접하고, 다양한 학과의 사람과 만나고 싶었다. 그 기대를 넘어, CLAP은 내게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 주었고, 친구들과

깊은 유대감을 갖게 해 주었다. 처음 CLAP에 지원할 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 같아 뿌듯하고 정말 보람차고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은 앞으로 내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작지만, 그 속에서 큰 의미를 만들어내자

신문방송학과 17학번 조배성



소담(小談). 작을 소, 이
야기 담. 작은 이야기라
는 뜻이며, 내가 속한 봉
사단의 이름이다. 의도
를 풀이하자면 ‘작지만,
그 속에서 큰 의미를 만
들어내자.’이다. CLAP
이라는 청주대학교 전
인교육 프로그램에 참

여하면 조원들과 같이 봉사시간을 30시간 이상 채워야
하는데, 내가 속했던 10조가 택한 봉사는 ‘농촌재능나눔’
이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다른 조(5조, 6조) 또한 ‘농
촌재능나눔’을 택했고, 우리는 세 조가 연합해 봉사단(소
담)을 꾸리기로 했다. 그렇게 4월부터 본격적으로 5, 6,
10조의 모임이 시작되었다. 그때는 ‘소담’이라는 이름도
없었고, 서로의 이름과 학과조차도 몰랐던 시기였다.

올해 초부터 기승을 부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 규
모도 줄어듦과 공동 관심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때였기에 서로의 말과 말, 행동과 행동 사이에 어색한 침
묵이 있었다. 그것을 깨기 위해 나와 조원들은 서로에 관
한 것들을 물으며 노력했고, 다른 조원들도 그것을 받아
주며 많이 애썼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서로 작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소담’이라는 작은 추억을
쌓아나갔다.

5~6월은, 세 조가 힘을 합쳐 처음으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 낸 시기였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지역을 선정하
는 일이었다. 대부분 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해, 봉사자를
받지 않던 시기였고, 15명이 머리를 맞대어 그나마 봉사가
가능한 센터를 추리고 추렸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옥산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봉사지역을 확정 짓는 것은 ‘소담’의 활동 앞에 놓였던 첫
번째 난관이었고, 합심하여 극복해 낸 첫 번째 난관이기도
했다. 그즈음부터 우리는 ‘CLAP을 같이 듣는 학생’ 그
리고 ‘나와는 다른 조’라는 수식어 대신, ‘소담이라는 이
름으로 함께 활동하는 동료’로 서로를 바라보았던 것 같
다.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소담’의 봉사활동은
그야말로 혼돈이었다. 아이들이 수업에 잘 따라주고 계
획된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처음
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는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
고, 수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만을 반복하는 아이들
을 마주하게 되었다.

봉사 첫날에 소담의 봉사단원들이 느낀 감정은 아마 절
망과 난처함, 그리고 어찌어찌 하루가 지났다는 보람이
섞인 그 무언가였을 것이다. 우리는 악몽 같았던 첫날을
겪고 바로 계획을 수정했다. 높은 수준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수업을 하자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A4 용지에 프린트된 작은 텍스트를 읽는 것이 아닌,
무언가를 직접 만들고 그리는 창의 활동이었고, 이후의
수정된 활동에서는 그런 활동을 추가했다. 아이들은 서
서히 소담의 수업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수업 중에도 활
발히 반응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이
제 더는 안 온다는 사실이 슬퍼 우는 아이도 여럿 있었다.

소담에서의 짧지만 뜻깊었던 시간은, 나에게도 여러 조
원과 합심하여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고민하고 또 고민
하며 ‘이타성’을 발현했던 시간이자 아이들을 위해 재미
있고 이해하기 쉬운 수업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
으로 ‘창의성’이 신장 되는 시간이었다.

소담의 봉사활동을 마무리한 지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제약이 있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여러 번 했
다. 심지어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을 다 뒤엎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순간도 있었다. 그런 어려운 시간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무사히 봉사활동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조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소담’이라는 이름처럼 각자의 작은 노력을 한 데 모아,
큰 결과를 만들어냈던 여름이었다. 이번 여름은 평생 기
억에 남을 것 같다.



또 한 번의 성장

영어영문학과 15학번 정민주



“우물 안 개구리” 드디어 우물 밖으로 나오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대학 생활 중, 올 한 해를 가장 뜻깊고 보람차게 보낸 것 같다. CLAP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매사에 소극적인

학생이었고, 대외활동 같은 다양한 경험도 즐기지 못했다. 하지만 CLAP 활동은 나에게 찾아온 좋은 기회였다. 다양한 전공의 타과 친구들과 어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하다 보니 소극적이었던 나의 성격은 적극적으로 변했고, 이제는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 무엇이든 열심히 참여하는 능동적인 학생이 되었다.

학과 교수님의 권유로 처음 CLAP을 신청했을 때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나의 이런 걱정과는 다르게 나는 CLAP 활동에 잘 적응했고, 일년 전과 비교해서 많이 성장했다. 평소에 잘 읽지도 않던 책을 많이 읽게 되었고, 그만큼 생각의 폭도 넓어졌다. CLAP 활동을 하며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자단 활동, 멘토링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유능한 강사님들의 강연을 들으며 그동안 몰랐던 정보와 지식도 채울 수 있었다.

이 중에서 나를 가장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경험은 ‘멘토링 봉사활동’이다. 처음 멘토링을 한다고 했을 때, 부족한 내가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활동을 시작했다. 내가 맡은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는 낯을 많이 가렸고 독서 활동에도 흥미가 없어 잘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다. 나는 이 아이가 독서 활동에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생각했고, 어렸을 때 나의 경험을 떠올렸다. 그리고 아이가 흥미 있어 하는 그림 그리기와 독서를 연계하며 멘토링을 시작했다.

아이도 나의 이런 노력을 알았는지 점점 마음을 열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소극적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지만,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눈에 띄게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마지막에는 가장 크게 성장한 멘티와 멘토로 활동을 끝마칠 수 있었다.

멘토링 봉사활동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치며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며 남들을 위한 이타심을 기를 수 있었고, 매주 CLAP 친구들과 멘토링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동심도 기를 수 있었다. 기쁜 마음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 내가 속한 봉사활동 팀은 수상 명단에도 오르게 되었다. 무언가를 바라고 한 활동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보건복지부장관상이라는 값진 보상을 받게 되어 행복했다. 만약 이 좋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우물 안 개구리처럼 생활하며 진부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곧 졸업하고, 또 다른 세상에 던져진다. 물론 사회생활은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테지만,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와도 지난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1년간 CLAP을 통한 성장과정

보건행정학과 18학번 오새임



나는 CLAP 활동을 통해 ‘도전하는 것’과 ‘꿈에 다가가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그것을 얻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성장하였는지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내가 노력해 온 것들을 1년이란 시

간으로 돌아볼 수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과 하지 못하는 일, 노력해야 하는 일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때 나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해온 것 중 가장 우선적인 것은 창업동아리 활동이었다. 나는 동아리를 하면서 창업센터와 CLAP을 오갔다. 동아리 회장의 역할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한쪽으로 모으는 일이나 역할을 분담하는 일 모두 어려웠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하려 했기 때 문이었다. 그 과정에서 결과물을 내려 애쓰다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던 일들을 아주 빠른 시간에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행동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게 된 것이다. 혼자라면 이루기 어려운 것들이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도전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다.

다음은 기자단을 통한 경험이다. 평소 사진 찍는 것이 취미였던 나는 처음에는 그냥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에 흥미를 느껴 기자단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일에 이제는 정말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어느덧 사진을 찍을 때 CLAP 친구들의 사랑스러운 표정을 사진 속에 담기 위해 애쓰고 있다. 기자단을 하면서 좋았던 두 번째는 기사를 쓰며 얻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기사를 쓰기 위해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수업의 내용을 정리했다. 그 덕분에 내가 수업에서 느꼈던 점을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수많은 강연자의 강연을 들으면서 나는 사회 각층에서 노력 중인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분들을 통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은 사고를 할 수 있었다. 각자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 다른 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나에게 삶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CLAP 수업을 통해 최건아 교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 작년 초, 나는 방황하는 소녀였다. 그 당시의 나는 삶의 의미와 목적, 방향을 잃고 어디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만난 최건아 교수님은 열정과 애정으로 학생들에게 다가와 준 유일한 교수님이었다. 나에게 빛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교수님께 말을 걸어보기로 다짐했다. 엄청난 용기를 내서 다가간 나는 생각지 못한 일을 하게 됐다. CLAP을 시작한 이후 매 순간이 나에게 도전이었고 꿈이었다. 교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내가 닮고 싶은 롤모델이라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바라던 어른의 모습을 하고 계셨던 교수님을 존경했다. 교수님은 나를 상담해 주시며 내 미래가 기대된다고 하셔서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 CLAP은 조금 힘들었지만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수업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다소 아쉬운 1년이었지만, 나에게 정말 많은 도전이 있었던 한해였다. CLAP 수업을 받으며 자존감을 키울 수 있었다.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싶다.



CLAP, 성장의 발판

중어중문학과 13학번 강원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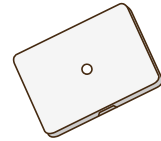


저는 CLAP을 통해 여러 가지 도전을 했습니다. 제 전공은 인문학 계열이지만 CLAP에서는 전공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은 경험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험은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주최한 국제개발협력 아카데미에 참여한 것입니다. CLAP이 강조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협력하는 공동학습의 가치를 되새기는 과정에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국제개발협력 아카데미에서는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내용과 실무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차마다 강의를 듣고, 그 주차의 수업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팀의 팀장을 맡아 수업 중 알게 된 여러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팀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의하여 보고서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보고서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팀원들의 생각이 달라 의견을 조율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팀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방법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역지사지'의 중요성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것들을 앞으로의 제 삶에 적용시킨다면 모든 일을 원활히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경험은 정부와 학교에서 공동으로 지원하는, 지역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 중 하나인 AI(인공지능) 교육과정에 참여한 것입니다. 얼마 전 CLAP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4차 산업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얼마나 역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강연이었습니다. 저는 그 강연을 통해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관심을 받는 분야 중 하나로 AI(인공지능)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몰랐더라면 AI(인공지능)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CLAP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 분야에 흥미를 느껴 다른 교육과정에도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과정은 총 6주 동안 매일 저녁



7시부터 4시간씩 이루어졌습니다. 학교 수업을 듣고 나서 또 다른 수업을 듣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온종일 수업을 듣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컴퓨터 언어의 종류 중 하나인 파이선이라는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책과 영상을 통해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지식을 습득하여 교육 마지막 주차에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모르는 분야에 처음 도전할 때 느꼈던 두려움을 극복함과 동시에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도전을 통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헤쳐나가는 사람, 그러한 도전을 발판삼아 한층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서술했던 두 가지 경험을 통해 CLAP 활동을 하며 변화한 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은 소통과 배려 그리고 포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깨닫게 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에도 CLAP에서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여 하루하루 성장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클럽 1년 생활

법학과 15학번 고현석



클럽 활동을 통한 나의 성장을 말하기에 앞서 클럽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클럽에서는 보통 독서를 바탕으로 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거의 매주 책을 읽고 토의나 토론

을 진행하는데 나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고 내 생각도 정리할 수 있다. 또 매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강연자들은 사회의 여러 이슈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루기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주기도 한다. 그 외 활동으로는 조별 프로젝트와 Team Activity 등이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조별 프로젝트와 Team Activity 시간이 가장 즐거웠다. 클럽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30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우리 조는 그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조와 연합하여 대학생 농촌재능봉사 활동에 지원했다. 나는 원래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고,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봉사활동의 특성상 낯선 환경과 사람에 지속해서 노출되기 마련이라 걱정을 많이 했다. 하지만 팀원들에게 누가 될 수 없어 최대한 열심히 참

여했다. 그 덕분에인지 우리 팀은 전국에서 몰려온 여러 팀 중 상위 5개 팀에 들어 농어촌자원개발원장상을 받았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고, 이 활동을 통하여 나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클럽 활동을 하면서 얻은 긍정적인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나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좋은 생각이 있더라도 그 의견을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런데 클럽에서는 친구들과 만나 상의해야 할 일이나 내 의견을 전달해야 할 일이 많아 나도 모르게 조금씩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한 번은 어떻게 하면 모든 구성원이 집중해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보고서를 써야 했다. 나는 어떠한 일을 할 때 항상 같은 사람(들)이 주도하면 그만이 활동을 잘 이해하고 다른 참여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매주 진행자를 바꿔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실제로 내가 진행자가 되어 운영을 해 본 결과, 나도 활동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내가 이해한 내용을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알려줌으로써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 낼 수 있었다. 클럽 활동을 통해서 나 또한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다.

또한 클럽에서는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는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데 클럽 활동을 하며 경영학과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를 얻었다. 전공 공부에 관한 조언도 얻을 수 있었고 협업도 진행할 수 있었다. 나 혼자 공부할 때는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니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클럽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들을 수 있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의 흥미를 찾거나 내가 잘 몰랐던 분야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나는 클럽에 들어 오기 전부터 회계학 강의를 들어보고 싶었지만 어려울 것이라는 부담이 느껴져 선뜻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클럽에서 회계학과 교수님과 장진원 부회장의 강연을 들으며 생각이 바뀌었다. 회계에 관한 내용을 비전공자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회계학과 전공 과목을 수강해 볼 생각이다. 이처럼 클럽을 통해서 나의 소극적인 태도가 바뀌었으며 계속해서 배우고 도전하려는 생각이 커진 것 같다.

나는 지금도 클럽을 친구들과 함께 교내 PBL을 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클럽의 가장 큰 장점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음으로써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점이다. 만약 자신이 실천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는 편이라면 클럽의 문을 노크했으면 좋겠다. 아마 나처럼 든든한 파트너를 얻을 수도 있고, 여러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을 수도 있을 것이다.



‘CLAP’을 통한 성찰과 성장

국어교육과 18학번 권민정



나에게 성장이란 이전보다 성숙한 존재로의 변화와 발전이다. 대학에 들어와 다양한 영역의 교양 수업을 들었고, 나와 맞든 맞지 않든 모든 수업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얼마 남지 않은 CLAP 수업은

이전에 경험한 어떤 교양 수업보다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나를 변화, 발전시켜 주었다. CLAP 수업에서 나의 성장은 ‘성찰’에서 출발한다.

CLAP 수업은 기존의 강의식 수업과는 다르게 진행된다. 수업의 기본은 조원들과의 의사소통과 발표력이다. 책을 읽고 주어진 문제에 대해 토의하는 과정은 논리적인 말하기 능력과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정리된 자료를 다른 조에 이야기할 때는 발표력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수업 시간에 토의와 발표가 진행되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하니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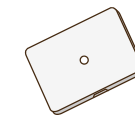
전공 수업이나 스터디에서 발표를 할 때는 청자가 소수인 데다가 나와 친한 친구들이라 긴장 없이 편한 마음으로 발표를 했다. 하지만 CLAP 수업에서는 실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발표 내용도 잊어버리고 말의 속도도 빨라져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하지 못했으며 긴장된 자세가 그대로 드러나곤 했다. 이런 경험을 하니 나에게 발표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발표할 때 어떤 부분들을 보강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 후 긴장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다른 조의 발표를 보고 좋았던 부분을 참고하며 연습하며 몇 번의 발표를 더 했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발표는 아니었지만 이전보다 실수가 줄고 자세가 부드러워지는 등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그다음으로 내가 성장했다고 느끼는 부분은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자세를 기른 것과 기존 인식의 확장이다. 인문, 사회, 예술, 미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사고의 폭이 넓어질 수 있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강연은 주종혁 교수님의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미래’이다.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다. 또한 발전하는 기술에 따라 예전과 달리 기업에서도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등 사회 환경의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추세라고 하셨다. 이는 고용 시장의 변화와도 연결되어,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수님께서 강연의 끝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은 당연히 막을 수 없는 흐름이기에 앞으로의 우리는 과학과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나의 전공이 ‘국어교육과’이기에 인공지능, 과학기술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강연을 듣고 좁게만 생각했던 부분을 반성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알게 되어 경각심이 생겼고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다양한 책을 읽어봐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CLAP 수업을 통해 부족했던 발표력과 알았던 지식을 보강하여 발전하여 성장했는데, 이 외에도 협동심, 이타심, 책임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또한 조원들과 프로젝트를 하면서 타인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다른 친구들에게 배워야 할 부분을 찾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으며 느리지만 조금씩 성장했다. 곧 CLAP의 한 해는 끝이 나지만 CLAP을 통해 배운 삶의 지혜와 태도를 기억하고 실천하여 나날이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반성의 시간

레이저광정보학과 15학번 권우성



CLAP에서 정말 많은 책을 읽었다. 평소라면 읽을 생각도 못했던 책들과 유명한 고전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나는 보통 책을 읽거나 구입을 하면 화제성이 있는 책, 베스트셀러나 관심사, 또는 전공관련 위주의 책을 찾아 읽곤 했다. 그렇게 편독하는 습관을 키웠다.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여러 분야의 책을 두루 읽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좋아하는 책만 읽어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나와 거리가 먼 책들을 애써 가까이하지 않았다. 잘 읽히지도 않을 뿐더러 인터넷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에 할애하는 시간과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CLAP 활동으로 인해 나의 독서생활은 크게 바뀌었다.

CLAP은 각 주마다 강연의 주제와 연관된 도서를 읽는다. 매주 강연의 주제가 달랐고, 매우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들었기 때문에 책 또한 다양하게 읽을 수 있었다. 학기 초에 읽었던 '자기 앞의 생'도 CLAP 이전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 정말 유명한 작품이었다. 또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은 내가 살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지나친 사실들과 계속 기억되어야 할 사건들을 다시 알려주었고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이처럼 CLAP이 아니었다면 읽지 않을 책들을 읽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책들을 외면해 온 것을 반성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예민한, 차별과 젠더 이슈를 다룬 '남자다움이 만드는 이상한 거리감',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말이 칼이 될 때'와 같은 책들을 읽으면서 내가 평소에 얼마나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었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차별, 편견, 혐오 등과 같은 주제를 마주하면 피하기만 했다. 그리고 이런 주제를 깊게 생각하는 것은 쓸데없이 힘만 낭비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에 읽은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은 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어떻게 혐오까지 이르게 되는지, 이런 혐오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려주었다. '혐오 표현'이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런 문제에 대



해서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은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인지, 미혼모 가정, 입양 가정, 다문화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왜 여성이 떠맡는지, 체벌을 왜 금지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주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분위기 속에서 나도 모르게 편견을 키우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차별에 관한 민감한 주제를 마주치면 더 피하려 했던 것 같다.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 자신이 부끄러워 반성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책을 읽을 때 나의 관심사 안에서 책을 읽으면서 자기계발을 했었다. 하지만 CLAP을 통해 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종류의 책을 읽을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알고 반성하며 나를 고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는 조금더 여러 방면의 책을 읽으려 노력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게 된 것

문헌정보학전공 19학번 김다솔



CLAP에서 여러 인상적인 강연자들을 많이 만났지만 유독 가슴에 오래 남는 분, 오래 기억되는 수업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2학기 5주차 수업에서 만화가 이해경 선생님을 모시고 장애와 예술, 인생 이야기를

들었다. 이해경 선생님은 소아마비 환자로 어릴 때부터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이다. 선생님은 장애인으로서 많은 불공정한 상황을 겪으셨는데, 비장애인은 이를 해결할 힘이 있었지만 장애인은 그럴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듣고 장애인들의 캄캄한 현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장애인 인권이나 복지에 큰 관심이 없던 시기였기에, 어디에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현실이 더욱 가혹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해경 선생님은 장애인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어 6주차 CLAP에서는 안지영 교수님께서 ‘노란 들판의 꿈’이라는 책과 함께 또다시 장애인 인권에 관해 이야기하셨다. 5주차에 만난 이해경 선생님은 매우 긍정적인 분이셨지만, 그렇지 못한, 그렇게 되기 어려운 장애인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다. 어떤 곳도 나가기 힘들고, 사회에서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가 장애인인 것 같았다.

교수님은 강연 후 토의 시간에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될까’라는 질문을 하셨다. 나는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바꿔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어린 시절 경험 때문이었다. 중학교 1학년 때 반에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었다. 겉모습으로는 여느 학생과 다르지 않았지만, 지적 장애를 안고 있는 친구였다. 그 친구를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아이가 왕따였던 이유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인데, 이때 반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비속어처럼 사용했다. 왕따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셨던 선생님들마저 단지 그 친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정하셨다. 어떤 선생님은 가을 소풍 때 그 아이를 조원으로 받아준 나와 내 친구들에게 ‘힘들었을 텐데, 같이 다녀줘서 고마워. 오후부터 이 친구는 선생님이라 같이 있을 거야. 너희 정말 착하다. 선생님이 맛있는 거라도 하나

사줄게.’라고 이야기하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에는 ‘장애인은 같이 다니기 불편한 존재, 비장애인이 같이 다녀줘야 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다. ‘장애인’이라는 단어 안에 내포된 의미들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만드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 의견에 한 조원은 ‘편견이 생겨버린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바꿨다고 생각해보자. 하지만 바뀐 그 단어에도 똑같은 편견이 생길 것이다. 그때마다 단어를 바꾸면 힘들지 않을까.’라고 반박했다. 이때 토론을 통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점, 인식의 변화가 이토록 어려운 과정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장애인 친구가 놀림을 받던 그 시절부터 벌써 6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여전히 장애인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다. 롯데마트의 한 직원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거부했고, 휠체어를 탄 어떤 장애인은 버스 승차를 거부당했다. 또한 장애인은 도서관 같은 공용 시설조차 이용하기 힘들다. 휠체어 이용자는 높은 곳에 있는 책을 꺼내기 힘들며, 청각장애인은 책을 들을 수 없고, 시각장애인은 책을 읽을 수 없다. 세상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깊이 들어가면 소외당하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은 것 같다. 나는 이것을 지금, 이 CLAP 수업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해경 선생님’의 인생과 도서 ‘노란 들판의 꿈’, ‘장애인’.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누군가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지금의 생각을 더욱 확장하며 실천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싶다.



배움과 실천의 사이에서

경영학전공 18학번 김동휘



저는 작년 이맘때 즈음 학과 교수님의 추천을 받고 청주대학교 라이프아카데미(CLAP) 2기 과정에 지원하여 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읽어야 하는 책들과 상대적으로 많은 강의 시간이 부담되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매시간 몰입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시간은 박재갑 한국 세포주 연구재단 이사장님께서 진행해 주신 ‘자리이타(自利利他)’ 강연입니다. 이사장님은 당신께서 살아오신 삶과 살아오며 깨달으신 황금률인 ‘자리이타(自利利他)’에 대해 알려주시며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가식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으며 예고이즘에 빠져들

뻘했습니다. 하지만 강연을 통해 부정적인 세계관에 나 자신을 스스로 가두어놓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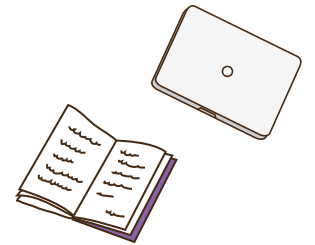
앞으로는 CLAP에서의 배움을 되새기며 타인을 배려하고 위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연말 분위기도 느낄 겸 구세군 자선냄비 자원봉사를 신청해서 활동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오래 서 있어야 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많은 사람을 만났고, 추운데 고생한다며 격려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자리이타(自利利他)에 걸맞은 보람찬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공식적인 CLAP 2기의 활동은 이제 끝이 났지만, 제가 CLAP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은 제 안에 남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CLAP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강연자들과 학우들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하며 내가 알고 있던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어쩌면 당연한 사실을 깨닫고 더 넓은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LAP에서 만난 정말 좋은 강연자분들과 동기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주신 연구원 선생님들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우리의 CLAP 3기도 좋은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올 한해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CLAP을 통한 극복 그리고 성장

사회과학부 19학번 김민기



저의 CLAP 활동에 대한 적극성은 충북 옥산지역아동센터에서 다른 조와 연합해 진행하였던 농촌재능나눔 활동 이후에 본격적으로 자라났습니다. 저는 저희 조인 6조 조원들과

는 친했지만, 다른 조의 친구들과는 교류가 적었고, 이 때문에 다른 조원들과 함께 하는 토론 등의 활동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사실 농촌재능나눔 활동도 저희 조가 아닌 다른 조와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워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확산하는 현재 상황으로 인해, CLAP을 이수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채워야 하는 30시간의 봉사활동을 홀로 찾기는 힘들 것 같아 수락했습니다.

물론 CLAP 활동을 하며 저의 소극적인 태도가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그 친구들과 오랜 기간 같은 목표를 위해 애써 본 적이 없어 겁이 났습니다. 특히나 다른 조원들 중에 소위 말하는 '인싸'가 많아 보이는 것도 부담이 가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다른 조 사람들을 저처럼 소심한 사람을 배척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왕따를 당한 안 좋은 경험이 있어 외부인이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때 겁부터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희미해지기는 했지만 가끔씩 튀어나오는 불안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을 만나 봉사활동 장소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의논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조에서 온 친구들은 전부 착하고 성실했으며 열정이 넘쳤습니다. 우리들은 함께 계획서를 작성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할 지역아동센터를 찾기 위해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의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가 더욱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친분은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봉사활동은 옥산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했는데, 선생님 역할을 한 조원들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활동에 임했습니다. 산만한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며 수업에 집중시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바깥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아이들은 수업 듣기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학생은 일부러 수업을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당황하여 우왕좌왕할 때마다 다른 조원들이 아이들을 통제해 주는 등 도움을 주어 수업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많은 일들을 함께 겪다 보니 보이지 않는 벽이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련의 일을 겪으며, '내가 어쩌면 정말 오만하고 한심한 벽을 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따돌린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적 기억에 사로잡혀 수많은 좋은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이지요. 하지만 CLAP을 통한 농촌재능나눔 봉사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인격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농촌재능나눔 봉사에 참가했던 5, 6, 10조 모든 조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CLAP 활동을 통해 성장했던 경험

경영학부 18학번 김보윤



지난 1년간 CLAP에서는 다양한 책을 주제로 강의, 토론 등 많은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 지식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CLAP의 취지가 다양하고 많은 책을 읽고, 그에 맞는 활

동을 함으로써 실제적 지식을 함양시키는 것이니, 저는 CLAP의 취지에 맞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과의 학우들과 함께하여 사교성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CLAP 활동을 통해 얻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 세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CLAP에는 주어진 책에 대해 학우들과 함께 토론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독서 토론 활동이 있습니다. 이 활동은 여러 면에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책을 주제로 진행한 토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유는 책에서 논의한 주 연령이 20대 대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의 신분이 학생이기에 책의 내용에 더욱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과 이 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저와 다른 시각을 가진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도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학과에서 모인 학우들과 활동하면서 전공에서 배울 수 없었던 지식을 몸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 CLAP이 비슷한 전공 출신의 학생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다면,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견이 한쪽으로만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CLAP에는 다양한 학과 출신의 사람들이 있어서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았고, 여러 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공유할 수 있어서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도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CLAP 활동을 통해 사교성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에 진행된 CLAP데이에 많은 학우와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조별 활동을 진행하며, 여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CLAP을 통해 뜻깊고 아무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1년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배운 것들을 사회 생활에서 적용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고 배움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2020.12.12

사회복지학과 17학번 김준표



2020년 12월 12일은 제가 군대를 전역한 지 1년이 된 날입니다. 2019년 12월 12일 군대를 전역한 저는 ‘2020년을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라는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

기 위해 학교에서 진행되는 여러 프로그램을 찾아보다가 토익 강좌와 함께 ‘CLAP’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아 같이 활동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권유해 보았지만 다른 친한 친구들은 아직 전역을 하지 못한 상태여서 아무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CLAP 면접을 준비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복학하는 것이라보니 함께 내용을 공유하고 조언을 얻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면접은 면접일 뿐, 혹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도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준비했으며 다행히 면접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CLAP 활동에 앞서 갑작스레 코로나 19 상황이 발발했습니다. ‘CLAP 활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운영진들의 엄청난 노력으로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는 책을 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었지만, 아르바이트 중에도 짬을 내어 조금씩 읽어가는 방식으로 책 읽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번에 CLAP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책을 읽는 방법이나 토론하는 방법,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강연이나 활동도 소중했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CLAP을 통해 만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친구들을 만남으로써 힘과 행복을 얻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속한 2조 조원들도 모두 좋았고, 팀 프로젝트 영상을 같이 제작한 8조 조원들과도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이 친구들 외에도 CLAP 수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학과의 친구들과 이야기 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 성장할 수 있었고, 친구들 또한 그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1학기말에 진행된 ‘소통의 날’ 행사와 여름방학에 진행된 CLAP데이에서는 1학기 중 대면 수업에 많이 나오지 못했던 몇몇 학우들의 얼굴을 처음으로 대면하였는데 인상이 다들 너무 좋았습니다. 이 날을 계기로 친한 친구들이 더욱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습니다. 발표 전에는 아주 많이 떨고 긴장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경험 덕분인지 저는 더 이상 발표가 두렵지 않게 되었고 2학기 활동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었습니다.

CLAP에서 얻은 소중한 인연과 값진 경험들을 되새기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배움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CLAP을 통한 나의 성장

항공기계공학전공 18학번 김채봉



재작년부터 클럽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지만 정작 아는 것은 없었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무언가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에 친구 없이 홀로 도전한 클럽 수업이었습니다. 각

오는 했지만, 금요일 수업 시간을 맞추기 위해 3학년 전공 수업을 4학년으로 미루기까지 하며 많은 걱정과 의심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인가? 가치가 있는 일인가? 후회하지 않을 일인가? 스스로 끊임없는 고민을 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덧 1년 동안의 클럽 활동이 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늘 주입식 교육을 받아 오던 저는 대학의 교육방식에서도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클럽을 통해 제대로 된 조별 활동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배움을 위한 공부를 경험하게 되었

습니다. 특히 사회적 문제를 더욱 깊이 알아보기 위한 강연이 주를 이루었는데 아동의 인권, 범죄자의 인권, 여성의 인권, 성 소수자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소수 인종의 인권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을 뿐 아니라, 초청된 전문가와 함께 조별로 토론을 하면서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서로의 견해를 들어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현장학습, 독서퀴즈, 자화상 그리기, 페이퍼 토이 만들기 등 공대생으로서 평소에 해보지 못한 영역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조금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내 안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접할 수 없는 경제, 문화, 음악 등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만약 공대로 진학하지 않고 다른 과로 진학했다면 어땠을까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기도 하였습니다. 또 평소에는 늘 같은 과 사람들만 만났는데 클럽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학우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가진 여러 장점을 배울 수 있었고, 학과별 특성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은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말이 칼이 될 때’를 읽고 함께 한 토론 수업이었습니다. 평소에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 보곤 했는데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특히 도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수많은 철학자가 정의하는 ‘정의’에 대해 배웠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들의 ‘정의’를 제가 생각하는 ‘정의’와 비교하며 성찰해보기도, 반대로 그들의 정의를 비판해보기도 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 자신이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이 칼이 될 때’를 다룬 수업에서는 제가 최근 들어 관심을 가졌던 ‘혐오’의 영역을 다루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몇 가지 의문점과 동의할 수 없었던 ‘혐오’의 정의가 있었는데 책의 저자가 강연자로 오셔서 직접 질의응답을 하면서 저의 궁금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혐오’의 영역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운 수업이었습니다.

클럽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책들,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견해를 배웠습니다. 또한 제가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아 사회에 공헌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며, 봉사활동을 통해 제 안의 이타심을 키우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생각의 나눔’

경영학과 16학번 김혜송



한 해의 마지막 달, 그동안의 CLAP 2기 활동을 떠올려봅니다. 힘겨운 코로나에도 서로 조심해가며 수행했던 많은 활동들이 떠오릅니다. 다양한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고, 조별 활동을 하던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과연 지난 1년간의 활동 속에서 저는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CLAP은 기본적으로 독서토론이 주를 이루는 활동입니다. 우리의 금요일은 항상 새로운 도서와 토론으로 채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활동이 부담스럽고 겁도 났습니다. 많은 친구들 앞에서 도서에 대한 내 생각을 발표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남자다움이 만드는 이상한 거리감’이라는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페미니즘’을 주제로 하여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을 발표했고 저 또한 ‘한국 사회에는 가부장적인 제도가 여전히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이것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평소 가진 생각을 발표하고 내려왔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자, 다른 조의 동료가 저에게 좋은 의견을 말해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제 덕분에 새로운 시각으로 페미니즘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사고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처럼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성장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을 발표하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공유하는 순간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CLAP 활동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가장 큰 성장입니다. 즉, 타인의 말을 듣고, 공감하고, 내 의견을 표현하는 매주의 활동들을 통해 ‘소통 능력의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 능력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해야 할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 중 하나이기 때문에, CLAP 활동을 통한 ‘소통 능력의 성장’이 저에게 중요한 ‘성장 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의 의견을 조리 있게 표현

하는 경험으로 ‘발표능력의 성장’도 함께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던 우리는 이처럼 내면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키워진 ‘스스로 생각하는 힘’과 ‘의사소통 능력’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스스로의 성장을 실현하는 내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역량을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게 뒷받침해 주며 진정한 교양 수업의 의미를 알게 해준 CLAP에 깊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타심, 또다른 나를 만나는 방법

신문방송학과 16학번 김희호



지난 1년간의 CLAP 활동을 통해 가장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에 기반한 이타심이다.

사실 그전에는 이타심이 없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내가 아닌 남

을 위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CLAP에서 대립 토론을 하며 내 의견만큼 남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지역탐방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되었으며, 나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더 좋은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의 내기 윷놀이 장소로 사용되는 중앙공원을 어떻게 하면 다양한 연령층이 어울려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

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활동의 목적과 내용은 모두 달랐지만, 내게는 이타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경험이었다.

특히, CLAP을 통해 만났던 책과 사람들은 매주 내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책을 통해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몰랐던 것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CLAP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은 책에서 얻은 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다. 또한 CLAP에서는 각계각층의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중 이해경 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님의 강연을 듣고 나서 장애인에 도움이 필요한 약자로만 생각했던 나의 태도를 반성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휠체어는 몸과 같다고 했다. 선심을 쓰듯 휠체어를 덩석 잡고 밀어주는 행위가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또 엄선희 변호사님의 강연이나, 『말이 칼이 될 때』를 읽으면서 내 생각보다 우리 주변의 약자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 나 또한 언젠가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때부터 나를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도 인식하게 된 것 같다. 또 범죄자의 가족들도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손가락질,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이 사회에 약자를 향한 폭력이 얼마나 만연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후로는 말하기 전에 내가 하는 말이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이 생겼다.

이처럼 CLAP에서는 대단한 위인이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틀에 박힌 조언이 아닌,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간 CLAP에서 보냈던 시간은 남에 대해 알아가고, 배우는 시간이었다. 김영균 교수님과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토론하는 시간에 교수님께서는 '정의란 정당한 불평등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각기 다른 개인이 모여서 살아가는 사회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란 없을 것이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CLAP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는 한 개인의 성장일 뿐 아니라 '나'라는 한 세계의 확장이다.



“안 될 줄 알았지.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야.”

광고홍보학과 16학번 나재원



올해 초 우리 클럽 1조 식구들과 맨 처음 같이 했던 활동은 코로나 상황에 맞는 봉사 아이디어를 주제로 한 공모전이었다. 우리 조는 줌으로 매주 2회 이상 회의를 거치며 코로나 시대에 맞는 봉사활동에 무

엇이 있을지 의논하고 서로의 생각에 더 좋은 의견을 더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각자의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날이 되었다. 그날은 ‘마인드 셋’ 수업을 듣던 날이었다.

조원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아이디어를 잘 제출했는지 물었다. 나는 “제출했습니다~” 라고 답변했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았다. 나는 이때 나의 자존감이 바닥인 것을 느꼈다. 나는 광고홍보학과 학생으로 우리 학과는 다른 학과에 비해 공모전에 자주 나간다. 나도 자주 나가기는 했지만 결과는 매번 망이었다. 작년에도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공모전에 도전했지만 좋지 않은 결과들이 이어졌다. 상황

이 반복되자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고 세상을 점점 빼앗아 가게 되었다. ‘이 정도론 안 돼. 이 정도 아이디어로는 턱도 없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이 내 몸속에 자리를 잡자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였다. 우리 팀원들이 낸 아이디어를 보며 너무 뻘하다고 생각했고, 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면서도 너무 뻘해서 상을 타지 못할 거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번 공모전을 나름 열심히 준비했다. 오랜 고민 끝에 구체적이고 꽤 괜찮은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팀원들은 내 아이디어를 보며 진심으로 좋다고 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속으로 ‘뭘 알아? 공모전 경험도 없으면서’라고 생각하며 그들 깔보고, ‘어차피 안 될 거 귀찮아’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아이디어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제출한 것처럼 조원들을 속였다.

며칠 지나서 공모전 결과가 나왔다. 우리 조원 중 2명이 장려상을 탔다. 그 순간 누군가 망치로 내 뒤통수를 세계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두 사람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다. 어느새 정든 우리 조원들의 상을 받다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혼란스러웠다. 나의 문제를 직면한 순간이었다. ‘나는 왜 해 보지도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나를 괜찮은 아이디어였는데 왜 제출하지 않았을까?’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한 끝에, ‘넌 어차피 안 돼’라며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나와 마주했다. 나는 나의 한계를 바로 단정하고 가능성의 문을 닫아 버린 것이다.

결과가 나오던 날, ‘마인드 셋’ 수업의 ‘고정 마인드 셋’ 개념이 나를 날카롭게 찔렀다. 나는 고정 마인드 셋을 가진 사람처럼 결과에만 집착했으며, 결과가 안 좋을 거란 생각이 들자 기껏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고 나는 이러한 마인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인드는 고칠 수 있고 나 자신은 변할 수 있다’라는 말을 마음 깊이 새기기로 했다. 그제야 태도가 성공을 좌우한다는 진로 지도 강사님의 말이 기억났다. 이 말을 교훈 삼아 앞으로 나 자신에게 한계를 두지 않기로 다짐했으며, 나의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1년간 CLAP 활동을 통해 느낀 CLAP의 진정한 역할

레이저광정보공학과 15학번 박건



1년간 CLAP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각기 다른 전공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조별 활동이나 토론을 하면서 생각하는 폭이 많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4년 동안 학교에 다니며 여러 수업을 들어 봤지만,

CLAP처럼 여러 전공을 가진 친구들과 활동하고 토론하는 수업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같은 전공이나 학부 친구들과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아서 의견을 주고받는다 고 해도 비슷한 생각이나 방향을 가진 것들이 많았다. 그래서 항상 틀에 박힌 생각만 하고 넓게 생각해 볼 기회가 부족했던 것 같다. 하지만 CLAP 활동을 하면서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친구들과 소통하며 나와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나와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비슷한 결론을 말하더라도 결과를 얻는 과정이 달라 배울 점이 많았다.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함께 결론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항상 정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또 결론이 같더라도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다양하기에 어떤 과정을 거쳐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지 고민해 보게 되었다.

CLAP 수업의 또 다른 강점은 매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강의를 듣고 나서 그 강의와 관계있는 사회적 쟁점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CLAP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CLAP에서는 학생들끼리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전문가들의 생각을 듣고 조언을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채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넓고 정확하며 심도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물론 CLAP 강연이나 CLAP에서 제공된 책으로 얻는 지식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정보나 지식은 내가 원한다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전공이 다른 친구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 전문가, 강연자와 함께 의견을 나누는 활동은 혼자서는 해보기 어려운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CLAP에 가장 감사한 부분은 여러 사람과 활동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주었다는 점이다. CLAP 활동을 통해 나는 생각하는 힘을 길렀다. 그리고 내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간다면 각기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CLAP 수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마주할 때 생길 수 있는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게 수 있었다. 이를 발판삼아 앞으로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남을 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준 CLAP에 감사를 표한다.



지난 1년간의 CLAP 활동을 돌아보며...

레이저광정보공학과 15학번 박찬호



지난 시간을 돌아보기에 앞서, 내가 왜 CLAP에 지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CLAP 1기를 경험한 친구의 추천도 있었고, 그들의 활동 사진을 보니 굉장히 재미있어 보여 나도 여러 학과의 친구들을 만나 함께 활동하며 대학 생활의 마지막을 재미있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던 것 같다.

CLAP 강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최근에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님과 함께 한 ‘한국 사회에서의 혐오’ 문제를 다룬 수업이다. 사전에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을 읽고 수업에 참여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처음 든 생각은 ‘이런 주제로 수업을 할 수 있을까?’였다. 요즘 우리 사회는 혐오의 문제가 심각하다. 새로운 사건들이 날마다 터지고 있고 사람 간에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했다.

수업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나치에 관한 것이었다. 나치에서 유대인을 학살한 것은 혐오가 혐오에서 끝나지 않고 폭력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는 이러한 사례들을 보고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나쳤을 사회적 이슈를 조사해 보고 현재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또 다른 수업은 엄선희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한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아동 인권 이야기’이다. 엄선희 변호사님은 공익변호사인데, 공익변호사란 영리적 성공과 성취를 목표로 하지 않고 공익적 성격의 사건을 주되게 수행하는 변호사이다. 이 수업을 들으면서 장애아동의 인권과 권리가 침해된 여러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회복지요원이 장애아동을 학대하고 담당 선생님들이 이를 방관한 사건이다. 인권이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만약 내가 저런 위치에 있고 인권이 침해되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알게 된다면 나는 과연 저렇게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솔직하게 말



하자면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나도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내가 직접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니다 보니 그냥 덮어두었던 것 같다. 다른 사람의 안녕이나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타인을 돕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에 그분들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졌다.

지금도 내가 그분들처럼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나의 이타심을 기를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으며, 이를 위해 내 주변에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곧 졸업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내 주위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

진 친구들이 많이 있다. 학교를 1년 동안 휴학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친구도 있으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이게 정말 맞나?’라는 것이다. 나 또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공감이 많이 된다. 그래서 친구들과 서로 조언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 나는 이런 작은 일도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이렇게 작은 일부터 시작하지만 계속해서 이타적인 행동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타인을 위해 목소리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에게 클랩이란

레이저광정보공학과 15학번 반석진



1년간 느낀 점과 변화
클랩 2기에 참여하면서 변한 내 모습 중 가장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은 이전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나의 태도이다. 이전에는 학과에서 실험할 때 조원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아

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 돕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 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 주는 소극적인 성격이었다. 하지만 클랩에 참여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소통하는 것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특히 대립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3기 모집 홍보를 위해 동영상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다른 조원들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활동을 주도하였다. 비록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실패하기도 했지만, 내 성격이 변한 것을 인지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클랩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 의견을 확실히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연

습할 것이다. 그리고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모든 일에 능동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좋았던 점

클랩 2기 활동 중 가장 좋았던 점은 독서를 한 후에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책 내용 중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리라 장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다양한 해석이 나와 놀란 기억이 있다. 나와 다른 생각을 나누고 함께 공감을 형성할 수 있어 아주 행복했다. 또 다 같이 국립현대미술관을 관람한 일과, 봉사 아이디어 공모전에 도전했던 일은 조원들끼리 결속력을 다지기에 너무 좋은 활동이었으며,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정도로 즐거웠다. 10월에 있었던 모임에서는 다른 조 친구들과도 가까워질 수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다른 조 사람들과 깊이 친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덕분에 어느 정도 해소되었던 것 같다.

아쉬웠던 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수업이나 여러 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클랩 친구들과 소통하고 친해질 기회가 많이 줄어 아쉬웠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여름 방학에 계획했던 클랩 데이가 1박 2일이 아닌 1일 과정

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며, 겨울방학에 있을 캠프 또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확진자 수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신 21년 여름에 모두가 다시 만날 기대를 해 보기로 했다.

클랩 3기에게 전하는 말

클랩에 참여하면 독서가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지 느낄 수 있다. 또한, 클랩은 타인을 배려하는 방법과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활동이다. 3기 친구들도 열심히 클랩 활동에 참여하여 전인교육의 효과를 느껴봤으면 좋겠다.



사피엔스를 읽으며

산업공학과 16학번 오시찬



1년간 CLAP 활동을 하면서 읽었던 책들 가운데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 책을 읽으며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이나 진화의 과정 등을 통찰하고, 현재의 나는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유발 하라리는 『호모 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등을 쓴 정말 유명한 작가다. 그중에서도 『사피엔스』는 출간 당시에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그가 이 책의 제목을 사피엔스라 지은 이유도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다. 평소 진화론, 인류학에 관심이 있었던 나에게 이 책은 제목만으로 충분히 흥미를 유발하였다.

유발 하라리는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스스로,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막대한 힘을 얻게 되었는가를 사유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유발 하라

리는 이 책을 통해서 인류의 조상이라 알려진 사피엔스가 걸어온 길을 보여주며 앞으로 인류가 나아갈 길을 예상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가 이 책에서 내세운 이론이나 주제는 여러 학자에게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책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유발 하라리는 인간의 역사를 세 가지의 혁명으로 구분하였다. 인지혁명과 농업혁명 그리고 과학혁명이다. 먼저 인지혁명은 7만 년 전에 발생하였다. 사피엔스들은 언어의 능력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들은 언어를 통해 많은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소통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많은 정보를 기억을 통하여 저장시켰다. 인지혁명 부분에서 작가는 사피엔스 말고도 다른 인간종이 존재했으며 그들 모두 인류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피엔스가 다른 인류들을 무참히 멸종시켰다고 설명한다. 현재의 인류를 형제살해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는 동시에 신선함을 느끼게 하였다.

다음으로 농업혁명은 약 12000여 년 전 시작되었다. 인간은 이전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버리고 농업을 시작하였는데, 이 책에서는 농업혁명을 역사상 최대 사기극이라고 얘기한다. 그들은 수렵 채집인의 행복한 삶을 버리고 힘들고 고된 농업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개개인은 더욱 힘든 삶게 되지만, 종 전체로 보았을 때는 개체 수가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이 말인 즉 그들의 희생으로 먼 후손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농업혁명은 행복을 맛간 사기극이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도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혁명은 과학혁명이다. 제국은 근대 후반부터 20세기를 통틀어 세계를 제패하며 전쟁을 하였던 유럽대륙의 국가들이다. 이러한 유럽 국가들이 강했던 이유는 근대 초기에 현대 과학과 자본주의를 통해 잠재력을 키웠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동양의 기술이 유럽을 압도하였다. 중국의 종이, 화약, 나침반의 발명은 유럽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자신들의 기술 수준과 무지를 인정하고 다른 곳에서 배우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이를 역전시키고 엄청난 격차를 만들었다. 많은 힘없는 나라들이 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식민 지배를 받았던 뼈아픈 과거를 겪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에 전 세계가 놀라워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았던 나라는 현재 가장 앞선 기술력으로 경쟁하고 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역사는 우리의 종말에 대해 아직 결정 내리지 않았으며, 일련의 우연

들은 우리를 어느 쪽으로도 굴러가게 만들 수 있다. 사피엔스는 수만 년의 진화과정을 통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그 발전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유발 하라리는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함을 설명한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의문점을 느꼈는데 일정 부분은 CLAP 강연을 통해 해결하게 되었고, 부족한 부분은 따로 자료를 찾아가며 알아보았다. 지루함 없이 주제에 집중할 수 있었던 책이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다. 유발 하라리가 독자들에게 하는 질문인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가 아닌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는, 성장한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Clap, 말하다 듣다 쓰다

융합실무법학전공 19학번 우다현



일 년간의 clap 활동을 되돌아보며, 활동 내용과 나의 성장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을 생각하다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과목 중 ‘말하기 듣기 쓰기’가 생각났다. 나는 clap 수업을 통해 설득하며 말

하는 법을 배웠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법을 배웠으며 즐기며 글을 쓰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말하다

나는 토론 워크숍 및 대립토론을 통해 나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말하는 법을 배웠다.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토론은 사실상 토의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대학에 진학해서는 토론대회나 토론 모임에 참가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토론을 경험할 수 없었기에 어떻게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대립토론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토론 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토론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진행되는 대립토론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하기를 배웠고 더 나아가 내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말하는 것을 무서워했던 내가 말하는 것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듣다

나는 클럽의 모듈 시간을 통해 듣는 법을 배웠다. 한 권의 책을 읽는데 저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참 신기하다. 특히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를 읽고 jigsaw 토론을 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20대의 자기계발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며 경청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경청의 중요성이 대화의 기술이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다. 더불어 매주 진행되는 명강사의 특강을 들으며 나의 삶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학기마다 진행되는 조별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내 생각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쓰다

글을 쓰는 것은 참 따분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매 학기 2번씩 제출하는 에세이를 통해 글쓰기를 자주 접하게 되었고 이후 글 쓰는 것에 친숙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글쓰기의 즐거움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글쓰기를 통해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CLAP을 마무리하며...

미디어콘텐츠학부 19학번 우지수



CLAP 2기에 뽑히고 많은 기대를 하며 새 학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Zoom'이라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처음으로 CLAP 조원들을 만나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

지만, 우리는 환경에 맞춰 최선을 다해 활동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독서 후에 드는 여러 의문점에 대한 답을 찾았다. 또한, 조원들과 매주 토론하고 생각을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함께 하는 프로젝트들도 점진적으로 수행하였다.

조별 활동은 각자 다른 인격을 가진 5명의 사람들이 모여 한가지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단체 활동이었기에, 이타성은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우리는 CLAP 첫 번째 수업의 주제였던 '진정한 이타심'을 배웠다.

2학기 강연 중 '휠체어에서도 꿈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강연이 있었다. 장애를 갖고 계신 이혜경 만화가 선생님에게 장애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을 재정립할 수 있었던 날이었다.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배려나 봉사가 불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의 행동이 진정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모든 것의 의미를 기존과는 다른 입장과 시각에서 바라보며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나 자신의 터닝포인트이자 길잡이가 되어 준 '자기 관리를 완성하는 시간관리'라는 강연도 빼놓을 수 없는 CLAP 명강연 중 하나이다. 나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체계적인 표 작성법을 배울 기회를 주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많은 CLAP 학생들이 강연 방을 나가지 않고 활발히 질문했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CLAP에서의 모든 활동은 어느 정도의 창의성이 항상 요구되고 필요했던 것 같다. 특히 조원들과 공모전 준비를 할 때는 각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모여 빛을 발했다. 가장 그 사람다운, 누구보다 개인적인 생각들이 가장 창의적이고 제일 특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에 조원 개개인의 창의성은 언제나 소중했다. CLAP의 활동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11월, 동영상 제작을 위해 다른 조들과 협력하여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우리 스스로 동영상의 형식과 전체적인 그림,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어야 했기에 다시 한번 각자의 창의성을 불태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처럼 CLAP은 다른 사람의 창의성을 엿보며 배울 기회가 많았다. 그 모든 아이디어가 실현되면 우승은 항상 우리의 것! 창의성은 한마디로 가장 나다운 것, The most UNIQUE things 라고 표현하고 싶다.

광고홍보문화전공의 특성상 창의성과 아이디어는 개인에게 정말 중요한 요소이다. 요즘 나는 개그맨이나 개그우먼들의 개그를 보면서도 창의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어디를 가든 아이디어 싸움이 치열하다. 아마도 다양한 지식을 가진 사람의 창의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욱 풍부할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CLAP에서 배운 대로 책 읽는 습관을 들이고, 꾸준히 읽으며 지식을 채워 나갈 것이다. 지난 1년간 CLAP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코로나로 인해 활동에 제한이 있어서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 CLAP은 넓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게 해 주었고, 책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CLAP 수업이 나의 대학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되리라 생각한다. CLAP!



내적 성장을 도와준 1년간의 CLAP 활동

행정학과 15학번 우지영



지난 1년 동안 CLAP을 통해 내적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말하는 힘,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CLAP을 하는 동안 종종 소개나 발표 시간이

있었다. 이전까지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소개하는 일을 항상 어려워했다. 그러나 CLAP에서 다양한 전공과 나이대의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고 더는 그러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알아 온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서 소개하지도 못하는데 그 어떤 것에 대해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CLAP에서 진행하는 독서 토론이나 주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조금씩 성장했다. 조원들과 토론을 하면서 조리 있게 말하는 방법을 배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갖고 말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내가 하는 말에 자신이 없으면 말이 꼬이고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전달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이 비록 틀린 생각이어서 정정해야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일단 말할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이 토론 시간은 나에게 생각하는 힘도 기를 수 있게 해주었다. 요즘엔 애를 써서 학교의 토론 동아리나 외부의 토론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토론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친구들과의 토론은 괜히 어색해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면 그냥 회피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CLAP에서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니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내 의견도 피력할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이 내 의견과 일치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며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도 알게 되었다.

또한 CLAP이 독서를 통한 전인교육 프로그램인 만큼 다양한 책을 읽게 되었다. 누구나 알듯이 책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 가령 <이상한 정상 가족>이라는 책을 보면서 마냥 아이들을 좋아했던 내가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또 <이상한 정상 가족>이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책인 만큼 나의 전공인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저출산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고, 정부가 국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지도 고민해 보았다.

여러 명사들의 강연도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그중 ‘혐오’에 관련된 강연이 가장 인상 깊었다. 우리 사회에는 성차별, 인종차별, 성 소수자 차별, 장애인 차별 등 수많은 차별이 존재한다. 약자들의 반대편에 있는 세력은 그들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며 약자들에 대해 편견이 가득한, 잘못된 정보를 퍼 나른다. 흔히 떠도는 모든 정보를 수용했다가는 편협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CLAP 강연을 통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 객관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내 생각의 방향

도 올바르게 정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CLAP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거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어려운 상황임에도 충분히 다양한 경험을 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하다. CLAP은 내적으로 단단해지고 혜안을 기를 수 있게 해주는 수업이었다.



다짐을 돌아보며

국어교육과 18학번 원민지



무엇을 척도로 삼아 1년간의 성장을 판단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처음 CLAP에 들어오며 적었던 각오를 돌이켜 생각해보았다. CLAP에서 쓴 첫 에세이에 ‘여러 사람을 만나겠다.’,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사람이 되겠다.’, ‘내 생각을 분명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겠다.’ 같은 다짐들을 했었는데, 이 중 나는 얼마나 이루어 냈을까?

CLAP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매주 오전, 오후 강연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만날 수 있었고, 그 자리에는 다양한 학과에서 온 학우들이 함께했다. 덕분에 나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2학기에는 사회적 소수자, 혐오차별, 능력주의 등의 주제를 다룬 강연들이 이어졌는데, 나에게 아주 의미 있는 주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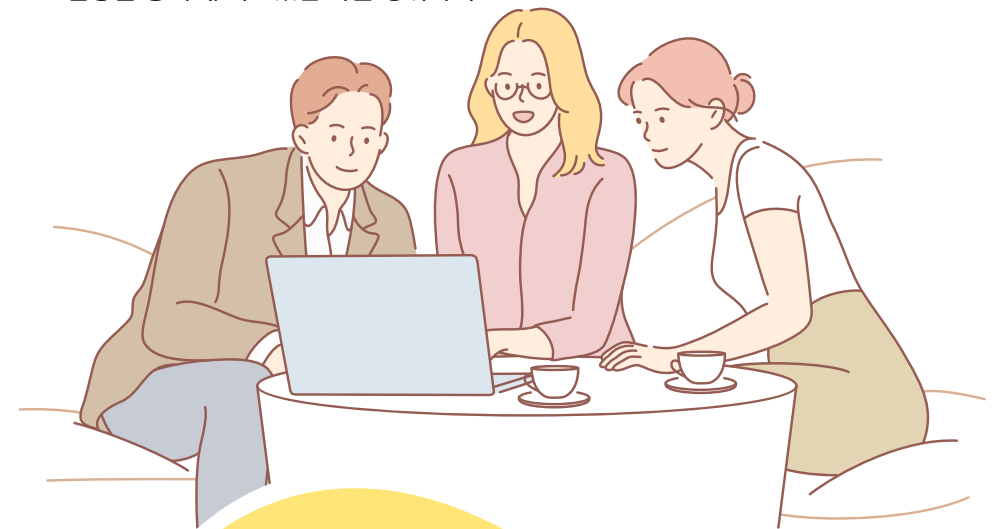
특히 교양학부 이수진 교수님과 함께 영화 ‘히든 피겨스’를 보고 진행했던 Module이 기억에 남는다. ‘히든 피겨스’는 미국과 러시아가 치열한 우주 개발 경쟁을 벌이던 시기에 NASA에 있던 세 명의 흑인 여성이 고난을 극복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영화이다. 영화

자체만으로도 정말 재미있었고, 벅찬 감동을 주었지만, 영화 감상 이후 영화에 등장하는 시련과 그 극복,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시련에 관해 이야기하는 활동이 더욱 좋았다. 그 활동은 나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나와 친구들은 한 사람이 마주하는 시련을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만 극복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았다. 결론은 ‘아니다.’였다. 우리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차별 없이 공정한 사회구조가 마련되어야 함을 배웠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우리는 개인에서 사회구조로 문제를 보는 시각을 확장했다. 이처럼 CLAP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가령 2학기에 진행된 다른 강연에서는 아동 인권, 장애인 차별, 가부장제의 폐해, 사회의 혐오차별 사례들을 제시하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 등을 생각해 보게 하였는데,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여러 친구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처지에서 생각해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도 생겼다. 가장 기억에 남는 발표는 ‘남자다움이 만드는 이상한 거리감’을 읽고 진행했던 토론에서 한 발표이다. 우리는 ‘초등학교 취학 이후 부모가 아닌 자녀 스스로 성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논제를 가지고 가부장제 극복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나는 최종 발언으로 “자녀 스스로 성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세대의 문제를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행위이며, 아동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동의 자율적인 선택이 어려우리라고 생각한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 배심원이 이 주장에 공감했다고 논평해주었고, 찬성 측 토론자도 좋은 의견이었다고 말해주어서 내 의견을 말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겼다. 또한, 하고자 했던 말을 한 뒤의 후련함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 경험이 내 의견을 자신감 있게 개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1년간의 CLAP 활동을 통해서, 목표했던 바를 성취하며



스스로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조원들을 비롯한 CLAP 사람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며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었다. 그 덕분에 나 또한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활동에 임할 수 있었다. CLAP에서 만난 인연들과 CLAP에서 배운 내용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회에 나가서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 힘쓰는 삶을 살고 싶다.

여름방학 봉사활동을 돌아보며

레이저광정보공학과 15학번 유승현



학기가 시작된 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기말고사 에세이를 쓰고 있으니 벌써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번 학기가 끝나면 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욱 크다. 1년을 마무리하는

에세이를 쓰려고 하니, 그동안 좀더 CLAP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걸 하는 생각도 든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특히 2학년 때에는 자격증 준비나 뭐니 하는 핑계를 대면서 생각만큼 충실히 못 한 것 같아 조금 후회스럽다. 그래도 1학기를 마치고 6, 10조 친구들과 방학 동안 9차례에 걸쳐서 진행했던 ‘농촌재능나눔기부’가 나를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나의 대학 생활에서 조별 활동이라고는 실험밖에 없었고 그조차 보고서는 개인이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조별로 활동할 일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여럿이 모여 계획을 짜고, 시행하고, 개선하고, 부딪치는 과정

들이 내 대학 생활을 통틀어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싶다.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조별 과제나 조별 활동에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기도 했다.

15명이라는 인원이 모여서 한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우선 나는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많은 조원과 고루 친해지는 것이 어려웠다. 그리고 일정 조정도 어려웠다. 각자 과도, 학년도 달랐으며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연락이 자연스럽지 않아 시간을 조정하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다. 그래서 매 회의에 모든 팀원이 모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결국 시간이 맞는 조원들끼리 그때그때 만나서 활동하는 식으로 진행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조장이었던 신진철 학우와 부조장이었던 김혜송 학우가 너무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러한 조별 활동을 통해서 조원들과 소통하면서 나에게만 편하고 좋은 방향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방향을 찾으며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다.

모든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 봉사를 마친 9월 4일에는 뿌듯함과 안도감, 성취감 등 여러 가지 감정이 한 번에 몰려왔다. 그전에 해 본 봉사는 기껏해야 쓰레기 줍기나 행사 보조 정도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직접 마주하고 소통하는 봉사는 처음이었다. 수많은 회의를 거듭하며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동안 팀원들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문제였다. 하지만 나의 의견이나 생각만을 관철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나도 한층 성장할 수 있었다. 이것을 통해서 봉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다.

이전에 다른 에세이를 쓸 때에 ‘봉사는 남을 돕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했었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서 봉사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오는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 경험한 시간이었다. 교수님께서 자신만의 학습을 중점적으로 행하는 학생보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어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발걸음 도전기

광고홍보문화콘텐츠전공 19학번 유윤지



지난 1년간 CLAP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갖고 좋은 추억을 쌓았다. 또한 지금까지 총 2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CLAP은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독서 기반의 토론, 팀별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지원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내가 올해 참여한 프로젝트는 약 4개월간 진행한 초등학생 멘토링 수업과 지난 10월 30일에 진행한 CLAP 학생 단합 모임이다.

이전의 나와는 다른 나

대학에 오기 전에도 멘토링을 경험할 기회가 있다. 중고등학생이 하는 초등학생 교육 봉사과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런 일을 해 보려고 시도한 적이 없었다. 그렇기에 멘토링

은 나에게 큰 도전이자 모험이었다.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들과 친해지고 싶었다. 또한 옆에서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싶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린 시절 나의 모습을 닮은 멘티이다. 그 아이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발표하는 것을 꺼렸으며, 낯을 많이 가리고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그리고 자신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자존감이 낮았다. 이런 모습이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고, 나는 그 학생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지금도 자신감이 부족해서 누가 시키지 않는 이상 선뜻 나서서 행동하지 않는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 생각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 인데 나중에는 '그냥 한번 도전해볼걸'하고 후회할 때가 많다. 나는 그 학생에게 행동하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작은 일에도 칭찬을 해줬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자신이 몰랐던 장점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꾸준히 칭찬해주니 멘티가 나에게 마음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전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주었다. 또한 멘토링이 끝날 무렵에는 자신이 어떤 것을 잘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신 있게 말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 학생을 통해 나 또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다음으로 CLAP 학생 단합 모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나는 CLAP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났지만 생각만큼 깊이 친해지지 못했다. 소극적인 성격 탓일 수도 있지만 조별로 제각각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미 무리를 이룬 사람들이 많았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다. 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CLAP 사람들과 친해질 좋은 기회가 생겼다.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CLAP 파티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나는 새롭게 구성된 조원들과 게임을 진행하고 서로 친분을 쌓으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이때 나는 나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다. 전에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말을 걸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먼저 말을 걸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서서 진행을 도와주었다. 그동안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레 겁먹고 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도전의 중요성을 느꼈다. 나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한 것은 수업 시간에 다양한 사람들과 토론이나 발표를 진행하며 많이 연습한 덕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CLAP 수업과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추억을 쌓았다. 또한 자신감 없고 낯가림이 심한 모습에서 벗어나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신 있게 말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제는 많은 사람 앞에서 떨지 않고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것 같다. 앞으로도 더 나은 모습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시간 관리와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운 1년

공예디자인학과 18학번 윤선아



저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부전공 수업을 듣고 청주대학교 소나무봉사단에 들어가 활동했으며, CLAP에서는 조장이자 기자단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창업 준비를 하고, 미국에서 열리는 큰 춤 대회에도 참가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일을 겪으며 점점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첫째로 시간 관리와 일정 스케줄링에 능해졌습니다. 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정을 잡아야 하는지, 급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일을 가려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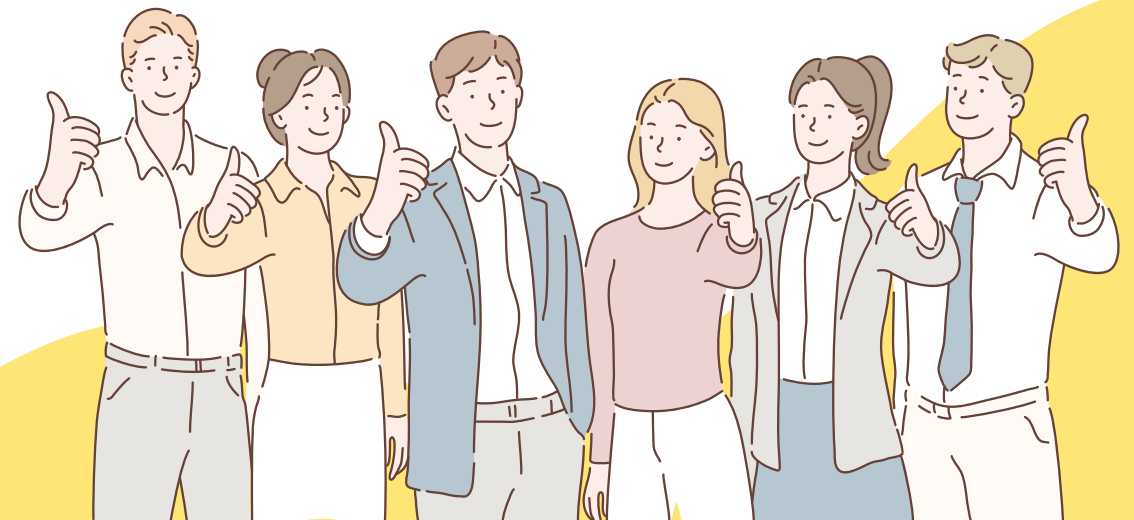
그다음으로 저는 사람 사이의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이 만나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로 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 이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며, 세 번째로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저는 CLAP 활동을 통해 이러한 세 가지 덕목을 모두 키울 수 있었습니다. CLAP에서 사람과 인간, 환경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듣고 관련 도서를 읽었으며 토론 등을 통해 사람의 본질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영향을 받는 환경에 대해 배움으로써 여러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생각의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CLAP에 조별 활동이나 단체 활동을 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이타심을 기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러진 능력들이 빛을 발한 것은 2020 ILHC.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최고규모의 린디합 대회에서였습니다. 정말 바쁜 시기에 수요일마다 서울을 올라가야 했기에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체력관리와 스케줄링이 필수였고,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대회인 만큼 의견충돌이나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CLAP에서 기른 능력을 통해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였고, 팀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결승까지 올라가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사실 출전한 부문이 연차나 등급에 따른 구분이 없어 좋은 성적을 얻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출전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CLAP의 전인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일을 잘 해결하고 성과가 점점 나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한 해 동안 제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성장하는 발걸음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감사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s to CLAP

무역학과 15학번 윤형균



아무런 준비 없이 대학교 생활을 하고, 졸업을 2년 앞두고 불안했던 3학년 때가 생각난다. 남들보다 늦은 복학을 하고 남들보다 늦었으니 더 많이, 빠르게,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

관념이 있던 나였다. 물론 그 압박관념이 처음에는 효과적이었다. 친구들과 동기들, 선배들은 조금 멀리하고 책상과 책, 노트북과 가까이했다. 결과적으로 3학년 1학기 1등, 2학기 2등이라는 좋은 성적을 얻는 것과 함께 전공 자격증도 2개나 취득했다. 1년 안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냈지만 내 마음속 한구석은 여전히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했다. 그리고 그러한 압박관념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대외 활동과 봉사 활동 등 자기소개서에 써 넣을 만한 활동들을 찾기 시작했다.

2019년 11월 말, CLAP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게시판을 보았다. 동기 중에 CLAP1기 수강생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적극 추천을 해주었다. 인성과 교양, 인문학과 독서 등 여러 가지 좋은 말들로 홍보를 하던 CLAP 2기는 나에게 자기소개서 1줄로 다가왔다. 그렇게 CLAP 2기에 지원한 것이다.

처음 수업은 정말 지루하고 재미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SNS에서나 보던 과제와 조별 활동, 독서 토론은 나에게 너무나 어색한 수업 방식이었다. 그 마음이 한순간에 뒤바뀐 것은 첫 대면 수업이었다.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다른 수강생들의 모습을 보고 승부욕도 생기고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어느새 수업에 집중하며 참여하는 나의 모습이 보였고 토론에 열렬히 참여하며 의견을 표출하는 내가 너무 신기했다. 많은 도서와 여러 강사님과 함께한 수업은 답답하고 꽉 막혀있던 나의 압박관념들을 조금씩 유연하게 바꿔주었다. 처음 함께했던 독서 토론의 주도서이자 마케팅을 공부하는 나에게 충격을 주었던 '넛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철학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했던 '정의란 무엇인가' 등 CLAP 2기와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나는 성장했다. CLAP의 기본 소양과 덕목인 '인성'과 '창의성' 부분에서도 내가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1학기 CLAP 활동을 통해서

는 나의 '이기심'과 '이타심'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고 2학기 CLAP 활동 통해서 나의 '창의성'에 대해 깨달음을 수 있었다.

CLAP을 통해 나는 확실하게 '성장'했다. 그저 자기소개서가 부족해 보이지 않기 위해, 남들보다 더 잘난 것처럼 보이기 위해 CLAP을 신청했지만 내가 CLAP으로부터 얻은 것은 자기소개서 1줄 그 이상의 깨달음이었다. 고작 자기소개서 1줄이 아닌 내 '인생이라는 책'에 10페이지가 넘는 성장 과정이었다. 항상 답답하고 부족하다고 느꼈던 나를 조금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준 CLAP 2기에 감사하며 이 글을 마친다.



CLAP이라는 전환점

산업공학과 16학번 이경섭



내 대학 생활 중 올해가 가장 바빴던 것 같다. CLAP 덕분에 다른 학과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생각이 공유되는 그룹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며 정말 다양하고 흥

미로운 수업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 ‘마인드셋’이라는 강연은 CLAP에서 잊지 못할 강연이 되었다. 이 수업이 나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인드셋이란 ‘사고방식, 태도’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크게 고정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2가지의 방식으로 나뉜다. 고난과 위험에 참여하지 않는 태도를 고정 마인드셋,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점을 찾는 태도를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수업 시간에 스탠포드대학 캐롤 드웁이라는 교수님의 테드 강연 영상을 잠시 시청했다. 이 강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진정한 자신감이란 열린 마음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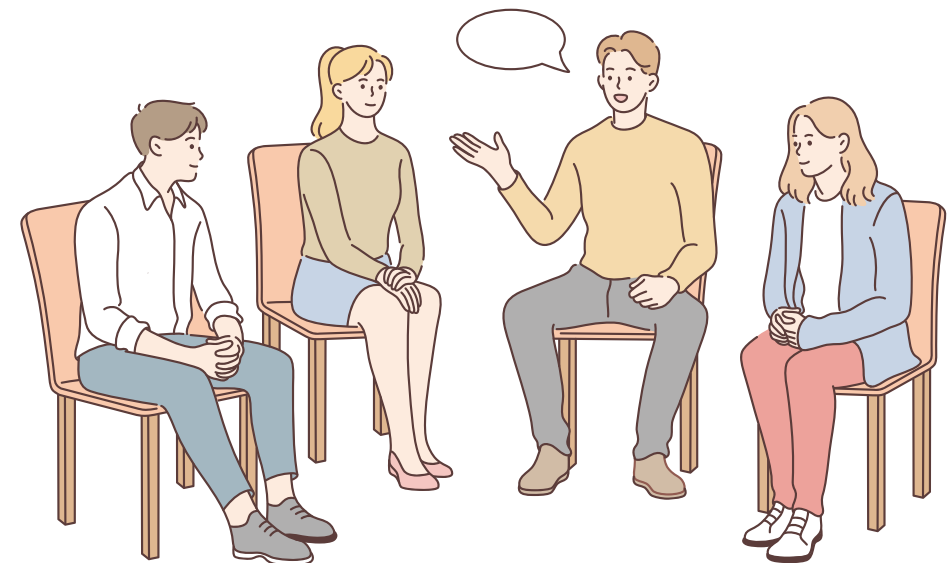
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할 수 있는 용기이다,’ ‘재능이 아닌 노력에 칭찬해라. 노력에 대한 칭찬은 자신감을 만든다. 자신감을 가진 학생들은 어려움이 닥쳐도 자존감을 더 잘 지켜낸다’로 정리할 수 있다. 과거에 나는 실패할 앞날을 두려워하며 기회가 와도 도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강연을 통해 ‘나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도전해야겠다,’ ‘눈 꼭 감고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인드셋 수업을 듣고 난 뒤, 우연히 에코브릿지라는 에코프로에서 지역 아동센터의 어린이들을 가르칠 봉사단원을 모집한다는 공문을 보게 되었다. CLAP의 봉사시간을 채울 겸 지원을 했는데 신청 인원이 생각보다 많아 서류에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았다. 나는 서류 심사를 통과해 면접까지 보게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러워 가만히 있었겠지만, CLAP 수업을 듣고 내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면접에 임했다. 그리고 면접관들의 질문에 손을 번쩍 들어 대답하였다. 면접이 끝나자 개운한 마음이 들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와서인지 후회가 남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자신감만 있다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결국 면접에 합격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을 직접 가르칠 수는 없었지만,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유했다. 과

학 키트 등을 택배 발송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상을 찍기도 했다. CLAP이라는 수업 덕분에 이처럼 나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자기주장이 없고 소심했던 나는 CLAP을 통해 많이 성장했다. 여러 사람과 서로 다른 생각을 주고받고 같이 활동하면서 생각의 범위도 넓어졌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능동적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계획한 것을 이루며 자신감도 찾을 수 있었다. 4학년에는 이곳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어딜 가서든 자신 있게 나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2020, 팬데믹 시기에 이루어낼 수 있는 성장

영어영문학과 19학번 이윤채



2020년은 여러모로 예측할 수 없는 한해였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의 사람들이 팬데믹을 겪으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상생활을 하게 되었다. 대학교는 물론이고 초, 중, 고등학교는 서로를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기업들은 자택 근무를 시작했으며 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유례 없는 불황을 겪는 한편 온라인 판매를 시행하는 업체들은 최대 호황을 맞보기도 했다.

이렇듯 팬데믹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나 또한 2020년에 이루고자 계획했던 일들을 전혀 시행하지 못했다. 작년까지는 학부 생활을 하였고 사실상 올해가 첫 학과 생활을 하는 해였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현장에서 전공 수업을 듣고 선배들에게 학과에 대한 여러 정보를 받는 등 기대하고 다짐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러나 에세이를 쓰기 위해 올해를 되짚어보니, CLAP으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로, 내 계획이 실행 불가능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빠르게 생각해내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이 부분에서 CLAP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른 많은 과목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제대로 된 수업 진행이 힘들었지만, CLAP은 수업의 특성상 계속해서 과제가 생겼고, 조 활동을 해야 했으며 책을 읽어야만 했다. 나는 계속해서 에세이를 썼고, 다른 조들과 연합하여 봉사 활동을 진행했으며, 지금은 PBL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CLAP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알아보고 진행해야 하며 촉박한 기간 내에 주어진 일을 차질 없이 끝내야 한다. 자칫 의욕을 잃고 나태해질 수 있는 시기에, CLAP은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게 재촉하여주는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해 주었는데 이것이 내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CLAP은 나의 책 편식 교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것은 내가 처음 CLAP에 지원하며 기대했던 효과이기도 해서, 이 부분을 고친 것이 나에게 큰 의미로 남는다. 나는 독서량이 꽤 많은 편이지만 흥미 위주의 독서만을 한다. 특히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든지, 『직각혁신』 같은 분야의 책에는 손이 잘 가지 않는다. 그러나 CLAP 과정 중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들이 있어 자주 보다 보니,



서점에 가서도 한 분야의 책만 읽지 않고, 여러 분야의 책을 고루 보게 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내가 자연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의 범위가 확장되었으므로 이것 또한 유의미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변경되는 계획과 일정을 받아들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무슨 일이든 중간에 갑작스레 변경된다든지, 명확한 이유 없이 진행할 수 없게 되거나 취소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나 지난 1년간 CLAP 활동을 하면서 함께 진행한 봉사활동이나 PBL 활동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진행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여러 제약사항, 준수사항들이 시시각각 쏟아졌다. 처음엔 나의 실수가 아닌 외부요인으로 인해 원하는 바를 제대

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웠고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다 보니 그러한 상황에 적응하게 된 것 같다. 언제든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니,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할 것 같다는 조금함과 속상함은 줄어들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의 기분이나 상황을 적절히 조율할 줄 알게 된 것 같다.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 나는 예상치 못한 뜻밖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지만, CLAP을 통해 의외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성장을 발판삼아 2021년에는 더욱 새로운 도약을 하고 싶다.

클랩을 회상하며

경제학과 15학번 이재훈



1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12월이 찾아왔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CLAP에서 했던 활동은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CLAP 활동 하나하나가 아주 즐거웠기에 여기

에 적고 싶은 것도 잔뜩이지만,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조별 탐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깊이 친해질 기회가 없었던 CLAP 친구들을 처음으로 대면할 수 있었고, 처음 만나는 조원과 새롭게 추억을 쌓으며 우정도 돈독히 다질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조별 탐방은 CLAP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기획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활동입니다. 저희 조는 다른 조들과 달리 조금 먼 지역을 탐방했습니다. 바로 대구인데요. 그곳에 가는 길마저 너무나 설레고 재미있었습니다. 우리는 대구의 낙후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그곳의 문제점을 찾기도 하고 진짜 대구 막창을 먹으며 친목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와 힘을 모아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CLAP에서 진행한 모든 활동이 소중하지만, 특히 조별 활동에 남다른 의미를 두는 이유는 낯을 많이 가려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하는 저에게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준 CLAP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원들과 함께한 추억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부 초청 강사님들의 좋은 강연들도 저에게 뜻깊은 시간으로 남습니다. 자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해 준 강연도 있었고, 과거의 역사와 인물들을 통해 현재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준 강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능력을 키우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신 강사님도 계셨습니다. 틀에 박힌 기존 교과 수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값진 수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 CLAP에서 활동하지 않고 어영부영 시간을 보냈다면 어땠을까?’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CLAP을 듣지 않고 보냈던 학기와 CLAP에 참여하여 여러 활동을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난 학기는 확연한 농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며 거의 처음으로 의미 있게 시간을 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CLAP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고, 여러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의 배움을 기억하며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자신감을 갖게 해 준 CLAP

경영학과 14학번 이정재



지난 1년간 CLAP 수업을 들으며 가장 좋았던 부분은 다양한 학과 사람들과 어울리며,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낯가림이 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말 걸기 어려워했었고, 다

른 사람이 다가와야 그나마 조금 친해지곤 했다. 하지만 CLAP 활동은 낯선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만들어주었다. 또한, 일방향 강의가 대부분인 다른 교과목들과 달리, 참여를 유도해 활동을 주도하게끔 하는 수업 방식이 특히 좋았다. 이러한 활동들은 내가 다른 곳에서도 의욕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모든 활동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었다.

1년 동안 참여했던 여러 가지 수업 중 기억에 남는 수업은 첫날 진행했던 토론 수업이었다. 처음 만난 사람들과 자료를 조사하고 대본

을 만드는 과정도 어려웠지만, 오랜만에 참여했던 토론은 특히 더 어려웠고 당황스럽기까지 했다. 이러한 과정을 부딪쳐 이겨내며 조원들과도 더욱 돈독해지고 소통 능력도 자라났다. 앞으로 만날 다양한 토론상황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난 것 같다.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은 새로운 조원들과 함께 떠났던 지역탐방이었다. 아직 친하지 않았던 조원들과 지역탐방을 하면서 함께 식사도 하고, 과제도 진행하며 친해지는 과정은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같이 지역 명소인 토성에 가서 자료조사를 진행하고 카페에서 보고서를 어떻게 쓸지 정했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 조원들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은 엄선희 변호사님의 인권 이야기였다. 이 수업은 차별과 인권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무척 참여하고 민감한 주제를 다뤄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에 남았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남녀갈등'에 관한 것이라던가, 각종 혐오 표현들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중 가장 의미 깊게 다가왔던 내용은 변호사님이 직접 참여 중인 범죄자 자녀 권익 보호 활동이었다. 변호사님은 범죄 가해자의 자녀들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잘하지 못할 정도로 차별 받으며, 심하게 고통받고 있다고 하셨다.

또 그들을 피해자와 엮어서 생각하지 말고 아예 따로, 개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도 하셨다.

하지만 나는 이 의견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고, 가해자나 가해자의 자녀를 도울 바에야 피해자의 가족을 돌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피해자의 가족을 돌볼 시간과 돈이 부족한데도 가해자를 돕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며,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연좌제'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며, 이런 편견과 부정적인 시각을 없애야 한다고도 생각한다. 변호사님은 이러한 입장이 지닌 문제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살인 용의자의 변호를 해보신 경험을 알려주셨다. 기회가 닿는다면 더 많은 질문을 드리며 강사님과 다시금 대화해 보고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CLAP 수업은 나에게 수많은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주었다. 처음엔 낯가림이 심해 적응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했지만, 토론, 만들기 활동, 조별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조원들과 친해졌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또한 책 읽는 습관을 들일 수 있었던 점도 좋았다. 예전에는 책을 주기적으로 읽지 않았지만, CLAP 활동 이후 적어도 1주일에 한 권의 책은 읽게 되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2박 3일의 여름 캠프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회가 된다면 겨울 캠프에 참여해 CLAP 활동을 새롭게 마무리하고 싶다.



넓어진 시야로 보는 세계

영어영문학과 19학번 이지은



1년간의 CLAP(청주대 라이프아카데미) 활동은 2020년, 스물한 살의 세계를 한 단계 넓혀주었다. 1학년 학부 생활을 마무리하던 시기의 나는 2학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학과 활동을 기대하며, 앞으

로의 대학 생활을 좀 더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운이 좋게도 교수님께 CLAP이라는 프로그램을 추천받았고, 이 기회를 통해 좀 더 가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다. 사실 교수님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해 듣고 지원하기까지 그다지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면접을 보고 나올 때까지도 합격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CLAP 2기로서 활동하게 되었고, 나의 다짐처럼 2020년을 바쁘고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들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1학년을 마치며 세웠던 계획들을 내 맘처럼 이루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호기롭게 시작했던 CLAP 2기 활동이었지만, 상황은 내 마음처럼 흘러주지 않았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방해했고, CLAP활동 또한 타격이 컸다. 내가 생각하던 CLAP활동의 강점은 학교생활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강사님들을 만나며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서로의 안전을 위해 거리를 넓히고 마스크를 쓰다보니 이전만큼 활발히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다. 조는 3월에 결성되었지만, 대면 만남에 원활히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어색함이 맴돌았다. 대면 수업에서는 비교적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졌지만, 비대면으로 진행된 강의의 경우 온전한 현장감을 느낄 수 없어 100%의 효과를 얻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다.

그러나 CLAP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아쉬움과 혼란스러움으로만 흘려보낼 수는 없었다. 1학기에는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해 어색했던 팀원들도 학기를 마무리하던 시기 다녔던 조별 지역탐방 활동과 CLAP 2기 소통의 날을 통해 친밀해질 수 있었다. 이후 우리는 서로의 어색함을 지워버리고 본격적으로 조별 활동에 대해 탐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 같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기 위해 청주 지역에서 진행되는 '에코프로 대학생 봉사단 에코 브리지 1기'에 함께 지원했으나, 아쉽게도 두 명만 활동에 합격하게 되어 2명, 3명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되었다. 다 같이 활동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쉬웠지만, 에코 브릿지 봉사단 활동이 조원들에게 값진 경험이 되리라 생각해 합격하지 못한 조원들은 합격한 조원들을 응원하며 다른 활동을 찾아보았다.

그러던 중 K-독도 공모전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이 활동 또한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 여겨 참여하기로 했다. 사실 나는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막막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었다. 그러나 공모전 경험에 있는 조원의 도움을 받으며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낸 결과, 우려와는 달리 그럴싸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공모전이 처음인 구성원들이 많았던 터라 조금은 미숙한 부분이 있었지만, 서로 힘을 모아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역할에 따라 각자 맡은 일을 해내며 결과물을 만들어 보니 '모두와 함께 이 활동을 해냈구나' 하는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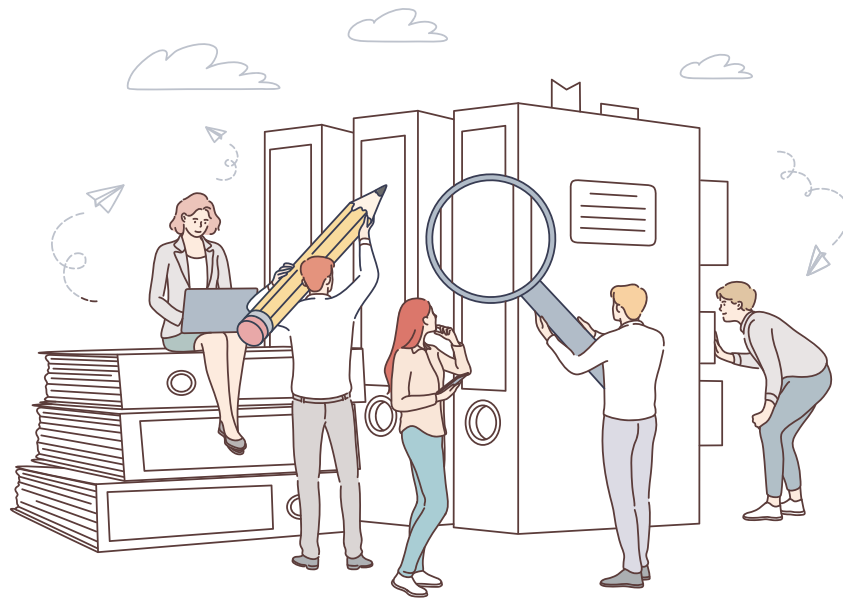
또한, 이번 활동을 계기로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선불리 가졌던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 떠오르며, '앞으로는 자신 있게 도전해 봐도 괜찮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원들과 함께 활동하는 시간에서도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지만, CLAP속 개인 활동 시간에도 많은 것을 배우고 얻을 수 있었다.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CLAP 수업은 다양한 전공 분야에 계시는 여러 강연자의 강연을 듣는 오전 시간과 각 주에 선정된 도서를 주제로 토론하는 오후 시간으로 나누어진다.

CLAP 2기로 활동하기 이전에도 독서나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거나 멀리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매년 다짐했던 독서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책을 읽더라도 관심사와 관련된 도서만 찾곤 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관심 있는 분야의 지식은 점점 쌓여가는데, 관심사 이외의 분야들은 '내 성향과 맞지 않아'라고 단정 짓고 피하게 되었다. 그때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CLAP 활동을 마무리하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런 나의 예전 행동들이 알게 모르게 나의 세계를 제한시켰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매주 다른 도서를 접하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강연자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학우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그동안 내가 겪고 접해온 세상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2학기 마지막이었던 ‘미래’를 테마로 한 수업에서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중 하나를 예로 들자면, 윤세웅 대표님의 ‘AI, 지금 우리는’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AI와 같은 공학 분야는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여겼는데, 대표님이 이야기해주신 원리와 AI를 통한 앞으로의 사회 동향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니 ‘AI는 생각보다 나의 삶에 가깝게 닿아있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새로운 장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받은 기분이었다.

1년간의 CLAP 활동은 내게 새로운 것에 접근할 수 있는 자신감과 확신을 심어주었고, 내가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해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독서 습관을 만들어 준 CLAP

영어영문학과 13학번 장일성



지난 3월, 그토록 기다리던 CLAP 수업이 시작되었다. 면접을 보고 합격해 수강하게 된 수업인 만큼 설렘과 기대도 컸지만 한 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매주 읽어야 하는 한 권의 도서’

가 그 이유였다. 평소에 ‘독서’와 거리가 멀었던 내가 한 달에 한 권도 아닌, 한 주에 한 권을 읽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렇게 적지 않은 부담감을 안고 시작한 첫 주, 예상대로 그 주 도서를 완독하지 못했다. 내용이 어려웠거나 책 분량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책을 읽는 것이 평소에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 권의 책을 하루에 소화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책을 다 읽기 위해 찾았던 방법은 책 한 권을 6일치 분량으로 나누어 읽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책이 120쪽이면 하루에 20쪽씩 나눠 읽는 것이다. 조금씩 나누어 읽으며 한 번에 다 읽으려고 할 때 가졌던 부담을 덜 수 있었고,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생각지 못한 단점이 있었다. 다음날 책을 읽으려고 하면 앞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 것이다. 나눠 읽는 방법은 ‘양의 부담’은 줄여주지만, 그것만으로는 효과적인 글 읽기가 될 수 없었다. 이 단점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나는 ‘내용 정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루에 분량을 나눠서 읽되, 그날 읽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는 것이었다.

이 방법 덕분에 나는 비로소 한 권의 책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며 완독하는 나만의 비법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 후로는 독서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어 한 주에 한 권의 책을 가뿐히 ‘완독’할 수 있게 되었다. 일 년 동안 대략 30권의 책을 읽었던 것 같은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마인드셋』이란 책이었다.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평소 독서와 거리를 두던 나에게 꾸준한 독서 습관을 만들어주고 ‘책 읽는 효과적인 방법’까지 터득하게 해준 CLAP 수업! 누군가 내게 1년간 CLAP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부분을 꼽으라 하면 주저 없이 ‘독서 활동’이라 말할 것이다.



2020년 CLAP 활동 기록

신문방송 한국문화전공 18학번 전소현



이 글을 쓰면서 2020년 CLAP 활동을 회상해 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CLAP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아무래도 평소에 듣지 못했던 여러 강연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혼자라면 읽어보지 못했을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을 수 있었기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취향대로 책을 골라 읽는 것이 아니라서 마이크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같은 선뜻 고르기 어려울 수 있는 책들도 이 수업을 계기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의 강연을 함께 들으면서 더욱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 지난 1년 동안 이전보다 지식의 폭을 훨씬 크게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CLAP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활동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여름방학 동안 저희 조, 그리고 다른 조 친구

들이 함께했던 ‘농촌재능나눔’ 활동입니다. 거의 여름방학 내내 봉사활동을 다녔는데, 집에 있고 싶고 나가기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늘어지지 않고 알차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독서 활동 프로그램 준비도 하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봉사활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봉사를 거듭할수록 힘든 것보다는 기분 좋은 경험들이 쌓였습니다. 봉사를 마무리할 때의 뿌듯함은 저를 더욱 행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활동은 그 친구들에게 제가 무언가를 해 주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저의 개인적인 사고가 변화하는 데 그 친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독서 활동과 관련된 봉사활동인 만큼 매주 책에 대한 어린 친구들의 소감을 많이 듣는데 저의 해석과는 다른 밝고 통통 튀는, 한 마디로 생생한 소감을 말하는 친구들을 보고 저의 고루한 생각을 반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며 방학을 보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CLAP을 통해 대단히 많은 일을 했고, 여러 가지를 배우며 지식도 쌓았습니다. 수많은 활동을 했는데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소중했고,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함께했던 모든 팀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 친구들 덕분에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CLAP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서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활동 중 받았던 책들이나 기억에 남는 강연을 다시 보면서 그동안에 배운 내용을 상기시키며 한 해를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바꾼 시간들

회계학전공 18학번 전소현



2020년의 12월이 모 두에게 다가왔다. 어느 해보다 빠르기도 했고, 나에게는 정신없이 바쁘기도 했던 시간이었다. 1, 2학년 때까지 무난히 학교에 다녔던 나에게 CLAP 1기 친구들은 CLAP이라는 교양을

추천해주었다.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나 귀찮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던 나였지만, 다음 해면 3학년이니, 이제는 새로운 것에 도전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에 오랜 고민 없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부담감 없이 면접을 보았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던 덕분인지, 다행히 CLAP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엄청난 기대를 품고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먼저, CLAP의 꽃은 독서가 아닌가 싶다. 독서를 기반으로 시작되는 모든 수업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 유의미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수업이면서, 여러 가지 교양 지식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분야의 책을 읽고 그것을 토대로 학우들과 서로의 이야기를 했던 시간은 가장 좋았던 부분 중 하나이다.

사실, 나는 친구나 지인 등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나의 의견을 포기하거나 대화를 중단하곤 했다. 나는 부딪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라,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보다 가만히 듣는 것이 더 편했다. 그런데 독서 토론을 진행하며 나의 의견을 말하고, 서로의 다른 의견을 듣는 일이 재미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한 것인지 듣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법도 배울 수 있었다. 처음에는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독서 토론을 진행할수록 조금씩 더 편안하게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강사님들의 강의를 통해 넓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전공자가 아니라면 접해 보지 못했거나 영영 알지 못했을 지식을 공유해주신 것이 가장 좋았다. 회계학과인 나는 '숫자로 이해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CLAP 안에는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모여 있지만, 회계학과는 나 혼자였다. 나는 그 수업에서 지식만 얻어 가기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회계에 대해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주길 바란다는 교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마음이었다. 그래서 교수님이 강의해 주실 때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날 오후 수업에는 장진원 회계법인 부회장님이 오셔서 회계 용어를 인생과 연관해서 이야기해주셨다. 회계 용어를 수없이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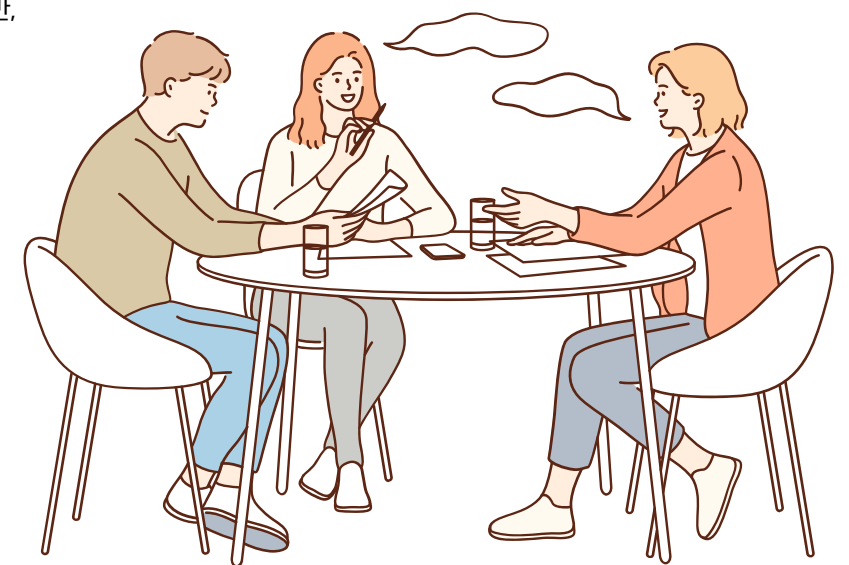
오면서 오직 전공 공부로만 생각했는데, 자산을 나의 인생에도 연관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다. 혹시 다른 학우들에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걱정했지만, 다들 흥미로워했고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어 다행이라고 느꼈다. 이날의 경험으로 나는 나의 전공 회계학에 대해서도 더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있어서 봉사활동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 것 같다. 1학기 초부터 2학기의 절반까지 나를 포함한 아홉 명의 회원들과 정말 후회 없을 만큼 많은 활동을 같이 했다. 봉사활동 자체를 하는 것과 더불어, 활동 수업에 관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초등생을 대상으로 독서 기반의 활동을 진행했는데, 행복하기만 했다면 거짓말일 것이

다.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서로 맞추어 멋있게 봉사활동을 끝내준 회원들에게 정말 고마웠고, 함께 무언가를 하고 결실을 보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다. 덕분에 우수상을 받는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

어느새 1년간의 CLAP 활동을 마치는 날이 다가왔다.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게 되어, 나의 대학 생활을 다시 돌아본다면 CLAP과 함께했던 2020년을 가장 소중했던 한 해로 뽑지 않을까 싶다. 청주대 학생인 우리에게 좀 더 넓은 시야와 경험을 얻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교수님과 운영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또한, 1년간 멋진 태도로 나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 CLAP 2기 친구들에게도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주어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



20,20

연극영화학부 19학번 전영진



1년 동안 CLAP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가치성장연구소 서지은 소장님의 '자기 관리를 완성하는 시간 관리'라는 강의였다. 대학생이 되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

의 통제 없이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지만, 기계처럼 짜인 일정대로만 움직이는 것에 익숙했던 나는 갑자기 늘어난 자유 시간들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은데도 시간에 쫓기게 되고, 계획 하나를 실천하는 것도 어려웠다.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항상 했지만, 스스로 본질적인 문제를 알 수 없어서 고칠 수 없었다. 그런 나에게 서지은 소장님의 강의는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소장님은 우리의 목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목표를 시각화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소장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이전의 나는 목표를 세울 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따로 기록을 하는 편이 아니었다. 소장님의 말씀처럼 내가 실천해야 할 목표가 눈에 보이

지 않으니 그만큼 집중도가 낮아지고, 행동력이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 강의를 통해 나는 '기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목표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기록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내가 낭비하는 시간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이 사실들을 너무 늦게 깨달아서 그동안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어 흘려보낸 시간이 아쉬워졌다. 하지만 이 강의를 계기로 이제라도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항상 내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강의를 통해 스스로 한층 성장했다고 느꼈고 자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통해 앞으로도 더욱 체계적인 삶을 살며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비가 될 거예요

보건행정학전공 19학번 정다민



저는 지난 1년간 라이프 아카데미 활동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나비의 생애에 빗대어 말하자면, 이제 막 번데기가 된 애벌레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때는 작년 12월, 크리스마스에 라이프 아카데미 합

격 연락을 받은 날 저는 성장을 준비하는 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월, 그 알은 막 깨어날 준비를 하던 중 COVID-19라는 바이러스의 습격을 받았습시다. 앞에서 깨어나 세상에 첫발을 내딛으려던 애벌레는 첫 고비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고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성장할 수 없었겠지요.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된 라이프아카데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과제는 자기소개 영상 찍기였습니다. 자기소개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과제였고, 집에서 혼자 촬영하려니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

저 보는 것이 이 자기소개 영상이라고 생각하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지만 무사히 첫 과제를

마치고 앞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 대면 수업에 갔던 작은 애벌레는 숫기도 없고 부끄럼이 많았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거나 친해질 용기가 없었고, 같은 전공 친구를 거의 매시간 찾아가다시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7월 소통의 날, 모두 앞에서 영상이 아닌 실제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직접 두 발로 찾아가 한명 한명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과 인사하고, 짧은 대화를 나누며 청중 앞에서 발표하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때까지도 작은 애벌레였던 저는 시간 관리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관리하는 법은 몰랐습니다. 9월에 있었던 '가치 성장 연구소' 서지은 소장님의 '자기 관리를 완성하는 시간 관리' 강연은 이런 저에게 가장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매년 작성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몰랐습니다. 다이어리를 활용해 시간 활용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자세히 배울 수 있었던 그 시간은 말할 수 없이 유익했습니다. 시간 계획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활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우선 정해진 고정 수업 시간을 각각 다른 색깔로 타임 테이블에 표시한 후, 비어있는 자투리 시간을 확보하여 그 시간을 자기 계발이나 부족한 공부, 취미생활을 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세울 땐 항상 긴급하고

중요한 것을 우선으로 했는데, 그보다 긴급하지 않더라도 내게 중요한 부분을 먼저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저는 시간 관리뿐 아니라 복잡하고 어려운 인간관계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곤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가 아닌 친하지 않은 지인들과는 앞으로도 딱히 연락할 일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 이외의 관계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진원 부회장님과 윤세웅 대표님의 강연을 듣고 인간관계와 인생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친하지는 않아도 관심을 가지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면, 자신과 가치관 및 공통점이 많은 인연보다 미래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장진원 부회장님의 말씀은 저에게 많은 공감과 생각의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항상 부모님께서 저와 어울리는 친구들을 보면서 “어쩌면 다들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노니”라거나, “안 친한 애들이어도 말도 걸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 봐라.”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이 그제야 이해가 됐고, 이후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가벼운 말 한마디라도 건네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윤세웅 대표님의 강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연어와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송어와 같은 삶을 살 것이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연어는 강과 바다를 넘어 다니며 큰 세상에서 일생을 살지만, 송어는 강에서만 살다가 일생을 마감한다. 세상을 넓게, 크게 보고 도전하도록 해라.” 그때 대표님이 해주신 말씀은 항상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치곤 했던 저에게 정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덕분에 최근에는 항상 관심은 있었지만 ‘나중에도 기회가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미뤘던 특강도 신청해서 들어보고, 좋아하던 분야의 책만 읽던 습관을 버리고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이나 미래를 위한 과학 분야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는데, 독서 습관도 변화고, 기회가 생겼을 때 먼저 행동하려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애벌레에서 번데기 수준까진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볼 때 CLAP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 제가 살면서 만들어온 결정 중 가장 좋은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CLAP과 함께한 나의 3학년 대학 생활

경영학과 16학번 조관우



작년 이맘때쯤, 나는 교수님께 추천받은 CLAP 2기 지원을 망설이고 있었다.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내가 CLAP과 같이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불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만난다면 네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당당히 말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CLAP을 진행하면서 대외활동, 지역탐방, 훌륭한 강연 청취 등 여러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 좋은 것으로 어느 하나만 고르라는 것은 내겐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CLAP의 모든 활동, 심지어 조원들과 함께한 소소한 일상마저도 나의 자존감을 높여준 소중한 추억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3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올해를 가장 알차게 보냈다.

먼저, 동원육영재단의 넉넉한 지원을 바탕으로 혼자라면 하기 어려웠을 다양한 경험을 선물 받았다. 또한 매주 각 분야의 저명인사들이 진행한 깊이 있는 강연에도 참여했더니 상식이 부쩍 늘어난 기분이다. 조원들과 같이 멘토링 수업을 진행하며 마음이 닫힌 상대방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었다.

원래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친해지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소수 인원으로 나뉘진 조 활동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내가 다른 학과 친구들과 좀 더 쉽게 가까워질 수 있게 도와주었다.

CLAP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꼽으라면, 올해 여름에 진행했던 대학교 멘토링 활동을 뽑고 싶다. 우리는 6월에서 9월까지 매주 일요일, 충북 괴산에 사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독서 프로그램 활동을 진행했다. 그때 나의 멘티 동윤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조용하고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성격이라 매우 다가가기 힘들었다. 이전에는 어린아이에게 먼저 다가가 본 경험이 없어서 이러다 멘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됐다. 그러나 CLAP에서 익혔던 ‘이타심’을 활용해 보기로 하였다. 내성적인 동윤이에게 무작정 달려들기보다는 나의 일상 얘기를 꺼내며 호응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소통했더니 아이가 점점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변해갔다.

하루는 동윤이가 자신의 불만을 들어달라고 했다. 동윤이네 학교의 급식 순서는 저학년부터 고학년 순인데, 동윤이는 이것을 차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동윤이가 먼저 자신의 이야

기를 하면서 내 생각을 묻는 모습이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 확연히 달라 보여서 기쁘기도 하고,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다.

그 순간은 활동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순간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 이유는 나의 이타심이 상대의 태도를 바꾸어 준 첫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이 경험을 통해 상대의 마음에 다가가는 것에 자신감이 붙었고, 이러한 자신감은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멘토링 활동을 통해 오히려 내가 멘티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올해의 CLAP 2기 활동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작년 1기보다 역동성이 축소된 느낌이다. 이점은 매우 아쉽지만,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다. 처음에는 단순 독서 수업인 줄 알았지만, 곧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원들과의 대외활동으로 협동심과 자신감을 얻었으며, 지역 탐방을 하며 추억을 쌓고, 강연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작년의 나처럼 '대외활동을 하고 싶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다른 학과 친구들과 교류하고 싶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 중인 예비 3기 친구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지난 1년간 의미 있는 활동을 할 기회를 주고 멋진 추억을 만들어준 CLAP에 감사하다. CLAP에서의 소중한 기억들은 졸업 후에도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 같다.



배움을 통해 얻은 자아실현

전자공학과 14학번 조성준



CLAP 2기를 지난 1년 가까이 참여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경험했습니다. 책을 멀리 두고 독서에 관심이 없었던 제가 책을 주제로 수업하고 토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고 책의 매력을 느

낄 수 있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책을 읽으면서 CLAP 친구들과 책에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CLAP은 제게 자아실현, 집중력 향상,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CLAP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멘토링 활동을 꼽을 것입니다. 저희 7조는 9조와 함께 협업하여 동아리를 결성했습니다. 멘티들은 초등학생이었는데 CLAP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멘티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책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림 그리기, 시 쓰기, 퀴즈 풀이 등 아이들에게 지루함을 주지 않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꿈을 주제로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학생 중 윤모와 영탁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둘 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컴퓨터 게임을 좋아한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두 멘티 다 유튜브 쪽에 관심이 많아서 최근 유튜브의 시장 및 전망에 관해서 얘기해 주었는데 생각보다 진지한 모습으로 경청하여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멘티들의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멘티들에게 유튜브 편집 관련 책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높아야 하고 자아실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멘티들에게 자존감과 자아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물어봤습니다. 멘티들은 그 단어의 뜻을 어렵듯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려 주기 위해 멘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자존감과 자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자존감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는 노력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성과를 내면 그만큼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자아에 관한 얘기를 나눌 때는 꿈에 대한 중요성과 직업의 다양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 노력을 통해 기회가 온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멘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꿈의 중요성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

했습니다. 나 멘티들과 더불어 나 자신도 성장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이 처음이었기에 교육 초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멘토링 동아리를 하기 전에 발달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 교육을 한 경험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멘티들이 우리가 말해 준 장점을 발달시키고 단점은 없애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갈수록 멘토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인상 깊고 뿌듯했습니다. 연말쯤 코로나19의 급격한 악화로 멘티들과 대면 수업이 어려워져서 비대면으로 멘토링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얼굴을 직접 마주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교육을 진행한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돌이켜보면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아 멘티들에게 정말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잘 따라와 주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멘티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CLAP을 통해 성장했다

미디어콘텐츠학부 18학번 진세연



지난 1년 동안 CLAP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조원들과 가까워지고 그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시작했던 봉사활동이다. 처음에는 다른 학우들과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CLAP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었을 다양한 학과의 학우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CLAP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는데, 오늘은 그 경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우리 조원들과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으로 자주 만날 수 없어서 서로에게 약간의 어색함을 느끼는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조별 탐방을 하기 위해 함께 계획을 세우고 같이 점심을 먹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보낸 후에는 아주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 이후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함께 대외활동에 지원도 해보고, 전원이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2개의 팀으로 나뉘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에 열중하며 다양한 경험을 해보았다.

평소 대외활동에 도전할 때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는 과정 때문에 지레 겁먹고 포기한 적도 있었다. 하지

만 이번 기회에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기로 하였다. 조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교수님께 피드백도 받으면서 1차 서류 합격을 할 수 있었고, 합격한 조원들과 함께 면접을 준비했다. 실제 기업 경영인분들께서 면접을 진행했기 때문에 살짝 부담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해야 할 일을 대학생 신분으로 미리 해보는 것이므로, 의미 있는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활동 내용은 단순 봉사가 아닌 직접 자료를 제작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영상 교육으로 바뀌었는데 그에 맞춰서 새로 만난 조원들과 함께 열심히 교육 계획을 세웠다. 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CLAP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이타심을 가지고 행동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제작 기간이 시험 기간과 겹치기도 하였고 나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영상 편집을 다루어 볼 기회가 없는 학과에 속해있어서 내가 촬영 및 편집 분야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편집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 나를 도와주었다. 조원들이 즐겁게 해내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이 차올랐다. 계획부터 완성까지 함께 이루어가니, 영상의 완성도도 더 올라간 것 같았다. 수료 후, 팀원들이 나에게 “네가 없었으면 완성하기 힘들었을 거야”라고 말해주었는데 그 말에 울컥하기도 했다.

영상을 본 아동들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내가 기획했던 수업이 재미있었다는 글을 보고 행복했다. 아주 높은 퀄리티는 아니지만 내가 의도한 만큼의 결과는 충분히 나온 것 같아 매우 뿌듯했다.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 다른 영상을 제작할 때도 이번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또한 CLAP에서 들었던 수업 중 많은 생각을 들게 했던 강연이 있었는데, 바로 엄선희 변호사님이 진행해 주셨던 약자들의 인권에 관한 강연이었다.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인권이 차별로 인해 지켜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 사례를 듣고 분노를 느꼈다. 그 사례에서는 폭행 사건에 연루된 장애 아동들의 인권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가해자에게 적합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나 법이 없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계획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권만큼 장애 아동의 인권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관련 제도나 법안의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릴 공익 광고를 제작하고 싶어졌다. 1년 전이라면 하지 못했을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지금, 이처럼 나는 CLAP을 통해 성장했음을 느낀다.



경험 속 배움

보건행정학전공 19학번 차도연



저에게 지난 1년은 CLAP을 통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활동을 해보는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대외활동으로 공모전에 참가해 봉사 활동을 하기도 했고, 궁금하기만 하였던 팀 프로젝트 활동도 해봤으며, 스스로는 접하지 않았을 여러 장르의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CLAP 활동을 하기 전의 저를 되돌아보면, 겁이 많고 언제나 익숙한 것을 좋아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도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것도 꺼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과 함께 활동하며 앞으로의 학교생활, 미래의 사회생활에 중요하게 작용할 여러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자세, 경청의 중요성, 자신감 등을 배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활동은 5, 6, 10조가 모여 '소담'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활동했던 농촌재능나눔봉사와 PBL 활동을 위해 여러 차례 진행했던 회의입니다. 저는 학부 생활을 하면서 팀 프로젝트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활동을 위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회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나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는 사실이 어색했고, 조금은 두렵기도 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프로젝트에 처음 참여하는 회의인 동시에 공모전을 위한 회의에 복잡한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저에게 집중되는 시선과 그 분위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저와 달리,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의견이 생겨도 옆에 친구에게만 말하며 소극적으로 저의 첫 회의를 끝냈습니다.

그날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프로젝트를 하며 했던 회의와 대학생의 회의는 정말 다르다고 느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의견을 전부 잘 듣고, 의견을 공유하여 더 나은 결과물이 도출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경험 때문인지 전보다는 적은 부담감을 느끼며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몇 번의 회의를 하며 저는 제가 스스로 점점 성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의견을 옆 사람이 아닌 모두에게 말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회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 모두가 제 의견을 말할 때 잘 들어주었고, 의견을 말하는 것에 살을

붙여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으며, 생각의 정리가 되지 않아 말을 조금 더듬더라도 기다려주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는 회의 때 말하는 것이 두려운 나에게 모두가 해줬던 것처럼,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즉, 경청하는 자세가 언제나 필요하고, 그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느꼈습니다.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여러 번의 회의를 했고,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결과물을 통해 회의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다른 이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며, 좋은 소통을 위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CLAP의 조별 활동에서, 특히 회의 참여를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 대학 생활 중 참여하게 될 팀 프로젝트, 더 나아가 미래 취업 후 참여하게 될 회의에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CLAP, 시작이라는 도전

신문방송한국문화전공 18학번 차지민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 '새로움', '도전'이라는 단어와는 거리를 두고 지내왔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에 도전' 혹은 '창의적'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면, 마음은 그렇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했다. CLAP 역시 그랬던 것 같다. 한참을 고민하고 지원서를 제출하기까지의 과정이 오래 걸렸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CLAP이라는 도전은 나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고, 2020년을 행복한 한 해로 기억될 수 있게 해 주었다.

CLAP을 시작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것은 일면식조차 없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 만남조차 비대면 ZOOM으로 진행해서인지 실제 만남은 더 어색할 것 같았다. 걱정을 가득 안고 첫 만남인 회의에 참석했는데, 다행히 걱정이 무색하게도 같이 밥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지금은 그때 이야기를 웃으며 하

지만, 내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가까워지지 못했을 것 같다.

함께가 된 우리는 많은 활동을 같이 했지만 특히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고 하면 '농촌 재능 나눔'을 빼놓을 수 없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첫 번째 활동이었는데, 같이 농촌 재능 나눔 활동을 계획하고, 장소를 선정하고, 아이들을 위한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밥을 먹고, 서로를 돕는 2~3개월의 기간 동안, 2년 넘게 같이 수업을 들은 학과 동기들보다 더 친해지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 같다. 혼자라면 쉽게 도전하지 못했을 일들을 CLAP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진행하고 이뤄나가면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나 또한 많이 성장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나에게 늘 어렵고 숙제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CLAP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하고 도전하는 것은 어렵고 무서운 일이 아니라 기대감과 설렘이 있는 과정임을 배웠다. 덧붙여 공통된 관심사 하나만으로도 몇 년 된 친구처럼 친해질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면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이러한 배움을 통해 1년 동안 나 스스로가 한 뼘 더 자랐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LAP에서 다양한 강연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찾을 수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전, 어떤 것이 되고 싶다는 도전,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도전 이처럼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도전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었고 성공한 후에도 멈추지 않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도전해야 함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엄선희 변호사님의 강연에서 수감자 자녀의 인권 이야기가 가장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분의 도전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수감자의 자녀가 아닌 한 명의 아이로서의 인권을, 그리고 그 아이의 다친 마음을 보듬어주기 위한 행동들이 너무 멋지고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수감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아이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나도 그런 아이들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강연을 들으면서 평소 관심 없던 분야에 관심이 생길 때도 있었다. 예를 들면 회계학과 최정미 교수님의 강연이다. 평소 숫자라면 질색을 하는 나였는데 강연이 흥미롭고 귀에 쏙쏙 들어왔다. 평소에 회계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전공과목이 아니고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 강의를 듣고 흥미가 생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전공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공부해보고 도전해 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수많은 강연과 책들을 통해 평소에 내가 관심 없던 분야의 지식들, 사회의 이슈들, 관심 있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분야들까지 배우게 되면서 전공이라는 작은 우물에서 벗어나 더 넓은 사회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나하나 뽐을 수는 없지만 1년 동안의 모든 강연과 책, 영화, 활동들이 1, 2학년의 기간보다 나를 성장시킨 것 같다.

‘CLAP 지원서 제출’이라는 아주 작은 도전이 2020년 한 해 동안의 나를 변화 시켰다. CLAP은 나를 성장시킬 밑거름이 되었으며, 나는 그것을 열심히 습득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 성장할 수 있었다. 성장통 없는 성장이 없듯, CLAP이 나에게 주는 좋은 성장통, 밑바탕이 되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나는 더 큰 꿈과 목표에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멘토링 활동으로 인한 나의 변화

미디어콘텐츠학부 19학번 허가훈



‘초등학생들은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의 가르침이 성장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려주어야 의미가 있는 멘토링 활동이 될 수 있을까?’ 이번 멘토링 활동을 통해 나는 적극적인 태도로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처음 멘토링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멘토링을 하는 공간 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멘티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부담을 주지 않고 다가가 수 있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다.

나는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멘토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이것은 이렇게 해보자, 저것은 저렇게 해보자’라고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였다. 잘하고 싶었지만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 나의 성격과 능력을 탓하던 중에 한 아이가 책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러 나에게 왔다. 내가 바뀌게 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닌가 싶다.

나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책에 대해 궁금증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대답을 해주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요’라는 말을 들 수 있었다. 그 말을 듣고 아이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에게 질문을 하며 다가오는데 나도 내가 먼저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책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어도 질문을 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먼저 흥미로운 수업으로 아이들의 관심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책 내용을 기반으로 ‘초성 게임’, ‘몸으로 말해요’와 같은 게임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인지 아이들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열심히 게임에 참여했다. 그리고 우리는 멘토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활동 마지막에 ‘멘토링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이나’고 묻자, 아이들은 함께 했던 게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이를 통해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진취적인 태도로 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멘토링을 진행하기 전과 후에 달라진 점에 대해서도 질문해 보았다. 아이들은 ‘멘토링을 하기 전에는 책을 많이 읽지 않았었는데, 책을 읽을 기회가 생겨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멘토링 활동이 재밌었다고 말해 주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해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다.

활동을 마치고 나니, 멘토링이 나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멘토링이라는 것은 멘토가 멘티를 가르치는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서로 함께 배워가는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조원들과 함께 재미있는 독서 활동을 계획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방법이나 나와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놀이

환경조경학과 15학번 현인섭



<삶이 하나의 놀이라면>

- 체리 카터 스코트

삶이 하나의 놀이라면 이것이 그 놀이의 규칙이다.

당신에게는 육체가 주어질 것이다.

종든 삶든 당신은 그 육체를

이번 생 동안 갖고 다닐 것이다.

당신은 삶이라는 학교에 등록할 것이다.

수업 시간이 하루 스물네 시간인 학교에.

당신은 그 수업을 좋아할 수도 있고

쓸모없거나 어리석은 것이라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충분히 배우지 못하면 같은 수업이 반복될 것이다.

그런 후에 다음 과정으로 나아갈 것이다.

당신이 살아 있는 한 수업은 계속되리라.

당신은 경험을 통해 배우리라.

실패는 없다. 오직 배움만이 있다.

실패한 경험은 성공한 경험만큼

똑같이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곳’보다 더 나은 ‘그곳’은 없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어떤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다.
 필요한 해답은 모두 자신 안에 있다.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
 당신은 이 모든 규칙을 잇을 것이다.

대학생활 속 책임과 의무들로부터
 클럽은 내게 나름의 도피처였다.

더 듣고 싶은 강연이 있었던 반면,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은 강연이 있었다.
 즐겁게 읽은 책이 있었던 반면, 도무지 읽을 기분이 나지 않은 책이 있었다.
 가슴에 남는 대화가 있었던 반면, 그저 이쁘게만 포장된 대화가 있었다.

난 좋음을 느끼거나 나쁨을 느낀다.
 많은 것을 나빠하며 받아들이지 않는다.
 편협한 사고와 편견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그치만
 때론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던 강연 속에서,
 도무지 읽을 기분이 나지 않던 책 속에서,
 그저 이쁘게만 포장된 대화 속에서,
 때론 배움을 얻었고
 때론 기쁨을 얻었다.

어쩌면 가끔은
 좋고 나쁨이 있는 나 말고
 모호하고 우유부단한 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당차고 자신감 넘치는 나 말고
 수줍고 부끄러운 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결국 클럽도 하나의 놀이였다.
 친구들과 함께한 재밌는 놀이.

단지 이곳에서의 놀이가 너무 많이 잊히진 않기를 바란다.

CLAP 2기 1년 동안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해온 나

영어영문학과 15학번 황지윤



CLAP에 처음 들어올 무렵, 나는 그저 학교 성적과 내가 얻어야 할 자격증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었다. 남들보다 늦었다고 생각했기에 조금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았고, 취직이 나의 가장 큰 목표였다. 그러다

가 CLAP을 알게 되었고 여러 수업과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취직만이 목표였던 내가 '이타성'에 대해 배웠고, 조별 활동을 통하여 조금씩 '사람들과 교류하는 행복'을 아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

처음 다 같이 한 활동은 토론 대회였다. 급하게, 그리고 작게 시작된 대회였지만, 토론을 통해 CLAP 참여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다. 여름방학 때는 조끼리 지역사회 탐방을 했다.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사람들과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자료를 조사하고, 함께 식사하는 활동들이 나에게 처음 접하는 경험이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이 활동들은 내가 조원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CLAP에 참여하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야간학교에서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르신 봉사는 하루 중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어서 CLAP 봉사 시간을 채우기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았다.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였다면 종일 하는 봉사를 선택하여 빠르고 쉽게 채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CLAP의 수업을 듣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나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생긴 것 같다. 매주 한두 시간 정도 어르신들께 한글을 가르쳐 드리며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겐 큰 의미가 있는 경험이었다. CLAP 활동이 끝나더라도 이 봉사는 가능한 오래 계속하겠다고 마음먹었다. CLAP 활동을 하기 전에는 내게 이득이 되는 결과물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의 이타성을 깨워준 CLAP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지난 1년간 CLAP 2기로 활동하면서, 제목처럼 나도 모르게 변해온 것 같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행복한 일임을 알게 되었고, 나와 다른 누군가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전 기수보다는 다소 한정적인 활동을 했고, 그만

큼 다른 학생들과의 교류도 적어 아쉽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 진행한 활동들과 값진 결과물을 생각하면 뿌듯함이 앞선다. 사람들에게 정도 많이 든 것 같다. 다른 수업들에서 만났던 학우들과는 달리, 수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연락이나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 만남을 이어갈 것 같다. 나의 내면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준 CLAP에 고마움을 느낀다. 이 특별했던 교양수업은 나의 좋은 추억으로 오래 오래 남을 것이다.







2020 청주대학교
라이프아카데미(CLAP) 2기

꿈꾸는 그대에게, CLAP!

기획 | 청주대학교 라이프아카데미(CLAP) 사업단

발행/인쇄일자 | 2020년 2월 19일

발행처 | 청주대학교 교양대학

디자인/제작 | 라임

문의처 | 청주대학교 교양대학 라이프아카데미 사무실(043-229-7838)

비매품

이 책의 저작권은 청주대학교 라이프아카데미(CLAP) 사업단에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이 책자의 내용을 청주대학교 라이프아카데미(CLAP) 사업단의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주대학교

2020 청주대학교 라이프아카데미(CLAP) 2기

꿈꾸는 그대에게, CLAP!

